

Korea Maritime Institute

2013 수산전망대회

날짜 : 2013년 1월 10일(목)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머 리 말

지난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수산업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해였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장기 세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초과수요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 급증으로 세계 수산물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의 수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1년 12월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3 수산전망대회」는 2009년 이후 다섯 번째로 치르는 행사로서 금번 전망대회는 글로벌 수산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이 ‘세계 수산물 초과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을 모색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본 전망대회의 발표자료와는 별도로 우리 연구원의 수산연구본부 및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들이 분석한 2013년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주요 수산지표, 어업부문별 동향과 전망, 양식 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수산정책 담당자의 정책수립은 물론 어업인들이 한 해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수산연구본부 및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전망대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농

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물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물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부경대학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학 소 원 장

집 필 진

제 목	집필책임자	참여 연구진
총 괄	정 명 생 수산연구본부장	
제 1부 2013년 수산업·어촌의 비전		
제 1 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최 성 애 연구위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제 2 장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과 과제	홍 현 표 글로벌수산연구실장	이현동 전문연구원
제 3 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이 승 우 수산정책연구실장	윤상호 연구위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제 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 4 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김 대 영 어업자원연구실장	이정삼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제 5 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남 종 오 수산업관측센터장	김수현 전문연구원
제 6 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장 홍 석 부연구위원	안재현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
제 7 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 문 배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제 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남종오 수산업관측센터장	
	집필진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김 수급동향과 전망 2.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백은영 부연구위원 이남수 연구원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2. 우럭 수급동향과 전망 3.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최윤범 연구원 박태경 연구원 노승국 연구원	
제 10 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2. 굴 수급동향과 전망	성진우 연구원 노승국 연구원	

대회일정

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제1부 개회행사		※ 사회 : 정명생 수산연구본부장
10:00~10:10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10:10~10:15	축 사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10:15~10:20	축 사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10:20~10:50	기조연설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과제”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10:50~11:00	기념 사진촬영	
제2부 주제발표		※ 사회 : 조정희 연구위원
11:00~11:30	제1주제	“중국 수산시장의 전망과 이슈” 한성용 중국상해해양대학 교수
11:30~12:00	제2주제	“동남아 수산시장의 전망과 이슈” Arif Satria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석자문관
12:00~12:30	제3주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단기 전망과 해외진출 전략” 홍현표 글로벌수산연구실장
12:30~14:00	오 찬	
제3부 업종별/부문별 전망		※ 사회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4:00~14:30	제1발표	“양식어업 전망과 생산능력 확충 방안” 발표자 : 남종오 수산업관측센터장
14:30~14:50	제2발표	“연근해어업 전망과 선진화 방안” 발표자 : 김대영 어업자원연구실장
14:50~15:10	제3발표	“원양산업 전망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15:10~15:20	Coffee Break	
15:20~15:40	제4발표	“수산식품산업 전망과 수출전략화 방안” 발표자 : 주문배 연구위원
15:40~16:00	제5발표	“글로벌 시대의 어촌 발전 방안” 발표자 : 이승우 수산정책연구실장
제4부 종합토론		
16:00~17:0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장 : 김성진 한경대학교 총장 ○지정토론 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장 김덕술 (사)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폐회	사회자

· 목 차

머 리 말 i

제1부 2013년 수산업 · 어촌의 비전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3

1. 서론 3

2. 2012년 대내외 여건 변화 6

1)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 6

2) 지역경제협력 확대 지속 7

3) 국제곡물 가격 등 상승 불구 국내 물가 전년 대비 안정세 9

4) 2012년 주요 수산정책 및 이슈 9

3. 2013년 전망과 이슈 13

1)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 13

2) 동아시아 중심 FTA의 본격 추진 14

3) 위기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15

4)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상존 16

5) 환율 변동성(소폭 하락) 확대 17

6) 수산 · 어촌 분야 새누리당 주요 공약내용 18

제2장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과 과제 22

1. 서론 22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23

1) 분석모형 23

2) 가정 24

3) 자료 25

4) 모형의 유효성 26

3.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	26
1) 어업생산	27
2) 수산물 물가지수	31
3) 수산물 수출입	33
4) 수산물 소비	34
5) 수산업 부가가치	35
6) 어가경제	36
4. 시사점	38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41

1. 서론	41
2. 어가경제 동향	42
1) 어가소득	42
2) 어가지출	45
3) 어가부채	46
4) 연령별·어업형태별 동향	46
3. 2011년 어업조사 결과	48
1) 어가 및 어가인구 지속적인 감소	48
2) 어가인구 고령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49
3) 전업, 겸업 어가 전년대비 모두 감소	51
4) 어업경영형태, 양식어가 증가하고 어로어업은 감소	52
5) 2톤 미만 소형어선 보유어가 큰 폭으로 증가	53
6) 중대형 규모 양식장 어가 증가세	53
7) 수산물 1억원 이상 판매 어가 10%에 육박	54
8) 계통 수산물 판매비율 갈수록 감소	55
9) 어업관련사업 경영어가 크게 감소	56
4. 귀어·귀촌 동향	57
1) 최근 귀어·귀촌 동향	57
2) 양식과 어선어업 귀어·귀촌 많아	58
3) 전남지역 귀어·귀촌 많아	59

5. 2013년 전망과 이슈	60
1) 전망	60
2) 이슈	60

제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65
1. 서론	65
2. 2012년 연근해어업 동향	66
1) 어업 자원	66
2) 어선	69
3) 어업 생산	71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 가격	76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80
3. 2013년 전망과 이슈	87
1) 전망	87
2) 이슈 및 대책	89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93
1. 서론	93
2. 2012년 양식산업 동향	94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94
2) 양식 생산 및 가격	96
3) 양식 수출입	101
4) 대내외 양식 환경	103
3. 2013년 전망과 이슈	105
1) 전망	105
2) 이슈	108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113
1. 서론	113
2. 2012년의 원양산업 동향	114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14
2) 생산 및 수출 동향	121
3) 해역별 조업 현황	126
4) 경영 및 고용 현황	130
5) 해외 원조 사업 및 자본 진출	133
3. 2013년 전망과 이슈	135
1) 전망	135
2) 이슈 및 대책	137

제7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142
1. 서론	142
2.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143
1) 수산식품 소비 부문	143
2) 수산유통 부문	145
3) 수산가공 부문	151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154
5)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159
3. 2013년도 전망과 이슈	163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163
2) 주요 이슈 및 대책	170

제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제8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79
I. 김 수급동향과 전망	179

1. 서론	179
2. 2012년 동향	180
1) 생산	180
2) 가격	184
3) 재고	187
4) 수출입	188
3. 2013년 전망	192
1) 생산	192
2) 가격	192
3) 수출	193
4) 소비	193
II.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195
1. 서론	195
2. 2012년 동향	196
1) 생산	196
2) 가격	201
3) 수출입	203
3. 2013년 전망	208
1) 생산	208
2) 가격	208
3) 수출	209
4) 소비	210
제9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211
I.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211
1. 서론	211
2. 2012년 동향	212
1) 생산	212

2) 가격	218
3) 수출	220
3. 2013년 전망	222
1) 생산	222
2) 가격	223
3) 수출입	223
4) 소비	223
II. 우력 수급동향과 전망	225
1. 서론	225
2. 2012년 동향	226
1) 생산	226
2) 가격	232
3) 수입	235
3. 2013년 전망	236
1) 생산	236
2) 가격	237
3) 수출입	237
4) 소비	237
III.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239
1. 서론	239
2. 2012년 동향	240
1) 생산	240
2) 가격	244
3) 수입	246
3. 2013년 전망	246
1) 생산	246
2) 가격	247
3) 수출입	247

4) 소비	248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249
I.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249
1. 서론	249
2. 2012년 동향	250
1) 출하	250
2) 가격	253
3) 수출	255
3. 2013년 전망	257
1) 출하	257
2) 가격	257
3) 수출	257
4) 소비	258
II. 굴 수급동향과 전망	259
1. 서론	259
2. 2012년 동향	260
1) 생산	260
2) 가격	265
3) 수출입	266
3. 2013년 전망	269
1) 생산	269
2) 가격	270
3) 수출입	270
4) 소비	271

표 목 차

<표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8
<표 1-2> 2013년 경제전망 요약	14
<표 2-1>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가정	24
<표 2-2> 수산부문 총량모형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	26
<표 2-3> 어획노력량 추이와 전망	27
<표 2-4> 양식어업 면허면적 추이와 전망	27
<표 2-5> 주요 투입재가격의 추이와 전망	28
<표 2-6> 어업별·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29
<표 2-7> 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30
<표 2-8> 수산물 종류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32
<표 2-9> 수산물 종류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33
<표 2-10> 수산물 종류별 수출입 추이1) 및 전망	34
<표 2-11> 수산물 종류별 소비량 추이 및 전망	35
<표 2-12> 수산업 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36
<표 2-13> 어가수 추이 및 전망	37
<표 2-14> 어가소득 추이와 전망	38
<표 3-1> 어가소득 동향	43
<표 3-2> 어가지출 및 어가경제잉여 동향	45
<표 3-3> 어가부채 동향	46
<표 3-4> 경영주 연령별 어가경제 현황(2011년)	47
<표 3-5> 어업형태별 어가경제 현황(2011년)	48
<표 3-6> 어가 및 어가인구 변화추이	49
<표 3-7> 어가인구 고령화율(2010~2011)	50
<표 3-8> 경영주 연령별 어가(2010~2011)	50
<표 3-9> 경영주 연령별 어가인구(2010~2011)	51
<표 3-10> 전·점업별 어가변화 추이	52
<표 3-11> 어업경영형태별 종사어가 변화추이	52
<표 3-12> 어선톤수별 어선보유 어가변화 추이	53

<표 3-13> 양식어장 면적규모별 어가변화 추이	54
<표 3-14>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	55
<표 3-15> 수산물판매처별 어가변화 추이	56
<표 3-16> 어업관련 사업 경영 어가	57
<표 3-17> 업종별 귀어 동향	59
<표 3-18> 지역별 귀어 동향	59
<표 4-1> 2012 연근해 주요 어종의 어황	67
<표 4-2> 2012 주요 근해어업의 어황	68
<표 4-3> 연근해 어선 현황	70
<표 4-4>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량(2010~2012년)	71
<표 4-5> 연근해어업 어획 어종 수	73
<표 4-6>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량 순위(2010~2012년)	74
<표 4-7> 연근해 10대 어종의 생산비중(2012년 1~10월)	74
<표 4-8> 연근해 4대 어종의 생산량생산금액과 주요 어구어법(2012년 1~10월 기준) ..	75
<표 4-9>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량(2010~2012년)	76
<표 4-10>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액 순위(2010~2012년)	77
<표 4-11>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액(2010~2012년)	77
<표 4-12>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2010~2012년)	78
<표 4-13>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자 가격(2010~2012년)	79
<표 4-14>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자 가격(2010~2012년)	80
<표 4-15> 대형선망어업 수익성	82
<표 4-16> 대형트롤어업 수익성	83
<표 4-17>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수익성	84
<표 4-18>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수익성	85
<표 4-19> 기선권현망어업 수익성	86
<표 5-1> 2013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전망(2012년 대비)	108
<표 6-1>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119
<표 6-2> 중국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119
<표 6-3> 주요 어종별 생산량 및 적당 생산량 추이	123
<표 6-4>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125

<표 6-5> 원양어업 어종별 수출추이	125
<표 6-8> 대서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129
<표 6-9> 인도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130
<표 6-10> 업종별 어선 척수 및 선령 현황(2010년 말)	132
<표 6-11> 연도별 원양어업 어선원 고용 현황	132
<표 6-12> 2012년도 사업실적 및 2013년 계획	134
<표 6-14> KMI 수산협력 사업에 따른 해외 연안개도국의 수산협력 수요	140
<표 7-1> 수산물 수급 동향	144
<표 7-2> 우리나라 어업별 계통 출하 비중의 추이(생산량 기준)	146
<표 7-3> 위판물량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147
<표 7-4> 위판금액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148
<표 7-5> 우리나라 공영 및 법정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동향	149
<표 7-6> 국내 수산물 소비량 대비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점유율	149
<표 7-7>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규모	150
<표 7-8> 대형마트의 부문별 매출액 구성비의 추이	151
<표 7-9>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152
<표 7-10> 염건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152
<표 7-10> 염장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153
<표 7-11> 수산통조림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153
<표 7-12> 해조제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154
<표 7-18> 국내 수입수산물의 연도별 증감 추이	160
<표 7-19> 수입수산물 부적합 건수	160
<표 7-20> 연간 1인당 육류 대비 어패류 공급량 비중	161
<표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181
<표 8-2> 품종별 김 양식시설 비율	182
<표 8-4>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동향	184
<표 8-5> 연대별 김 산지가격 동향	185
<표 8-6> 연산별 김 산지가격 동향	185
<표 8-7>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동향	186
<표 8-8> 연도별 김 추정재고량 동향(연도말 기준)	187

<표 8-9> 연도별 국가별 김 수출량 비중	191
<표 8-10> 연도별 월별 김 수입 동향	191
<표 8-11> 2013년 김 수급 전망	194
<표 8-12> 연산별·지역별 미역 시설량	197
<표 8-13> 연산별·월별 미역 생산 동향	199
<표 8-14> 연산별·지역별 미역 생산 동향	200
<표 8-15> 연산별·월별 미역 산지가격 동향	201
<표 8-16> 2013년 미역 수급 전망	210
<표 9-1> 광어의 입식물량 동향	216
<표 9-2> 광어 양성량 추이	222
<표 9-3> 2013년 광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224
<표 9-4> 2013년 우럭의 국내 소비량 추정	238
<표 9-5> 송어 연도별 수급추이	240
<표 9-6> 송어의 입식물량 동향	243
<표 9-7> 2012년 송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248
<표 10-1> 최근 3개년간 분기별 출하 비중	251
<표 10-2> 전복 양성물량(2011년 11월말 기준)	253
<표 10-3> 연도별 전복의 국내 소비량 추정	258
<표 10-4> 굴 시설량(5m 기준 수하연 수) 현황	260
<표 10-5> 연도별·지역별 굴 생산량	262
<표 10-6> 11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263
<표 10-7> 2013년산 굴 양성상태	264
<표 10-8> 연도별·제품별 굴 수출 동향	268
<표 10-9> 연도별·제품별 굴 수입 동향	269
<표 10-10> 2013년산 굴 생산 전망	270
<표 10-11> 2013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 추정	271

그림목차

<그림 2-1> 어업생산량 추이와 중장기 전망	31
<그림 2-2> 수산물생산자물가지수 중장기 전망	32
<그림 2-3> 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 중장기 전망	33
<그림 2-4> 어가 경영수지 비율 추이와 전망	36
<그림 3-1> 어가소득 세부내역의 비중변화	43
<그림 3-2> 어업소득률 · 어업의존도 추이	44
<그림 3-3> 어가소득 · 전국가구소득의 비교	45
<그림 3-4> 귀어 인구 추이	58
<그림 4-1> 연근해어선 추이(1992~2012년)	70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1990~2012년)	72
<그림 5-1> 주된 양식업 가구수 및 가구수 점유비 추이	94
<그림 5-2> 양식 면허건수 추이	95
<그림 5-3> 양식 면적 추이	96
<그림 5-4>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97
<그림 5-5>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점유비 추이	97
<그림 5-6>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98
<그림 5-7>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98
<그림 5-8>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추이	99
<그림 5-9> 양식 수산물의 생산가격 추이	100
<그림 5-10>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추이	100
<그림 5-11>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량 추이	101
<그림 5-12>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금액 추이	102
<그림 5-13> 양식 수산 품목의 수출입 단가 추이	102
<그림 5-14> 주요 양식 지역의 수온 변화 추이	103
<그림 5-15> 면세유 가격 추이	104
<그림 5-16> 2013년 천해양식 생산량 전망	105
<그림 5-17> 2013년 천해양식 수출입 전망	106
<그림 6-1> 원양 생산량과 단가 추이	122

<그림 6-2> 해역별 생산 추이	124
<그림 6-3> 원양 어선보유 척수별 경영체 추이	131
<그림 7-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144
<그림 7-2>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량의 추이(만 톤)	147
<그림 7-3>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금액의 추이	148
<그림 7-4>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시 가장 우선하는 요인	162
<그림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181
<그림 8-2> 연산별 월별 김 생산량 추이	183
<그림 8-3>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추이	184
<그림 8-4> 연산별 김 산지가격 추이	186
<그림 8-5>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추이	187
<그림 8-6> 연도별 김 수출 추이	188
<그림 8-7> 연도별 월별 김 수출 추이	189
<그림 8-8> 연도별 제품별 김 수출량 비중 추이	190
<그림 8-9>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	197
<그림 8-10> 연산별 미역 생산량 추이	198
<그림 8-11> 연산별·월별 미역 생산량 추이	199
<그림 8-12> 연산별·지역별 미역 생산량	200
<그림 8-13> 연산별·용도별 미역 산지가격 추이	201
<그림 8-14> 연도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202
<그림 8-15> 월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203
<그림 8-16> 연도별 미역 수출 추이	204
<그림 8-17> 월별 미역 수출량 추이	204
<그림 8-18> 미역 제품별 수출량 추이	205
<그림 8-19> 미역 수출대상국별 수출량 및 수출금액	206
<그림 8-20> 연도별 미역 수입 추이	207
<그림 8-21> 월별 미역 수입량 추이	208
<그림 9-1> 광어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	212
<그림 9-2> 광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213
<그림 9-3> 광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214

<그림 9-4> 광어의 크기별 생산량 추이	215
<그림 9-5> 최근 3년간 크기별 생산비중	215
<그림 9-6> 광어의 총 양성물량 추이	217
<그림 9-7> 광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추이	217
<그림 9-8> 연도별 광어 가격 추이	218
<그림 9-9> 광어의 월별·지역별 가격 추이	219
<그림 9-10> 제주지역 광어의 월별·크기별 가격 동향	219
<그림 9-11> 연도별 광어 수출동향	220
<그림 9-12>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광어 수출량 추이	221
<그림 9-13> 연도별 환율 및 수출 단가 추이	221
<그림 9-14> 우럭의 연도별 출하량 추이	226
<그림 9-15> 우럭의 월별 출하량 추이	227
<그림 9-16> 우럭의 지역별 출하량 추이	228
<그림 9-17> 우럭의 크기별 출하량 추이	229
<그림 9-18> 2011년 우럭의 크기별 출하비중	230
<그림 9-19> 우럭의 입식물량 추이	231
<그림 9-20> 우럭 총 양성물량 추이	231
<그림 9-21> 우럭의 출하가능물량 추이	232
<그림 9-22> 우럭의 평균단가 추이	233
<그림 9-23> 우럭의 지역별 가격 추이	234
<그림 9-24> 우럭의 크기별 가격 동향	234
<그림 9-25> 연도별 우럭 수입동향	235
<그림 9-26> 최근 5년간 평균 월별 우럭 평균 수입량 추이	236
<그림 9-27> 연도별 송어 생산량·생산금액 추이	240
<그림 9-28> 송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241
<그림 9-29> 송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242
<그림 9-30> 송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동향	244
<그림 9-31> 월별·지역별 송어 산지가격 추이	245
<그림 9-32> 월별·지역별 레저용 송어 가격 추이	245
<그림 9-33> 월별 냉동 송어 수입 동향	246

<그림 10-1> 연도별 양식전복 출하동향	250
<그림 10-2>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252
<그림 10-3> 양식 활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 추이	254
<그림 10-4> 월별 양식 활전복 도매가격(kg당 10마리) 추이	255
<그림 10-5> 연도별 활전복 수출량 및 수출단가	256
<그림 10-6> 월별 활전복 수출량 추이	256
<그림 10-7> 굴 시설 비중 현황	261
<그림 10-8> 연산별 월별 굴 생산량 추이	262
<그림 10-9> 연산별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263
<그림 10-10> 연산별·월별 산지가격 추이	265
<그림 10-11> 연도별·월별 도매가격 추이	266
<그림 10-12> 연도별 월별 수출량 추이	267

제1부

2013년 수산업 · 어촌의 비전

- ▶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 ▶ 제2장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과 과제
 - ▶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최성애* · 임경희** · 김봉태**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서론2. 2012년 대내외 여건 변화<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2) 지역경제협력 확대 지속3) 국제 곡물가격 상승 불구, 국내물가 전년 대비 안정세4) 2012년 주요 수산정책 및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3. 2013년 전망과 이슈<ul style="list-style-type: none">1) 글로벌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2) 동아시아 중심 FTA의 본격 추진3) 위기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4)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상존5) 환율 변동성(소폭 하락) 확대6) 수산·어촌분야 새누리당 공약내용 |
|--|--|

1. 서론

- 2012년 세계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은 대응책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 2012년 국내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3/4분기에는 1.6%에 그쳤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라 수출 감소 및 투자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등에 따른 국내 자본유입이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 연구위원, ** 전문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2년에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터키, 콜롬비아와 FTA가 타결되었고, 한-터키 FTA는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3%로 추정되는데 연간 4% 상승한 2011년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2010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곡물가격은 2012년 초반에 다소 하락하였다가 중반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글로벌 경기부진과 국제유가와 비철금속의 공급 확대로 이들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전체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 2012년 다양한 수산정책이 실시되고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주요 수산분야 정책이슈와 제도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 제정과 한·중 수산협력 공동노력
 - 한·미 FTA 발효, 보완대책 마련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최초 시행
 - 재해·재난에 따른 가격상승·소비침체의 수산물 디플레이션 현상
 - 굴 대미 수출중단 대응으로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마무리
 - 여야 대선후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채택
- 2013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와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2년 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나, 3%의 저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치나, 이후 재정의 조기집행,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 및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어 약 3%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세계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경기 리스크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가운데, IMF와 OECD 등은 2013년 세계경제 성장이 2012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올해 우리나라는 한·중 FTA 협상의 본격화와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FTA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대책 마련에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 수산업 신흥강대국인 베트남과의 협상은 올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상도 2013년에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기후변화가 빈번하고 수산물 안전성을 둘러싼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학계의 전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상이변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3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대외 요인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엔화가치도 정부의 통화 공급을 통해 약세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환율 하락 변동성 확대에 대한 수산부문의 대비가 필요하다.
- 2013년에 새로운 정부가 발족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수산·어촌분야의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어가 소득안정 기여
 -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2. 2012년 대내외 여건 변화

1)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

(1) 세계 경기 하락세 다소 진정¹⁾

- 2012년 세계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이 이에 대해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제유가 오름세가 진정되었고 선진국의 GDP갭(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었다.
- 미국은 고용 및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의 양적완화가 경기회복에 일부 기여하였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까지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교역의 위축, 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위기로 파급되었다가 하반기에 유럽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방안, 유럽안정화 기구 출범, 은행동맹 합의 등 불안 진정을 위한 처방이 제시되면서 위기 우려가 줄어들었다.
 - 그러나 유동성 지원 이상의 구조적 개선책 마련이 쉽지 않아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취약국의 위기 우려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세계교역의 확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선진국의 수요 견인력이 약해지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 빠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소득 간,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전략의 변화에 대한 내부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2.10.을 참고하여 기술함

(2) 수출·투자 감소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²⁾

- 2012년 국내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3/4분기에는 1.6%에 그쳤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라 수출 감소 및 투자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3/4분기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는 전 분기보다 0.8%p 상승한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1.0%p 감소하였다.
- 경제활동별로는 수출 감소와 투자부진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된 반면, 내수의 영향이 큰 서비스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상품 수출은 2/4분기에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 다소 회복되었다.
- 민간소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역 조건 개선으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고 국내 물가수준이 하락하면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 및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 금융시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국내 자본유입이 증가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
 - 가계부채는 총량수준에서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은 다소 상승하였다.

2) 지역경제협력 확대 지속

- 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의 확산은 양국간 협력은 물론,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다국간 협력도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2)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2년 하반기」, 제29권 제2호, 2012.를 참고하여 기술함

RTA)은 242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3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

- RTA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전체의 약 81%인 197건이 1995년 이후 체결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2년에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을 보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 8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 2012년에는 터키, 콜롬비아와 FTA 타결되었고 한-터키 FTA는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중국을 비롯하여 중·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다.

〈표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국 가
발효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서명 / 협상타결	터키('12.8), 콜롬비아('12.8)
협상 중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중국·일본, RCEP
협상재개 여건조성	일본,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협상준비 공동연구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주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3) WTO의 List of all RTAs 바탕(2012년 말 기준)

3) 국제 곡물가격 상승 불구, 국내 물가 전년 대비 안정세

- 2010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곡물 가격은 2012년 초반에 다소 하락하였다가 중반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글로벌 경기부진과 국제유가와 비철금속의 공급 확대로 이들 원자재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전체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2% 상승하여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연간 4% 상승한 2011년보다 크게 낮아졌다.⁴⁾
 - 신선식품 물가는 5~6월 가뭄, 8~9월 태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1년의 6.3%에서 5.8%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농산물이 8.7%, 수산물이 2.6% 상승했으나 축산물이 7.4%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3.1% 상승하였다.

4) 2012년 주요 수산정책 및 이슈

(1)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 제정과 한·중 수산협력 공동 노력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이 여전하였으며,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집단 계류하여 무력저항 시위 등 지난해와 같은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외국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액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정선 명령에 불응한 불법 혐의 선박의 소유나 선장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제주도 연안에 치어를 대량 방류하였다.

4) 기획재정부, “2012년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2% 기록”, 보도참고자료, 2012.12.31.

- 앞으로도 계속 공동으로 치어를 방류해 제주 연안과 동중국해의 수산자원 조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한·미 FTA 발효, 보완대책 마련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불안감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업인들은 정부에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보완대책을 촉구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정의 이행이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미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정부 의지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수산분야 조건불리직불제 최초 시행

- FTA 대책의 하나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시행되었고 2013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적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의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제도에 따라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 간 3년 평균 어업 소득차액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해당 어가에 지원한다.
- 사업 대상은 415개 도서 소재 440개 어촌계의 약 2만 7천 어가이다.
- 또한 이 제도는 어촌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며 바닷가 청소, 수질 개선, 재난 구호, 해파리 방제, 종묘 방류 등 어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적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4) 재해·재난에 따른 가격상승·소비침체 현상

- 수온상승으로 서해, 남해에 갑작스레 나타난 해파리 떼로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적조, 폭염, 태풍 등으로 연근해 조업이 불가능하여 연근해 산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소비는 저조하였다.
- 13년 만에 서해안 충남의 태안, 안면도, 천수만, 서천, 보령 일대에 이르는 넓은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였다.
- 바닷물에 산소가 줄면서 나타나는 물덩어리인 ‘빈산소수괴’가 마산만가 진해만에 매년 발생하여 양식어업에 피해를 주었다.
-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제16호 ‘산바’ 등 3개의 태풍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남지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히고 특히 전복양식장과 양식어업에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5) 대미 굴 수출 중단에 따른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의거해 2012년 3월 실시된 대미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위생안전 점검에서 분뇨 관리 부실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등 위생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신선 및 냉동 패류 수출이 중단되었고 이전에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 이에 대응하여 대미 수출 재개 및 패류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지정해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 특히 오염원 통제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원 관리주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수출용 패류에 한정된 관리를 내수용 패류로 확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은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선내역 및 허가사항, EEZ 및 TAC 할당정보, 선박 검사정보, 조업실적, 입출항신고내역, 면세유공급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다.
- 금년 1월부터 전국 동시 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이 시행되는데 먼저 8톤 이상의 근해어업 허가어선에 대해 동일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 및 전자어업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 8톤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은 2014년, 5톤 미만 구획어업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7)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마무리

- 2011년 6월 15일 정부방침 발표 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안)이 일단락되었다.
-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형선망어선의 제주도 주변 7.4km 이내 조업금지와 관련하여 2.7~7.4km 수역에 대해 전갱이의 경우 7월 한 달, 고등어는 9월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는 불빛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업을 허용하는 조정방안이 마련되었다.
- 멸치 금어기 신설, 어린 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설정, 꽃게 및 장어잡이 수역조정 등의 요구사항 역시 단서조항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8) 여야 대선후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채택

- 대선정국에 맞추어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는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채택을 대선후보 등에게 촉구하였고, 해양수산부 복원과 국가미래 경쟁력의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장을 펼쳤다.

- 여야 대선후보 공히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새 정권에서 정부조직은 ‘수산해양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되었다.

3. 2013년 전망과 이슈

1)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

- IMF와 OECD 등은 2013년 세계경제 성장이 2012년 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OECD는 2013년 세계경제를 3.4%의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IMF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국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는 한편,⁵⁾ 유로존은 금융 불안과 재정 긴축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 일본은 정권 교체 이후 양적 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중국은 내수 진작 등을 통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처럼 세계 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세는 2012년 보다는 개선되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와 이로 인한 심리 위축 등으로 국

5) 2012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 높았으나 새해 첫날 재정절벽 타개 방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재정절벽에 대한 위협에서 우선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재정절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세혜택 종료는 물론 대규모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지칭함(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년 세계경제전망, 2012.10.22)

내 경제는 저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치나, 이후 재정의 조기집행,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 및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어 3.0%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민간소비는 실질 구매력 증대, 교역 조건 개선 등의 호재와 함께 주택시장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의 제약요인이 동시에 상존하는 가운데 연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기저효과,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 보다는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약 3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2013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2013년 전망
		1/4	2/4	3/4	연간	
세계경제	3.8	-	-	-	3.3	3.6
실질 GDP	3.6	2.8	2.3	1.5	2.1	3.0
민간소비	2.3	1.6	1.1	1.6	1.8	2.7
설비투자	3.7	8.6	△3.5	△6.5	△1.4	3.5
건설투자	△5.0	1.5	△2.1	△0.2	△0.4	2.0
취업자 증감(만명)	42	47	43	51	44	32
소비자물가	1.4	3.0	2.4	1.6	2.2	2.7
경상수지(억달러)	261	26	112	147	420	300

출처 :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전망”, 2012.12.27.

2) 동아시아 중심 FTA의 본격 추진

- 올해 우리나라는 한·중 FTA 협상의 본격화와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FTA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대책 마련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지금까지 한-중 FTA 협상은 10월까지 총 4차례 개최되었는데,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국이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수산부문과 관련해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 지금까지 진행된 한-중 FTA에 대한 영향 예측 연구 결과는 물론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각종 회의에서 나타난 현장의 우려는 매우 큰 실정으로, 국내 대책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요구된다.
- 특히 2013년은 다른 연도와 비교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FTA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산업에 있어 신흥강대국인 베트남과의 협상은 올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이 작년 11월 20일에 개시됨에 따라 2013년에 본격적 협상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
 - 또한 ASEAN 국가가 주축이 된 RCEP(16개국)이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가 선언된 만큼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전망되고 있다.
- 세계 경제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주요 생산·교역국인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국내 수산부문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국내 수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물론 대상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소비 구매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수출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이 마련·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위기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 지난해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큰 몸살을 앓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4년만에 도래한 유례없는 가뭄, 더위, 한파, 대형태풍·폭우, 작황 이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특히 수산물과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물가 불안정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수산분야의 경우 기상재해로 인한 악재와 위해 · 안전성 문제로 작년 한해 생산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 기상이변은 자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산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12년 생산현장은 적조(하절기~가을), 태풍 내습(볼라벤, 덴빈, 산바)으로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굴 생산해역의 노로바이러스균 검출로 인한 대미수출 중단, 불량 수산물⁶⁾의 시중 유통 등이 문제화되면서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화되었다.
- 2013년에도 기후변화가 빈번하고 수산물 안전성을 둘러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원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학계의 전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상이변이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3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산분야에 있어 재난 대응, 비용 · 가격 등락, 수급 안정화는 물론 수산식품의 위생 ·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상이변과 위해 · 안전성이라는 리스크에 대해 각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산분야의 상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상존

- 2012년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로 조정 받는 모습을 보였다.
- 2013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약한 회복세,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생산 증가 등 수급여건 개선으로 하락 요인이 있으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

6) 부산일보, 2012.3.22 p.7 참조

로별 유동성의 투기 자금화 등 상승요인이 상존해 있다.⁷⁾

- 한편 곡물가의 경우 2012년 수입 곡물가의 인상이 올해 초부터 반영될 예정인데다, 주요 곡창지역의 기상여건 악화로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되어 물가 불안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원자재가격 중 유가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대 여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 등이 원자재가격 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세계 경제의 회복 여하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미국, 유럽의 추가 양적 완화를 통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원자재 가격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곡물가격은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및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 수급 여건의 불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환율 변동성(소폭 하락) 확대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대외 요인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엔화가치도 정부의 통화 공급을 통해 약세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수산부문의 대비가 필요하다.⁸⁾
 - 2013년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확장 시행, 대외 신인도 개선에 따른 원화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지속 등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 원화가치는 이러한 대외경기 상황과 투자심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7)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2.12.27.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년 세계경제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2.10.22., p.9 참고

6) 수산어촌 분야 새누리당 공약내용⁹⁾

- 2013년에 새로운 정부가 발족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4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였다.
 -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분야별 정책(20대 분야, 201개 약속)을 제안하였다.
- 행복한 농어촌의 구축을 목표로 제시된 수산어촌분야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 *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 농어촌 주거·의료·교육여건 개선
 -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9) 2013년 새로이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공약에서 발췌, 농업과 농촌분야 포함

-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농림수산물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어가 소득안정 기여
 -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발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발작물에도 적용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 ※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 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
 -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신설
 -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 후계 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2년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2% 기록”, 보도참고자료, 2012.12.31.
기획재정부, “2012년 제3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 2012.12.21.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전망”, 2012.12.27.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2012.1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년 세계경제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2.10.22.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2.12.27.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2년 하반기」, 제29권 제2호, 2012.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2.10.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현안과 과제, 2012.10.10.
국제무역기구 홈페이지(www.wto.or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제2장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과 과제

홍현표* · 이헌동**

목 차

- | | |
|--------------------|-------------|
| 1. 서론 | 1) 어업생산 |
|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 2) 수산물 물가지수 |
| 1) 분석 모형 | 3) 수산물 수출입 |
| 2) 가정 | 4) 수산물 소비 |
| 3) 자료 | 5) 수산업 부가가치 |
| 4) 모형의 유효성 | 6) 어가경제 |
| 3.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 | 4. 시사점 |

1. 서론

- 2012년 세계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유로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도 상대적으로 성장이 저조하였으며, 개도국은 특히 중국 경기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 2013년 세계 경기는 유로권 위기의 점진적 완화, 주요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대응 강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등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 2012.12.)
- 특히 IMF는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2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3.6%로 전망하였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2.11.)

* 연구위원(글로벌수산연구실장), ** 전문연구원

- 2012년 국내 경기도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GDP 성장률이 뚜렷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 이는 유로권 위기의 영향으로 대EU 및 대중국 수출이 크게 침체된 점, 투자 부진 및 소득 증가세의 둔화, 가계부채 부담으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 201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의 완화로 수출이 회복되고, 유가 안정 등 교역조건 개선,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경제기관들의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3.0%, 산업연구원 3.1%, 한국은행 3.2%, LG경제연구원 3.4%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 이러한 대내외 경제 전망에 따라 수산부문에서도 외생적 거시변수의 충격(shock)으로 인한 생산, 수출입, 물가(가격) 변동 등 수산부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2013년은 새정부 출범 및 해양수산부 조직의 부활 예상, 한·중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대한 논의 본격화 등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안들이 많은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산업 전망을 토대로 수산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망모형은 KMI에서 2004년 개발하여 운용중인 ‘수산부문 총량모형(KMI-FSM04)’으로서,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의 충격이 어업 생산, 수출입, 어업부가가치 및 어가소득 등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 수산부문 총량모형¹⁾은 수산업 총량지표 모형, 어가경제 모형, 어류 수급모

1) 상기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은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KMI, 홍현표 외, 2004)의 연구보고서 참조 바람.

형, 패류 수급모형, 해조류 수급모형 등과 같이 5개의 하위모형이 일련의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본 모형에서 구축된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매년 수집되는 연간 자료를 토대로 각 방정식의 모수(parameters)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다음 년도의 전망치 산출에 활용하였다.

2) 가정

- 본 장에서는 수산부문 총량모형을 이용하여 단기(2013년) 및 중기(2017년) 전망을 수행하였다. 전망을 위해 본 모형에서는 외생적인 거시변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는 2011년 106달러에서 2012년 109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국내외 주요 유가예측 기관에서는 낮은 세계경제 성장세, 세계 원유공급 증가 등의 약세 요인과 미 달러화의 약세,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2013년 국제유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은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환율)전망을 참조하여 2012년 1,127원에서 2013년 1,060원으로 전년 대비 5.9%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중기(2017년)적으로는 1,000원 수준을 가정하였다.

〈표 2-1〉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가정

단위 : 달러, 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원유가격 (달러/배럴)	106	109.1	110	110	0.8	0.2
원달러환율	1,103	1,127	1,060	1,000	-5.9	-2.4

- 한편, 수산부문 어가들의 자금조달 금리에 해당되는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과 수산정책 금리는 2012년에 각각 3.8%, 3.0%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3.5%, 3.0% 수준에서 각각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자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량모형의 시계열 변수는 총 192개이며, 분석자료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료의 수집기간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970년~2011년의 시계열 자료가 이용되었다.
 - 단, 생산실적은 2013년 1월 현재 2012년 10월까지, 수출입실적은 2012년 11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11월, 12월, 수출입의 12월 실적은 최근 3년(2009~2011년)의 해당 월 평균치를 적용, 합산함으로써 모형의 예측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자료 : 총산출, GDP(부가가치), 디플레이터(환가지수, deflator), 환율 및 금리 등은 한국은행의 DB를 이용하였다.
 - 어업생산자료 : 생산은 어류, 패류 등(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포함), 해조류로 구분하였으며, 어업은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으로 구분하였다.
 - 소비·물가지수자료 : 어류, 패류 등, 해조류의 연간 소비량, 품목별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를 집계하였다.
 - 수출입자료 : 수산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이용, 어류, 패류, 해조류의 수출입(물량, 금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 어가경제자료 :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가부채, 어가자산 등에 대한 세부 항목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인구·가구자료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인구추계, 어업조사 등을 통해 어가수, 어가인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기타자료 : 기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하위모형 및 개별함수의 추정에 필요한 변수를 고려하여 약 3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2-2〉 수산부문 총량모형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

구분	자료수	주요 시계열 변수
거시경제 자료	29	명목 및 실질 총산출, 명목 및 실질 총생산 디플레이터(deflator), 환율, 1인당 GNI 등
어업생산 자료	62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주요 업종별 어선세력(척수, 톤수, 마력수) 등
소비·물가지수 자료	19	수산물 소비량,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수출입 자료	16	수산물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어가경제 자료	24	어가소득, 어업조수입 및 어업경영비 세부 항목 등
인구·가구자료	12	어업인구 및 어업가구 등
기타 자료	30	유류공급량, 출어일수, 류별 재고비율 및 감모비율 등

자료 :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홍현표 외, 2004, p.48

4) 모형의 유효성

- 총량모형을 토대로 실시된 역사적 모의실험(historical simulation)²⁾ 결과,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자수, 어가소득, 어획노력량 등의 변수에 대한 RMSPE(Root Mean Squared Simulation Percentage Error)는 10% 이내에 포함되어 전망모형의 예측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류별 생산량, 가격지수 등에 대한 RMSPE는 10%를 넘어서서 종속 변수에 따라서 다소 구조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수산부문 중단기 전망

- 수산부문의 중단기 전망은 어업생산, 수산물 물가지수, 수산물 수출입, 수산물 소비, 수산부문 부가가치, 어가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 어업생산 및 수산물 수출입은 2012년 잠정 집계치를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생적 총량변수들은 2012년도 예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2013년(단기) 및 2017년(중기)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2) 시뮬레이션(simulation) 값과 실제 관측된 값과의 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로서, 해당변수의 추정값과 실제값 간의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1) 어업생산

(1) 어업 투입요소의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전체가 연간 출어한 조업일수는 누적 개념으로 2011년 980만 일, 2012년에는 972만 일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968만일로 투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어획노력량 추이와 전망

단위 : 백만일, 일,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어획노력량(백만일) ¹⁾	9.80	9.72	9.68	9.89	-0.4	0.3
척당 평균 조업일수(일) ²⁾	198	194	191	189	-1.1	-0.4

주 : 1) 어선척수×출어당 조업일수×출어횟수로 산출(즉 국내 모든 연근해어선의 연중 총누적 조업일수를 의미)

2) 어선 1척의 연중 총조업일수(출어당 조업일수×연평균 출어횟수)

(2) 양식어업 면허면적 추이와 전망

- 2011년 이후 양식어업 생산을 위한 어류 및 패류 어장의 면허면적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도 어류 및 패류 양식어장의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1.0%, 1.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해조류 어장의 면허면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양식어업 면허면적 추이와 전망

단위 : ha,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양식면허 면적	어류	4,871	5,478	6,079	8,405	11.0	8.9
	패류	62,119	63,294	64,469	69,146	1.9	1.8
	해조류	72,821	71,582	69,850	64,073	-2.4	-2.2

자료 : 2011년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를 참조

(3) 주요 투입재 가격 추이와 전망

- 2012년의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94,73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류 소모가 많은 업종의 출어 포기 등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 2008년 고유가 사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실제로 고유가 사태로 파장이 매우 컸던 2008년의 면세유 가격이 드럼당 170,213원임을 감안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면세유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3년 국제유가 전망을 고려하여 총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약 18만 5천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주요 투입재가격의 추이와 전망

단위 : 원/드럼,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면세유(원/드럼) ¹⁾	183,128	194,733	185,210	175,344	-4.9	-2.1
회사채수익률(3년)	4.1	3.8	3.5	3.2	-7.9	-3.4
수산정책금리	3.0	3.0	3.0	3.0	0.0	0.0
어선원임금(실질) ²⁾	29,119	29,426	29,788	31,170	1.2	1.2

주 : 1) 어업인 공급가격 기준임.

2) 근해어업 어선원 연평균 실질임금 수준.

- 민간 자금조달 비용에 해당되는 회사채금리(3년만기, 장외, AA-등급)는 2009년 5.8%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3년 3.5% 수준으로 전망된다.
- 수산부문 인건비 지표인 어선원 임금은 2013년 전년과 비슷한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중기(2017년)적으로는 3,117만 원 정도로 전망된다.

(4) 수산물 종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 2012년 해면어업의 생산성, 즉 단위 어선 톤당 생산성(1일 어획량)은 전년 대비 어류가 5.1%, 패류 등이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3년에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생산성이 각각 89.2톤, 40.8톤으로 전년 대비 어류는 1.4% 감소, 패류는 2.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2017년)적으로도 어류의 생산성은 소폭 감소, 패류 등의 생산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2012년 양식어업의 단위면적(ha)당 생산성을 살펴보면, 어류는 생산성이 향상된 반면, 해조류는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 2013년 어류의 ha당 생산성은 15.8톤으로 전년 대비 3.9% 높아질 것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연평균 7.8%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 패류 등의 생산성은 중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조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6%의 생산성 증가세가 예상된다.

〈표 2-6〉 어업별 · 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단위 : 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해면어업 ¹⁾ (1일 톤당)	어류	86.0	90.4	89.2	86.9	-1.4	-0.8
	패류 등	38.6	39.8	40.8	41.5	2.5	0.9
양식어업 ²⁾ (ha 당)	어류	14.9	15.2	15.8	22.2	3.9	7.8
	패류 등	6.6	6.6	6.8	6.9	2.3	0.9
	해조류	13.6	13.5	13.7	15.4	1.7	2.6

주 : 1) 일반해면어업 생산성 = 연근해어업 총어획량(1일) ÷ 어선 총톤수.

2) 양식어업 생산성 = 양식 총생산량 ÷ 총양식 면적.

(5) 업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은 2012년 약 332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중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약 128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8.6%, 양식어업이 147만 톤(44.3%), 원양어업이 54만 톤(16.2%), 내수면어업이 2만

9천 톤(0.9%)으로 추정된다.

- 한편, 2013년의 총어업생산량은 2012년 대비 1.7% 증가한 약 33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중 일반해면어업은 어류 어황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12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식어업은 어류, 패류 등, 해조류 모두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어류는 2.3%, 패류 등 1.2%, 해조류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류의 경우 중기(2017년)적으로 생산 증가가 다른 종류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이후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 추세이며,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뒤따를 경우 201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약 57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약 66만 톤까지 생산 증가가 전망된다.

〈표 2-7〉 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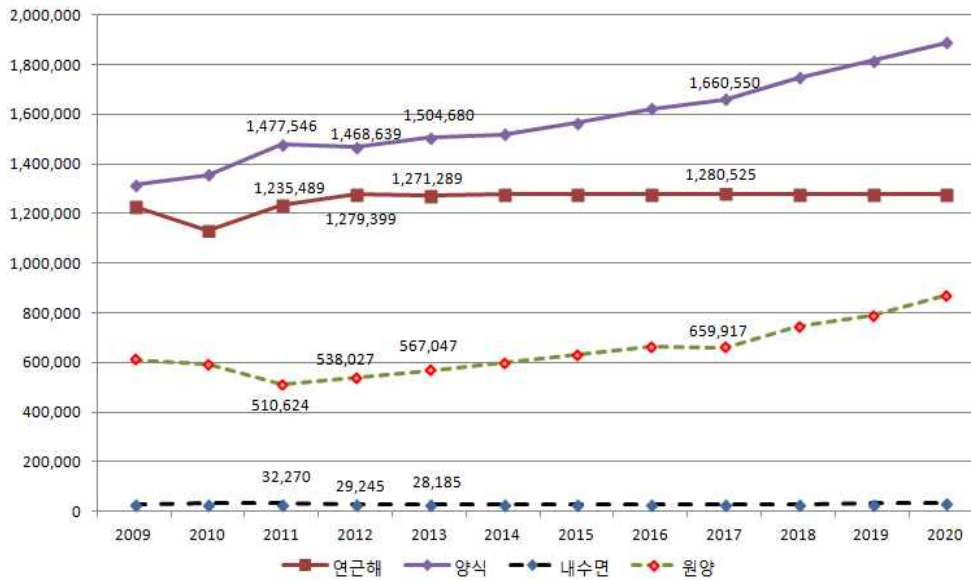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일반 해면	어류	842,603	878,938	863,481	858,826	-1.8	-0.5
	패류 등	378,099	386,663	394,723	410,374	2.1	1.2
	해조류	14,787	13,799	13,084	11,325	-5.2	-3.9
	소계	1,235,489	1,279,399	1,271,289	1,280,525	-0.6	0.0
양식	어류	72,449	83,342	85,219	135,887	2.3	10.3
	패류 등	412,814	417,441	422,303	443,410	1.2	1.2
	해조류	992,283	967,856	997,158	1,081,253	3.0	2.2
	소계	1,477,546	1,468,639	1,504,680	1,660,550	2.5	2.5
원양	어류	413,985	428,004	442,117	491,021	3.3	2.8
	갑각류, 연체동물	96,639	110,022	124,930	168,896	13.5	9.0
	소계	510,624	538,027	567,047	659,917	5.4	4.2
내수면어업		32,270	29,245	28,185	29,209	-3.6	0.0
합계		3,255,929	3,315,309	3,371,200	3,630,202	1.7	1.8

주 : 2012년 자료는 2012년 1월~10월의 어업생산통계에 최근 3년(2009~2011년) 11월 및 12월의 평균 생산량을 합산한 잠정치임. 패류 등에는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그림 2-1〉 어업생산량 추이와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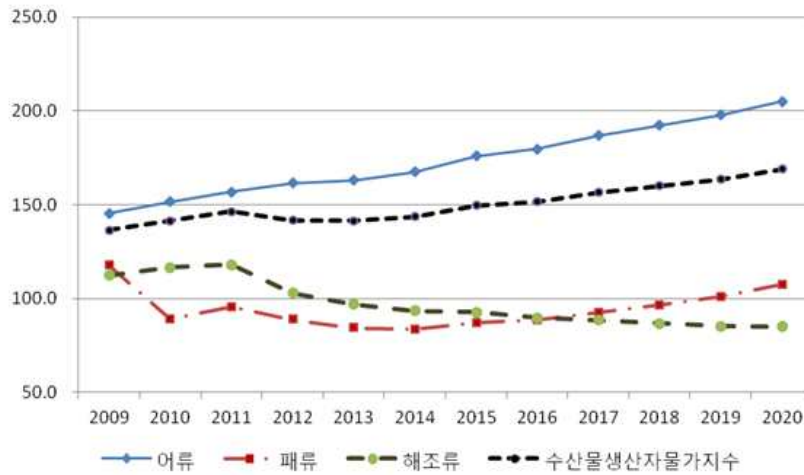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DB를 활용, 총량모형을 통해 전망치 도출

2) 수산물 물가지수

- 우리나라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어류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패류는 하락세, 해조류는 안정세를 유지하다 2012년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어류 생산자물가지수는 145.4에서 2010년 151.7, 2011년 156.9, 2012년 161.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0.9%가 상승한 163.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 생산자물가지수는 2009년 117.7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11년 95.4로 다소 반등한 후 2012년 88.9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0%가 하락한 84.4, 그리고 2017년에는 92.8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조류 생산자물가지수는 2009년~2011년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생산 호조로 전년 대비 5.7% 하락한 102.8을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97.0, 2017년에는 88.6으로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세

가 예상된다.

〈그림 2-2〉 수산물생산자물가지수 중장기 전망



〈표 2-8〉 수산물 종류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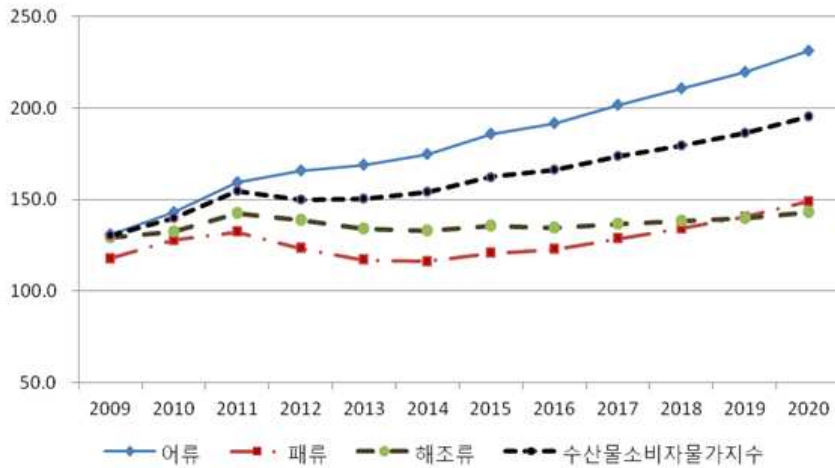
단위 : 2005년=100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어류	156.9	161.7	163.1	186.8	0.9	2.9
패류	95.4	88.9	84.4	92.8	-5.0	0.9
해조류	118.0	102.8	97.0	88.6	-5.7	-2.9
수산물생산자물가지수	146.4	141.7	141.3	156.5	-0.3	2.0

자료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조사(2005년=100).

- 한편, 2012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및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수산물 내수시장의 둔화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소 약세를 보였다.
- 다만, 어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159.4에서 2012년 165.8로 상승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 소비자물가지수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조류 지수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 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 중장기 전망



〈표 2-9〉 수산물 종류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단위 : 2005년=100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어류	159.4	165.8	168.8	201.7	1.8	4.0
패류	132.3	123.3	117.1	128.6	-5.0	0.9
해조류	142.2	138.8	134.1	136.7	-3.4	-0.3
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	154.7	149.9	150.5	173.3	0.4	2.9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2005년=100).

3) 수산물 수출입

- 2012년 수산물 수출량은 약 75만 톤으로 잠정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한 것이다. 해조류의 수출이 전년 대비 14.9%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출도 전년 대비 각각 8.2%, 13.0%가 증가하였다.
- 2012년 수산물 수입은 약 472만 톤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수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천일염과 식염을 제외한 수산물 수입량은 약 134만 톤으로 2011년 대비 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수산물 종류별 수출입 추이¹⁾ 및 전망

단위 : 천 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수출량	어류	350	379	357	282	-5.9	-5.7
	패류 등	227	257	267	291	4.0	2.5
	해조류	102	117	117	124	-0.4	1.2
	소계	680	753	740	697	-1.6	-1.5
수입량	어류	881	823	858	950	4.3	2.9
	패류 등	571	506	500	510	-1.2	0.2
	해조류	13	11	12	12	1.4	1.0
	소계	1,465	1,340	1,369	1471	2.2	1.9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현재 공표된 1월~11월 실적 합계에 최근 3년(2009~2011년) 12월 실적 평균을 합산한 잠정치임. 천일염과 식염을 제외한 수출입량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 수출입 통계.

- 한편, 2013년 들어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약 7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품목 육성 등 수산물 수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산물 수출 감소 전망은 수산물 수출단가의 변동(상승)에 비해 국내 수산물 판매가격(물가) 상승폭이 더 커서 수출용이 내수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 종류별로는 어류 수출량이 전년 대비 5.9% 감소, 패류 등 4.0% 증가, 해조류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137만 톤(천일염·식염 제외), 그리고 2017년에는 약 14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가 전년 대비 4.3% 증가, 패류 등 1.2% 감소, 해조류 1.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수산물 소비

- 2012년의 수산물 1인당 총소비량은 당해 연도 어업 총생산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증가한 53.7kg으로 추정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 및 패류의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해조류는 소폭 감소하였다.

- 2013년에도 어류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져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4.5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 및 패류가 각각 3.9%, 0.4% 증가하고, 해조류는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1〉 수산물 종류별 소비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kg, %

구 분		2008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어류	24.0	21.7	23.5	24.4	27.7	3.9	3.3
	패류	15.1	13.3	13.9	13.9	15.3	0.4	2.0
	해조류	15.8	16.7	16.4	16.1	17.4	-1.4	1.2
	계	54.9	51.7	53.7	54.5	60.4	1.4	2.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8년 값을 기준으로 추정치 작성)

5) 수산업 부가가치

- 수산업(어업 기준, 가공 제외) 부가가치는 2012년 약 3조 3,430억 원(명목)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가가치(=총산출 - 중간투입)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노동력, 기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투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어업 총산출액은 2012년 8조 3,198억 원(명목)에서 2013년 8조 5,278억 원(명목)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어업 생산량이 2012년 대비 2013년에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른 어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산출)은 2011년 41.0%에서 2012년 40.2%, 2013년 38.3%로 전망되어 어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수산업 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원, 원/kg,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어업부가가치(명목)	3,319,312	3,343,039	3,265,793	3,955,621	-2.3	3.4
어업부가가치(실질) ¹⁾	2,527,164	2,498,963	2,427,100	2,501,989	-2.9	0.0
어업총산출액(명목)	8,091,234	8,319,839	8,527,787	9,884,739	2.5	3.5
어업생산자가격 (명목, 원/Kg)	2,485	2,510	2,545	2,677	1.4	1.3
어업 부가가치율(%)	41.0	40.2	38.3	40.0	-4.7	-0.1

주 : 1) 2005년 기준 수산물 디플레이터로 산출한 실질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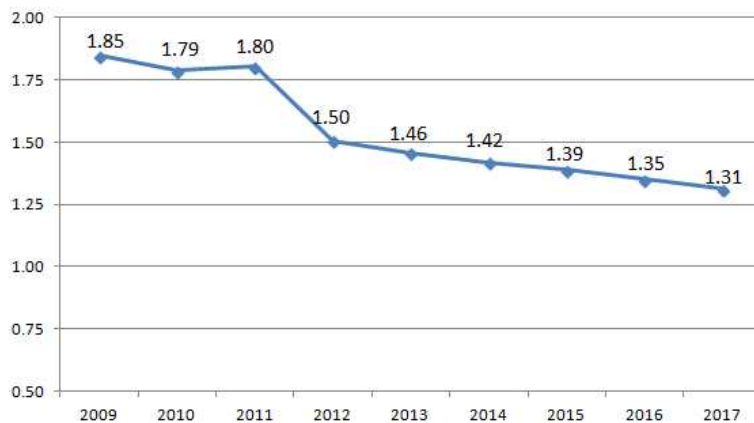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6) 어가경제

(1) 어업 경영수지

- 어가의 경영수지를 나타내는 어업 경영수지(=어업수입÷어업경영비)는 2009년 1.85에서 2011년 1.8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 그러나 2012년 어가 경영수지는 1.5, 2013년에는 1.46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기적으로도 2017년 1.31로 하락세가 전망된다.

〈그림 2-4〉 어가 경영수지 비율 추이와 전망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이와 같이 어업경영수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어업경영의 재산성 악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FTA 추진 등 수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이 가속화되면서 어업수익률이 고수익률에서 저수익률로, 즉 초과이익이 점차 감소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향후 어업경영수지는 계속 감소하기 보다는 1.2~1.3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어가수

- 통계청의 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어가수는 2011년 기준 63,251가구이며, 이중 어로어가 45,436가구, 양식어가 17,815가구이다.
 - 2012년의 총어가수는 63,141가구, 2013년에는 63,068가구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어로어가는 44,956가구, 양식어가는 18,112가구로 전년 대비 어로어가는 0.5% 감소, 양식어가는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 어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가구,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총어가	63,251	63,141	63,068	63,028	-0.1	0.0
어로어가	45,436	45,183	44,956	44,053	-0.5	-0.5
양식어가	17,815	17,958	18,112	18,975	0.9	1.1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어업부문).

(3) 어가소득

- 2012년의 어가소득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4,022만 원 수준으로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05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의 어가소득이 증가한 것은 주로 양식분야 소득과 더불어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전체 어가소득의 약 50%를 차지하는 어업소득은 2013년 2,0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양식분야 소득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외소득(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포함)은 중기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표 2-14〉 어가소득 추이와 전망

단위 : 천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7	증감률(연간)	
						'12/'13	'12~'17
명목	어가소득	38,623	40,216	40,500	45,000	0.7	2.3
	어업소득	20,432	20,043	20,353	23,240	1.5	3.0
	- 양식 분야	8,406	8,521	8,757	10,277	2.8	3.8
	- 어로 분야	10,929	10,734	10,802	12,086	0.6	2.4
	- 기타어업 분야	1,097	788	794	878	0.7	2.2
	어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18,191	20,174	20,148	21,760	-0.1	1.5

주 :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4.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발한 수산 총량모형(KMI-FSM04)을 토대로 수산부문의 단기(2013년) 및 중기(2017년) 전망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수행하였다.
- 주요 외생변수로서 국제유가 및 환율이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변수에 대한 전망은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자료를 참조하였다.
- 단기(2013년)를 중심으로 주요 전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3년 우리나라의 총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337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3년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어류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패류 및 해조류

- 의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류지수의 상승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약 74만 톤, 수입은 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약 137만 톤(천일염, 식염 제외)으로 전망된다.
 - 2013년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53.7kg, 어업 부가 가치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3조 2,658억 원으로 전망된다.
 - 이외에 어가 경영수지는 2012년 이후 크게 악화되어 2017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어가수는 63,068가구, 어가소득(명목)은 4,022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산부문 총량모형을 통해 중단기 전망을 수행한 결과, 특히 수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전망결과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수산물 수출은 이러한 정책지원의 문제와 별개로 수출기업들의 판매처별(수출용, 내수 판매용) 가격조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향후 수산물 수출단가보다 내수용 판매단가의 상승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수산물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용 수산물의 가격(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수출로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국내 수산물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확대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전략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01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해양수산 관련 부처의 신설이 예상되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논의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급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수산물 수출을 통해 수산업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임을 명심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 산업연구원, “2013년 거시경제전망”, 2012.12.
-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국제유가의 향방”, SERI 경제포커스, 2012.10.
- 수협중앙회, 수협 수산통계, 각 연도.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생산자물가조사 및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12 하반기)』, 2012.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각 연도.
- 한국은행, “2012~2013년 경제전망”, 2012.10.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 분기.
- 홍현표 외,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홍현표 외,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모형의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Hertel, T. W.,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December 12-14, 1991, New Orleans, Louisiana, 1991.
- Intriligator, M. D., Econometric Models, Techniques, & Applications, 1978.
- Maddala, G. 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John Wiley & Son, 2001.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이승우* · 윤상호** · 한광석***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1년 어업조사 결과 |
| 2. 어가경제 동향 | 4. 귀어 · 귀촌 동향 |
| 1) 어가소득 | 5. 2013년 전망과 이슈 |
| 2) 어가지출 | 1) 전망 |
| 3) 어가부채 | 2) 이슈 |
| 4) 연령별 · 어업형태별 동향 | |

1. 서론

- 수산정책은 바다를 수산물의 생산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정책은 수산자원의 생산을 통하여 어장 나아가 바다의 부가가치 창출을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주체인 어가의 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의 자원과 공간은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다. 연안의 자원과 공간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안은 국가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수산정책의 대상 공간인 어촌, 어항, 어장의 효율적 활용은 어촌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토대이다. 따라서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생산공간

* 연구위원(수산정책연구실장),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인 어장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시설인 어항을 연안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공간으로서 안착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가의 구성원인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으로 청장년층이 어촌을 떠나면서 어촌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어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어촌의 인적자원 유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업 특성과 법·제도적 여건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 정책이 도시민에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어·귀촌인이 1차 산업인 어업은 물론이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귀어·귀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본 장에서 어촌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어가경제의 변화를 통계청의 어업조사와 어가경제조사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귀어·귀촌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어촌의 노령화, 경영의 규모화, 소득원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어가경제에 대한 2013년의 전망과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어가경제 동향

1) 어가소득

- 2011년 어가소득은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세부내역별로는 어업소득이 23.0%, 이전소득이 3.7% 증가하였으나, 어업외 소득이 4.6%, 비경상소득은 11.7% 감소하였다.
 - 어가소득에서 어업외 소득과 비경상소득이 감소한 반면, 어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업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다.
 - 어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에 어업경영비는 20.7% 늘어난 반면 어업총수입은 21.7%로 더 많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 2010년과 비교하면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6%p 높아진 반면, 어업외소득은 29.5%로 3.5%p 낮아져서 어업소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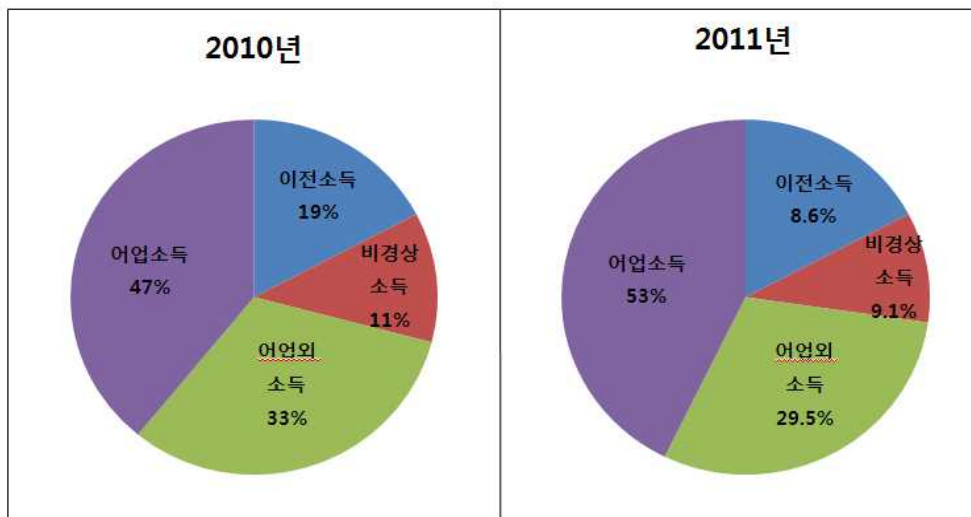
〈표 3-1〉 어가소득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11/’10)
어가소득(A=B+C)	28,028	30,668	33,945	35,696	38,623	8.2
경상소득(B)	23,594	25,868	30,213	31,729	35,119	10.7
어업소득(D)	11,950	11,975	16,220	16,607	20,432	23.0
(어업총수입)	(26,576)	(26,535)	(35,350)	(37,682)	(45,875)	(21.7)
(어업경영비)	(14,626)	(14,560)	(19,129)	(21,076)	(25,444)	(20.7)
어업외소득	9,399	10,981	11,136	11,931	11,378	-4.6
이전소득	2,245	2,913	2,857	3,191	3,309	3.7
비경상소득(C)	4,434	4,799	3,732	3,968	3,504	-11.7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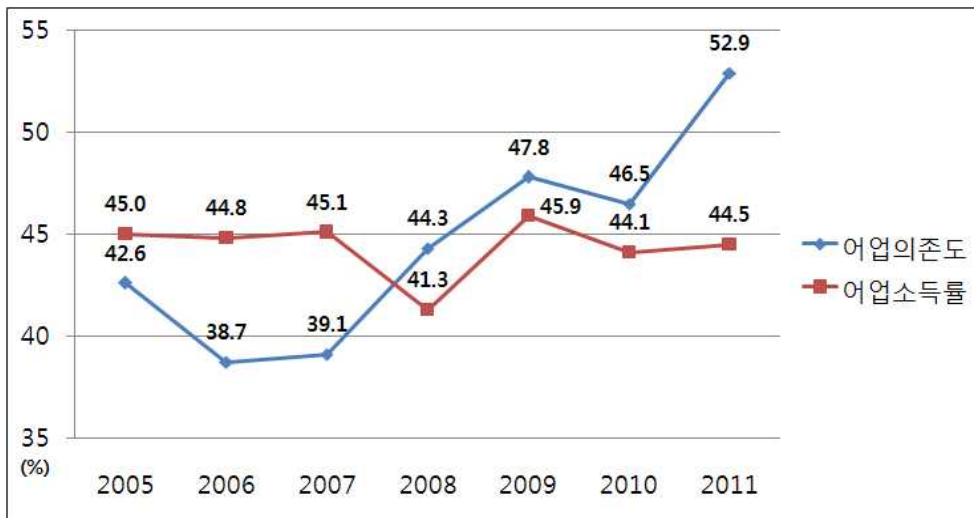
〈그림 3-1〉 어가소득 세부내역의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가의 어업경영 성과가 향상된 것은 어업소득률(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에서도 확인되는데 2009년 45.9%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44.1%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에는 44.5%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어업의존도(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는 2007~2009년에 상승하였다가 2010년에 역시 소폭 하락하여 46.5%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52.9%로 다시 상승하였다.
- 2011년 전국 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은 75.8%로 2008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어가경제 여건이 근로자가구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정도는 둔화되었다. 이는 어업외소득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2012년의 어가소득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055만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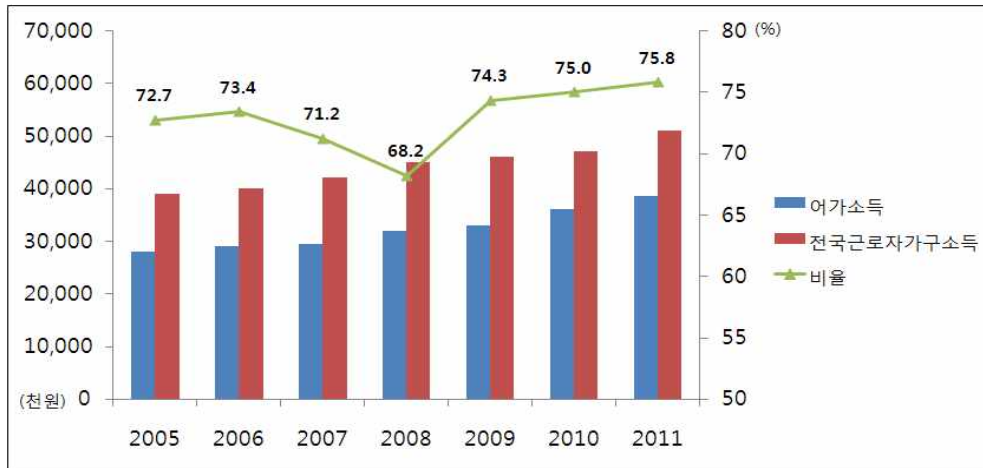
〈그림 3-2〉 어업소득률·어업의존도 추이



주 : 어업소득률=어업소득÷어업총수입×100(%); 어업의존도=어업소득÷어가소득×100(%)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그림 3-3〉 어가소득 · 전국가구소득의 비교



주 : 전국 근로자가구는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어가지출

- 2011년 어가지출은 2,9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이는 어가소득 증가율(8.2%)보다 낮은 수준이다.
- 어가지출이 어가소득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어가경제잉여는 24.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어가의 저축률이라 할 수 있는 어가경제잉여율은 2011년 27.0%로 전년 대비 2.9%p 높아졌다.

〈표 3-2〉 어가지출 및 어가경제잉여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11/'10)
가계지출(A+B)	22,896	22,963	27,065	28,700	29,906	4.2
소비지출(A)	17,682	18,263	20,656	21,982	23,524	7.0
비소비지출(B)	5,214	4,700	6,409	6,719	6,382	-5.0
처분가능소득(C)	22,815	25,968	27,537	28,978	32,241	11.3
어가경제잉여(D=C-A)	5,133	7,704	6,881	6,996	8,717	24.6
어가경제잉여율(D/C)	22.5	29.7	25.0	24.1	27.0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어가부채

- 2011년 어가부채는 3,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1.9%이나 어업용 이외 부채는 11.0%나 증가하여 소비성 부채가 2010년 작년 대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부채가 늘어났지만 2011년 어가의 단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22로 향상되어 어가의 부채상환능력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어가부채 동향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11/'10)
어가부채(A)	34,531	34,407	35,864	35,640	37,862	6.2
어업용 부채 (구성비)	18,560 (53.7)	16,690 (48.5)	19,038 (53.1)	18,277 (51.3)	18,631 (49.2)	1.9
어업용 이외 부채 (구성비)	15,971 (46.3)	17,717 (51.5)	16,826 (46.9)	17,363 (48.7)	19,231 (50.8)	10.8
당좌자산(B)	47,608	64,341	63,648	73,560	83,867	14.0
단기상환능력 (B/A)	1.38	1.87	1.77	2.06	2.22	

주 : 연말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4) 연령별·어업형태별 동향

- 2011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은 40대 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많고, 30대, 50대, 60대, 70대 등의 순으로 연령대에 반비례하였다.
- 소득 증가율도 6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 가계지출도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순이다.
- 30대의 가계지출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나머지 세대는 소폭 늘어나는 정도이다.

- 자산은 30대 이하, 60대,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많았으나, 50대와 60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40대와 70대도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채는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순으로 연령대에 반비례하였다.
- 그러나 30대 이하의 경우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 경영주 연령별 어가경제 현황(2011년)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어가소득	38,623 (8.2)	51,881 (-9.1)	55,783 (14.2)	45,542 (6.1)	35,804 (17.0)	21,724 (-2.0)
가계지출	29,906 (4.2)	37,482 (11.7)	38,715 (4.0)	36,360 (6.8)	27,505 (4.9)	18,053 (1.1)
자 산	287,650 (11.1)	387,891 (29.1)	258,548 (9.7)	297,622 (14.5)	298,972 (6.5)	259,266 (14.3)
부 채	37,862 (6.2)	59,054 (-6.1)	53,405 (7.3)	51,717 (10.3)	33,684 (10.8)	12,146 (-14.4)
부채/자산	0.13	0.15	0.21	0.17	0.11	0.05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011년 어업형태별 어가소득은 어선사용 어로어가 3,760만원이며 양식어가는 어로어가보다 평균 15% 이상 많은 4,346만원이었다.
- 어가소득 증가율은 양식어가 16.1%, 어선비사용 어로어가 12.6%, 어선사용 어로어가 -0.3%로 증가율은 양식어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가계지출 현황은 어선사용 어로어가 3,135만원, 양식어가 3,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어선비사용 어로어가는 2,400만원이었다.
- 가계지출 증가율은 양식어가 1.8%로 어로어가보다 낮아 전체 지출을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자산은 어선비사용 어로어가, 양식어가, 어선사용 어로어의 순으로 많았으며 어선비사용 어로어의 자산 증가율이 29.0%로 어선사용 어로어가와 양식어가보다 달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부채는 양식어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4.7%로 높았다. 이와 달리 어선사용

어로어가의 부채는 0.7% 감소하였다.

- 자산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양식어가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17.5%이며, 어선비사용 어로어가는 평균보다 낮은 5.9%를 나타내고 있다.

〈표 3-5〉 어업형태별 어가경제 현황(2011년)

단위 : 천원, %

구 분	전체평균	어 로 어 가			양식어가
		평 균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어가소득	38,623 (8.2)	36,411 (4.0)	33,089 (12.6)	37,591 (-0.3)	43,457 (16.1)
가계지출	29,906 (4.2)	29,420 (5.0)	24,000 (5.2)	31,344 (2.6)	30,969 (1.8)
자 산	287,650 (11.1)	284,636 (12.7)	343,682 (29.0)	263,676 (7.2)	294,240 (7.1)
부 채	37,862 (6.2)	31,620 (4.8)	20,375 (10.9)	35,612 (-0.7)	51,505 (4.7)
부채/자산	13.1	11.1	5.9	13.5	17.5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2011년 어업조사 결과¹⁶⁾

1) 어가 및 어가인구 지속적인 감소

- 2011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어가는 63,251가구로 2010년 65,775 가구에 비해 2,524가구가 감소하였다.
 - 이는 연평균 3.84% 감소한 것으로 2005~2010년 연평균 감소율 3.82% 와 유사한 수준이나 2000~2005년 0.45%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 된 것이다.
- 어가인구는 159,299명으로 2010년 171,191명보다 6.9%감소하여 어가 감소보

16) 어업조사는 통계청이 2011.12.1. 기준으로 전국의 어가(7,805가구)를 표본조사 한 것으로 농림 어업조사의 일부임.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하지 않는 년도에 조사하는 간이조사 임.

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여성은 80,829명, 남성은 78,470명으로 성비는 1:0.971로 2010년 1:0.999 보다도 감소되었다.
- 2011년 총 가구 중 어가 비중은 0.4%, 총 인구 중 어가인구비중은 0.3%로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어가 및 어가인구의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조업포기, 연안어장 매립·간척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⁷⁾

〈표 3-6〉 어가 및 어가인구 변화추이

(단위: 가구,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가율
어가		81,571	79,942	65,775	63,251	-3.8
어가 인구		251,349	221,132	171,191	159,299	-6.9
성별	남	126,775	110,658 (50.1)	85,590 (49.9)	78,470 (49.3)	-8.3
	여	124,574	110,474 (49.9)	85,601 (50.1)	80,829 (50.7)	-5.6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2) 어가인구 고령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 2011년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5.4%로 전년도에 비해 2.3%포인트가 증가되었다.
- 이는 2011년 전국 고령화율 11.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증가폭도 전체 고령화율이 0.3%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하여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반면에 농가의 고령화율 33.7%보다는 8.3%포인트 낮지만, 증가치는 2.3%포인트로 농가고령화 증가치 2.0% 포인트보다 0.3%포인트 높다.

17)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표 3-7〉 어가인구 고령화율(2010~2011)

(단위 : 천명, %, %p)

구분	2010(A)	2011(B)	증 감 (C=B-A)	증 감 륜 (C / A)
어 가 인 구	171.2	159.3	-11.9	-6.9
65세 이상	39.6	40.4	0.9	2.2
어가 고령화율	23.1	25.4	2.3	-
농가 고령화율	31.8	33.7	2.0	
전체 고령화율	11.0	11.4	0.3	-

주 : 고령화율 : (65세이상 인구÷총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 70세 이상 경영주가 있는 어가는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나, 40세 미만의 경영주가 있는 어가는 전년 대비 26.8% 감소하였다.
- 구성비는 5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어가가 2010년 18.8%에서 2011년 15.9%로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 경영주가 있는 어가는 2010년 71.2%에서 74.1%로 2.9%포인트 증가하였다.
- 어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0.4세로 매우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경영주 연령별 어가(2010~2011)

(단위 : 천가구, %)

연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계
2010	어가	2.5	9.9	20.9	20.6	11.9	65.8
	구성비	(3.8)	(15.0)	(31.7)	(31.3)	(18.1)	(100.0)
2011	어가	1.8	8.2	20.4	20.0	12.8	63.3
	구성비	(2.9)	(13.0)	(32.3)	(31.6)	(20.2)	(100.0)
증 감		-0.7	-1.7	-0.5	-0.6	0.9	-2.5
증감률		-26.8	-17.1	-2.2	-2.9	7.3	-3.8

자료 :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 전체적으로 어가인구가 남자는 8.2%, 여자는 5.6% 감소하였는데, 특히 40세 미만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자의 경우 30세 미만이 16.7%, 30세 ~ 39세가 21.3%, 40세 ~ 49세가 20.1% 각각 감소하였고, 여성은 30세~39세가 25.9%, 40~49%가 11.3% 감소하였다.
- 반면에 70세 이상은 남자가 10.0%, 여자가 1.4% 증가하였다.

〈표 3-9〉 경영주 연령별 어가인구(2010~2011)

단위 : 천명, %

구분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계
2010	남 자	어가인구	18.5	7.5	11.9	19.8	17.9	10.0	85.6
		구성비	(21.6)	(8.7)	(13.9)	(23.1)	(20.9)	(11.7)	(100.0)
	여 자	어가인구	16.2	5.4	12.4	20.8	16.7	14.0	85.6
		구성비	(19.0)	(6.3)	(14.5)	(24.3)	(19.6)	(16.3)	(100.0)
2011	남 자	어가인구	15.4	5.9	9.5	19.4	17.2	11.0	78.5
		구성비	(19.7)	(7.5)	(12.1)	(24.7)	(21.9)	(14.1)	(100.0)
	여 자	어가인구	13.9	4.0	11.0	21.3	16.5	14.2	80.8
		구성비	(17.1)	(5.0)	(13.6)	(26.3)	(20.4)	(17.5)	(100.0)
증감율	남자		-16.7	-21.3	-20.1	-2.0	-3.9	10.0	-8.2
	여자		-1.41	-25.9	-11.3	2.4	-1.2	1.4	-5.6

자료 :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3) 전업, 겸업 어가 전년대비 모두 감소

- 전업어가는 19,288가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며, 겸업어가는 43,963가구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다.
- 겸업어가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업어가의 비중은 30.5%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한편 1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지난해 37.1%에서 37.9%로 증가한데 비해, 제2종 겸업어가의 비중은 33.5%에서 31.6%로 감소하였다.

〈표 3-10〉 전 · 겸업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2005년	2010년	2011	증감율 (’10~’11)
총 계		79,942 (100)	65,775 (100)	63,251 (100)	-3.8
전 업		25,342 (31.7)	19,323 (29.4)	19,288 (30.5%)	-0.2
겸 업	소 계	54,600 (68.2)	46,452 (70.6)	43,963 (69.5%)	-5.4
	제1종 겸업	28,410 (35.5)	24,430 (37.1)	23,962 (37.9%)	-1.9
	제2종 겸업	26,190 (32.7)	22,022 (33.5)	20,002 (31.6)	-9.2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4) 어업경영형태, 양식어가 증가하고 어로어업은 감소

- 2011년 어선사용어업 어가는 전년 대비 5.2%, 어선비사용어업 어가는 전년 대비 7.3%로 크게 감소하였다.
- 반면 양식어업 경영 어가는 2010년 17,386 어가에서 2.5% 증가한 17,816 어가로 조사되었다.
- 2005년과 비교할 때 어선사용 어업 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선비사용어업어가는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세로, 양식어가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표 3-11〉 어업경영형태별 종사어가 변화추이

단위: 가구, %

어업 경영 형태	2005년	2010년	2011년	증감율
어선어업	39,218 (49.0)	29,062 (44.1)	27,533 (43.5)	-5.2
어선비사용어업	19,118 (23.9)	19,327 (29.3)	17,903 (28.3)	-7.3
양식어업	21,606 (27.0)	17,386 (26.4)	17,815 (28.2)	2.5
합 계	79,942 (100)	65,775 (100)	63,251 (100)	-3.8

주 : ()은 비중치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5) 2톤 미만 소형어선 보유어가 큰 폭으로 증가

- 2011년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37,873가구로 전년대비 4.0%가 증가하였다.
- 특히 2톤 미만어선보유 어가가 19,955어가로 전년대비 10.3%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이 50톤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424 어가이다.
- 반면에 10-2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698어가로 전년대비 16.9% 감소하였다.

〈표 3-12〉 어선톤수별 어선보유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톤 수	2005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가율
2톤 미만	23,576 (52.0)	18,086 (49.6)	19,955 (52.7)	10.3
2 - 5톤 미만	13,965 (30.8)	11,479 (31.5)	11,452 (30.2)	-0.2
5 - 10톤 미만	5,535 (12.2)	4,896 (13.4)	4,619 (12.2)	-5.7
10 - 20톤 미만	943 (2.0)	840 (2.3)	698 (1.8)	-16.9
20 - 50톤 미만	744 (1.6)	720 (1.9)	729 (1.9)	1.3
50톤 이상	503 (1.1)	401 (1.1)	424 (1.1)	5.7
계	45,266 (100)	36,422 (100)	37,873 (100)	4.0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6) 중대형 규모 양식장 어가 증가세

- 양식어장을 이용하는 어가는 22,793 가구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 특히 6.0~10.0ha 미만 양식 어가 수는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고, 10.0~20ha 미만 양식 어가수는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 반면에 20.0ha 이상은 753가구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를 세분화하면 20.0~25ha 미만 어가가 446 가구에서 229 가구로 감소하였을

뿐만 어장면적 25.0ha 이상은 364가구에서 524가구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3〉 양식어장 면적규모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면적 규모	2005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율
1ha 미만	14,388 (51.0)	10,506 (47.6)	10,612 (46.6)	1.0
1.0~3.0ha 미만	7,691 (27.2)	5,250 (23.8)	5,653 (24.8)	7.7
3.0~6.0ha 미만	3,220 (11.4)	2,810 (12.7)	2,801 (12.3)	-0.3
6.0~10.0ha 미만	1,444 (5.1)	1,249 (5.8)	1,411 (6.2)	12.9
10.0~20.0ha 미만	1,100 (3.9)	1,391 (6.3)	1,563 (6.9)	12.3
20.0ha 이상	341 (1.2)	810 (3.6)	753 (3.3)	-7.0
총 계	28,184	22,016	22,793	3.5

주 : ()은 비중치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7) 수산물 1억원 이상 판매 어가 10%에 육박

- 수산물 판매금액은 1,000만원 미만 어가가 41.5%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판매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00만원 미만 판매 어가의 비중은 2010년 49.7%에서 41.5%로 감소한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어가의 비중은 2010년 16.5%에서 19.2%로 증가하였다.
 - 특히 1억원 이상 판매한 어가는 2010년 5만5천여 가구로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6만 2천여가구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

단위 : 천가구, %

년도		120만원 미 만	120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 상	계
2010	어가수	5.1	27.6	15.8	6.4	5.3	5.5	65.8
	(비중)	(7.8)	(41.9)	(24.1)	(9.7)	(8.1)	(8.4)	(100)
2011	어가수	3.9	22.3	18.1	6.8	5.9	6.2	63.3
	(비중)	(6.2)	(35.3)	(28.6)	(10.7)	(9.3)	(9.9)	(100)
증 감		-1.2	-5.3	2.3	0.4	0.5	0.7	-2.5
증감률		-24.0	-19.0	14.3	6.6	10.2	13.1	-3.8

자료 :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8) 계통 수산물 판매비율 갈수록 감소

- 수협을 통한 수산물 계통 판매는 줄고, 비계통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계통판매어가는 2011년 22,373 가구로 전년대비 12.3%가 감소되었으나, 비계통어가는 40,514가구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하였다.
 - 비계통판매의 경우 수집상, 음식점, 가공공장, 양식장 등에 대한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도매시장, 소비자직접판매, 수산물소매장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수산물판매처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판 매 처		2005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가율
계통	수 협	34,061 (42.6)	25,914 (39.3)	22,737 (35.9)	-12.3
비 계 통	소계	45,881 (57.4)	39,861 (60.7)	40,514 (64.1)	1.6
	도매시장	4,722	2,885	1,581	-45.1
	수집상	21,158	15,765	19,583	24.2
	음식점	2,216	2,159	3,346	55.0
	가공공장	2,468	1,636	1,980	21.0
	양식장	396	407	1,045	156.7
	소비자직접판매	13,946	12,025	9,352	-22.2
	수산물소매상	-	3,599	2,599	-27.8
	기타	975	1,385	1,028	-25.8
총 계		79,942 (100)	65,775 (100)	63,251 (100)	-3.8

자료 : 1.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2.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9) 어업관련사업 경영어가 크게 감소

- 2011년 어업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어가는 21,335 어가로 2010년 27,141 어가보다 21.4%가 감소하였다.
- 수산물 직판장은 전년대비 41.24%, 수산물 가공업은 51.26%, 수산물 직거래는 16.76%가 감소하였다.
- 그러나 식당경영은 14.46%, 낚시안내업은 38.16%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6〉 어업관련 사업 경영 어가

단위: 가구, %

어업관련 사업별	2010	2011	증가율
어가	65,775	63,251	-3.84
어업관련사업경영어가	27,141	21,335	-21.39
수산물직판장	3,606	2,119	-41.24
수산물직거래	16,088	13,391	-16.76
식당경영	2,123	2,430	14.46
수산물가공업	7,226	3,522	-51.26
어촌관광사업	1,322	1,260	-4.69
낚시안내업	1,685	2,328	38.16
하지않았음	38,634	41,916	8.50

자료 : 통계청,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2012.4

4. 귀어·귀촌 동향

- 2010년부터 귀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에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새로운 활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하지만 귀어는 농업의 귀농과는 달리 인·허가(면허/허가어업), 어업기반(어선, 양식장 등) 없이는 어촌진입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인구를 어촌사회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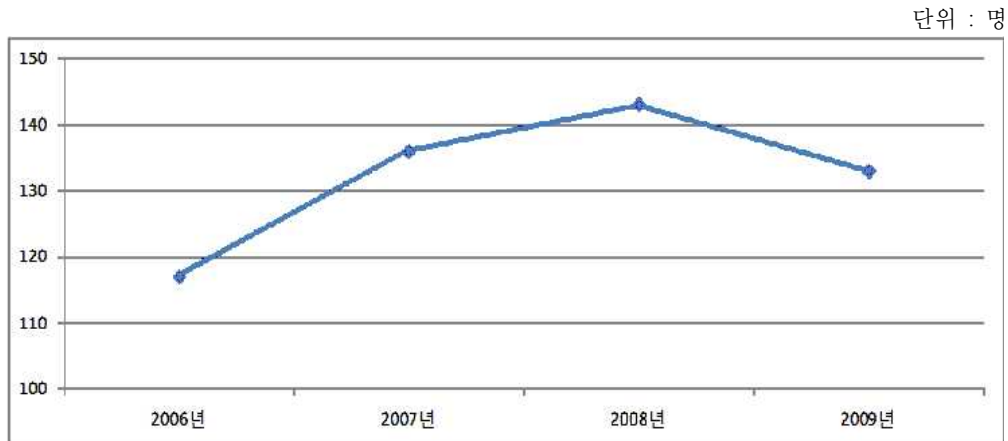
1) 최근 귀어·귀촌 동향

- 어촌의 귀어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383가구로 이는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귀어·귀촌이 나타났으며, 이후 2006년 117명

에서 2008년 143명에 달하였으며, 2009년에는 13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귀어 정책지원사업 대상자 이외에 이전의 귀어·귀촌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그림 3-4〉 귀어 인구 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주 : 2010년, 2011년의 귀어가수는 귀어 정책지원사업 대상자만 파악되어 제외하였음.

2) 양식과 어선어업 귀어·귀촌 많아

- 귀어·귀촌의 보다 세부적인 동향은 귀어 정책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해 살펴 보았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귀어가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어선어업으로 나타났다.
 - 2012년 귀어가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50.0%이며, 어선어업은 41.9%이며, 종묘생산과 가공업의 종사 비중은 각각 3.0%이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귀어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2010년 비중은 25.9%, 2011년은 34.5%, 그리고 2012년은 41.9%에 이른다.

〈표 3-17〉 업종별 귀어 동향

단위 : 가구, %

구 분	양식어업	어선어업	종묘생산	가공	어촌비즈니스 (펜션포함)	계
2010년 (비율)	32 (59.3)	14 (25.9)	4 (7.4)	2 (3.7)	2 (3.7)	54 (100.0)
2011년 (비율)	18 (62.1)	10 (34.5)	1 (3.4)	-	-	29 (100.0)
2012년 (비율)	31 (50.0)	26 (41.9)	2 (3.0)	2 (3.1)	1 (2.0)	62 (100.0)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3) 전남지역 귀어·귀촌 많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의 경우 귀어가 비중은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충남의 귀어가가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 2012년의 경우에 전남은 전체 귀어가의 59.70%를 차지하며, 충남의 귀어가 비중은 21.0%, 그리고 경남의 귀어가 비중은 12.9%를 차지하고 있다.
- 전남의 귀어가는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충남은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지역별 귀어 동향

단위 : 가구, %

구 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10년 (비율)	2 (3.7)	4 (7.4)	2 (3.7)	9 (16.7)	29 (51.9)	-	8 (16.7)	54 (100.0)
2011년 (비율)	1 (3.4)	1 (3.4)	3 (10.3)	-	22 (75.9)	-	2 (6.9)	29 (100.0)
2012년 (비율)			13 (21.0)		37 (59.7)	4 (6.4)	8 (12.9)	62 (100.0)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5. 2013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 2013년 총 어가 수는 2012년 대비 소폭 감소한 63,068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어가인구는 약 151,39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65세 이상 어업경영주 고령화율이 어가인구 고령화율보다 높아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50세 미만 인구의 감소율이 50세 이상 인구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어가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2013년 어가소득은 2012년보다 1.8% 감소한 39,487천원으로 전망된다.
 -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전망된다.
 - 어로어가의 소득은 양식어가의 소득의 84% 수준이다.
-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감소하고,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수는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업의 경영 규모화는 계속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식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10~20톤의 어선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어선 규모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 귀어·귀촌 인구는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되지 않고, 귀어 정책금융을 받은 귀어인만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붐머의 귀촌이 증가하고, 은퇴 후 귀향 선호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귀어·귀촌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슈

- 어업인구와 어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 비율이 도시보다 2배 이상으로 어업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의 생력화 정책과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를 포함한 어업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 특히 연령대별 어가소득의 크기는 40대, 30대, 50대, 60대 순이다. 그리고 어선

어업보다 양식어업의 경영주의 소득이 높으며, 양식어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 결정에 연령, 자기자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현행 통계자료는 생계형 어업과 기업형 어업을 영위하는 어가경제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 수립의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어가와 기업형 경영체로 분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수산정책과 경제적 차원에서 수산정책을 분리하여 수립할 때 수산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경영규모가 변화하고 있다. 자율적인 어업경영의 규모화는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산정책도 어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귀어·귀촌인의 증가현상은 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비율 증가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업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업총조사, 각 연도별.



제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 ▶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 ▶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 ▶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 ▶ 제7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김대영* · 이정삼** · 이정미***

목 차

- | | |
|-------------------|--------------------|
| 1. 서론 |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 가격 |
| 2. 2012년 연근해어업 동향 |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
| 1) 어업 자원 | 3. 2013년 전망과 이슈 |
| 2) 어선 | 1) 전망 |
| 3) 어업 생산 | 2) 이슈 및 대책 |

1. 서론

- 2012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 생산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어종 중 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는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을 보였으나 오징어, 꽃게, 삼치류는 평년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냈으며 붉은대게와 청어는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1년에 대형선망을 중심으로 전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획량이 감소하여 2010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본장에서는 2012년 연근해어업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2013년을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업계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위원(어업자원연구실장), ** 전문연구원, *** 연구원

- 이를 위하여 자원동향, 어선 및 생산 통계자료, 업계의 의견 및 국내외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어업자원의 동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요 생산어종이면서 대중적인 소비어종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를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 연근해어업 생산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하였고 연안어업은 먼해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 구획어업 및 연안허가어업으로 하였다.
- 어업경영 동향과 전망은 근해어업 중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등 주요 4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을 실시하였다.¹⁾

2. 2012년 연근해어업 동향

1) 어업 자원

- 연근해어업 자원은 해황과 어황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다. 본 동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2012년 주요 어종의 월별 어황을 보면 갈치, 멸치, 고등어는 평년 대비 저조했던 반면에 오징어의 어황은 평년수준을²⁾ 보였다(<표 4-1> 참조).
- 고등어는 상반기에는 어황이 순조로웠지만 8월말 이후부터는 태·폭풍 등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한 조업부진으로 평년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초겨울 한파 등 기상악화 및 조업부진으로 연간 어황은 평년비 부진한 수준을 보였다.
- 갈치는 6월과 7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군밀도가 낮게 형성되어 평년 대비 저조한 어황을 보였는데, 이것은 전년도부터 이어진 낮은 산란자원량 수준과 높은 미성어 어획비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오징어는 어군의 회유 및 분산 분포에 따라 월별로 어황이 평년 대비 순조

1) 연안어업의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5년마다 연안어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연도별 분석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곤란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2) 국립수산물과학원 어황정보에서의 평년수준은 평년 대비 80~120% 수준을 의미함.

및 저조를 오락가락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멸치는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멸치 어장 이동과 해파리의 대량 출현, 8월 말과 9월의 연이은 태풍 내습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조업 부진, 봄철 및 가을 이후의 저수온 현상 등으로 전체적인 어획량이 평년대비 저조하였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상위 4개 어종(연근해어업 생산량의 49% 점유)을 통해서 평년 대비 2012년 한 해의 자원동향을 보면 고등어, 갈치, 멸치는 저조한 수준을 보였으며, 오징어는 평년수준을 보였다.

〈표 4-1〉 2012 연근해 주요 어종의 어황

구분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종합	▽	▽	○	▽

주 : 1) ▲ 평년 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 대비 저조.

2) 본 자료는 국립수산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본고에서는 불과 4개 어종을 대상으로 동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어종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점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연근해 어종이다.
- 전술한 주요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어업별 월별 자원동향을 보면 <표 4-2>와 같이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은 상반기 호조 이후 하반기부터 저조한 어황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평년 대비 저조한 어황을 보였다. 그리고 갈치 등을 어획하는 대형저인망은 갈치 어획의 저조, 그리고 작년에 호조를 보인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해 전체 어황은 평년 대비 저조한

어황으로 나타났다.

- 오징어를 어획하는 근해업종 중 채낚기는 오징어의 자원상황이 평년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분산으로 인해서 평년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기선권현망의 경우, 전체적인 어황 부진으로 어획량이 평년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표 4-2〉 2012 주요 근해어업의 어황

구분	대형선망	대형기저	채낚기	기선권현망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금어기
5월	▲	○	▽	금어기
6월	○	○	○	금어기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종합	▽	▽	▽	▽

주 : ▲ 평년 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 대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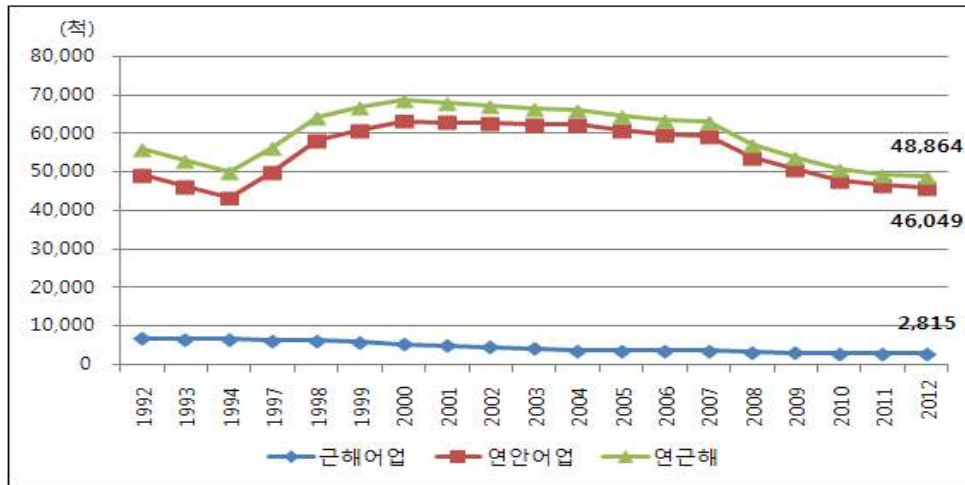
-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종별 자원동향과 어업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채낚기, 갈치와 참조기 등을 어획하는 대형저인망은 평년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기선권현망은 전년도 어황이 매우 좋았던 것에 비해서 금년도 어황이 평년 대비 저조하여 전년과 비교한 어황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원동향과 어업동향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부어류는 자연적 요인에 민감하다.
-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태·폭풍, 장마, 홍수 등을 들 수 있는데, 2012년 한반도엔 가뭄, 무더위, 태풍, 초겨울 강추위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연초에는 55년만의 한파가 지속되었으며 5월에는 104년만의 가뭄, 여름에는 18년만의 무더위, 그리고 8월말과 9월에는 40년만의 연속 태풍(볼라벤, 덴빈, 산바) 내습이 있었

고 11월 말부터 시작된 추위는 12월 상순에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출어일수 및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다. 여름철 폭염은 해파리 출현 밀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선권현망의 경우 해파리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 및 어획량 감소를 겪었다. 그리고 8월말과 9월에는 태풍 세 개가 연달아 북상하면서 출어 중단으로 인한 어획물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다.

- 자연재해 이외에 해양환경 요인 중 수산자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수온이다. 2012년도는 여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 원활한 어군형성을 저해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2013년에는 1~3월까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초 저수온으로 인한 어군형성 지연, 그리고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해파리 대량발생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어선

- 어선은 어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8톤 이상은 근해어업이고 그 미만은 연안어업에 속한다.
- <그림 4-1>에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연근해어업의 어선추이를 보면, 근해어선은 199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연안어선은 1996년까지 감소하다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2년 말 공식 어선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연안어선 594척과 근해어선 30척이 감척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약 48,864척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연근해 전체 어선세력은 2004년 66,063척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2년 말에는 약 48,864척으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4-3> 참조).



주 : 2012년 어선척수는 당해연도 연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감안한 추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그림 4-1〉 연근해어선 추이(1992~2012년)

〈표 4-3〉 연근해 어선 현황

단위 : 척, 톤, 천 마력

구분	연근해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2005	64,579	322,811	10,089	3,687	164,037	1,763	60,892	158,774	8,326
2006	63,518	312,580	11,699	3,629	162,831	1,880	59,889	149,749	9,819
2007	63,363	309,003	11,154	3,573	162,264	1,975	59,790	146,739	9,179
2008	57,177	280,708	10,189	3,385	148,032	1,908	53,792	132,676	8,281
2009	53,799	257,292	10,304	3,047	132,436	2,121	50,752	124,856	8,183
2010	50,757	249,695	10,094	2,875	127,382	1,700	47,882	122,313	8,394
2011	49,489	248,233	9,726	2,845	127,467	1,740	46,644	120,766	7,986
2012	48,864			2,815			46,049		

주 : 2012년 어선척수는 당해연도 연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감안한 추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3) 어업 생산

(1) 연근해어업

-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1년에 9.1% 가량 증가한 이후 2012년에는 10.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 연안어업의 경우 2011년에는 4.6% 가량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3.3%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 근해어업의 경우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11.1%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9.7%가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4〉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량(2010~2012년)

단위 : M/T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132,536	1,235,489	1,103,079	348,120	363,976	315,706	784,416	871,513	787,373
1	113,626	106,393	141,941	18,381	21,566	23,900	95,245	84,827	118,041
2	64,212	61,758	73,995	15,795	12,714	15,686	48,417	49,044	58,309
3	48,503	73,391	67,427	13,809	15,420	14,329	34,694	57,971	53,098
4	48,854	50,876	45,241	22,949	21,223	19,343	25,905	29,653	25,898
5	61,696	63,236	64,803	33,561	33,137	33,877	28,135	30,099	30,926
6	69,750	68,462	52,474	35,228	34,719	27,227	34,522	33,743	25,247
7	83,781	61,850	60,028	32,273	25,525	19,248	51,508	36,325	40,780
8	73,818	85,278	45,624	25,761	26,227	17,087	48,057	59,051	28,537
9	116,399	128,493	93,572	41,294	38,226	29,694	75,105	90,267	63,878
10	193,084	195,334	158,462	45,899	50,805	43,063	147,185	144,529	115,399
11	134,966	163,512	146,895	36,391	53,569	41,810	98,575	109,943	105,086
12	123,847	176,906	152,616	26,779	30,845	30,442	97,068	146,061	12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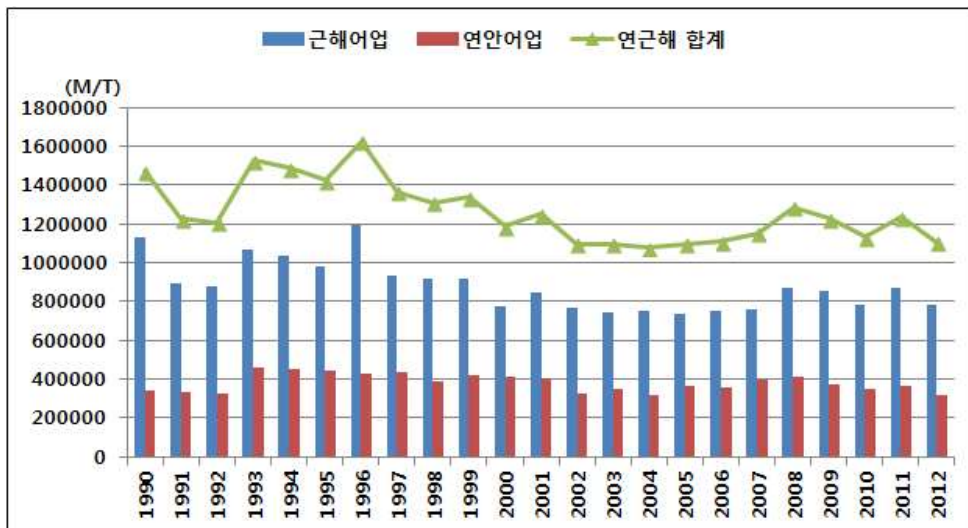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 생산량은 2009~2011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1990년 대 중반 160만 톤가량이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대 초반 110만 톤으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수온상승 등과 같은 해양환경 변화와 정부 및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어획생산량이 회복추세를 보이는 듯 했다.

- 하지만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재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9년도의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인한 멸치 어획량 급감과 2010년도 연안 수온 불안정으로 인한 회유성 어종(고등어, 오징어 등)의 회유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2011년 또한 초반에는 저수온 등으로 어획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멸치, 오징어, 고등어, 참조기 등의 어획 호조로 전년 보다는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2012년에는 멸치, 고등어, 갈치 등의 대중어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다소 큰 폭의 어획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1990~2012년)



주 : 2012년 10월까지의 자료는 확정치이며 그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2012년 11~12월 생산량은 2009~2011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2) 주요 어종별 어업생산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약 2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어업생산통계에 어종명이 등재돼 있는 수산물은 총 120종으로 2011년에 비하여 8종이 증가하였다. 이중 어류는 62종, 갑각류는 13종, 패류 19종, 연체동물 8종, 기타수산동물 6종 그리고 해조류가 12종이다(<표 4-5> 참조).

〈표 4-5〉 연근해어업 어획 어종 수

구분	합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 타 수산동물	해조류
2011년	112	61	13	19	8	5	6
2012년	120	62	13	19	8	6	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종 중 2012년 기준 10대 어종으로는 멸치, 오징어류, 고등어, 전갱이류, 붉은대게, 갈치, 꽃게, 청어, 참조기, 삼치류로 2011년과 비교하여 굴류가 청어로 대체되었다.
- 201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의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오징어류, 꽃게, 청어, 전갱이류, 삼치류는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멸치류의 어획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름철 해파리의 대량 출현과 8월말과 9월의 태풍 내습 및 이후의 저수온 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등어의 경우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어획이 순조로웠지만 하반기부터 태·폭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 및 조업 부진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전갱이류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어획량이 36.1%가 증가하면서 생산량 측면에서 멸치, 오징어류, 고등어에 이어 4대 어종으로 진입하였고 2010년까지 전통적으로 4대 어종에 포함되던 갈치는 2011년 이후 계속 4대 어종에서 밀려나 있다.

〈표 4-6〉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량 순위(2010~2012년)

단위 : M/T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1~10월)		전년동기
순위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어획량
1	멸치	249,636	멸치	292,730	멸치	172,982	225,361
2	오징어류	159,130	오징어류	171,643	오징어류	109,185	98,890
3	고등어	94,331	고등어	138,729	고등어	84,169	102,134
4	갈치	59,242	참조기	59,226	전갱이류	27,724	20,365
5	삼치류	35,778	전갱이류	42,853	붉은대게	27,570	25,224
6	꽃게	33,193	갈치	33,101	갈치	25,662	27,009
7	참조기	31,931	붉은대게	32,520	꽃게	24,137	23,421
8	붉은대게	30,749	삼치류	29,294	청어	22,991	20,819
9	청어	25,005	꽃게	26,608	참조기	21,075	36,847
10	굴류	22,686	굴류	24,985	삼치류	20,216	19,04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10대 어종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비중을 보면 <표 4-7>과 같이 약 67%에 달하고, 5대 어종은 약 52%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실상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은 약 20개 어종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연근해 10대 어종의 생산비중(2012년 1~10월)

단위 : M/T

구 분		생산량	누적생산량	구성비(%)	
어업 전체		803,467		생산량	누적생산량
1	멸치	172,982	172,982	22%	22%
2	오징어류	109,185	282,167	14%	35%
3	고등어	84,169	366,336	10%	46%
4	전갱이류	27,724	394,060	3%	49%
5	붉은대게	27,570	421,630	3%	52%
6	갈치	25,662	447,292	3%	56%
7	꽃게	24,137	471,429	3%	59%
8	청어	22,991	494,420	3%	62%
9	참조기	21,075	515,495	3%	64%
10	삼치류	20,216	535,711	3%	67%

주 : 2012년 1~10월까지의 생산량 통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4대 어종의 생산액을 보면 <표 4-8>과 같이 287억 원에서 약 3,62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량생산 어종의 어구어법도 대부분 20개가 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 전역에 분포하며, 이들을 어획하는 어구나 어법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연근해 4대 어종의 생산량·생산금액과 주요 어구어법(2012년 1~10월 기준)

단위 : M/T, 천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어구어법수		
			합계	연안	근해
1	멸치	172,982	229,643,922	15	11
2	오징어류	109,185	362,439,850	21	11
3	고등어	84,169	181,859,539	26	12
4	전갱이류	27,724	28,744,022	23	12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3) 주요 근해어업별 생산량

- 어업별 생산량 동향은 후술하는 경영 동향 및 전망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근해어업 중 주요 어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대상어업으로는 대형선망어업,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과 동해구트롤), 대형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저인망과 쌍끌이대형저인망), 그리고 기선권현망어업 등 4개 업종이다.
- 이들 4개 업종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월별 생산 추세를 <표 4-9>를 통해 보기로 한다.
 - 대형선망어업은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주 어기인데, 동 기간 동안의 어획량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 근해트롤어업은 봄과 여름을 제외한 기간이 주어기이고, 대부분의 어기동안 전년에 비해 어획이 좋지 못하였다.
 - 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1월과 10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기동안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 기선권현망어업은 1월, 2월, 7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보다 어획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과 9월의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급감하였고 9월 이후의 어획량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량(2010~2012년)

단위 : M/T

구분	대형선망			근해트롤			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연도 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60,409	219,109	190,131	99,620	118,443	106,205	64,327	72,268	65,602	157,720	154,055	123,467
1	21,492	19,170	35,706	10,090	17,314	24,135	7,671	9,094	9,834	32,418	14,232	20,592
2	11,153	10,451	15,310	3,390	2,825	3,961	5,768	6,554	5,639	11,813	12,667	13,725
3	3,388	9,503	15,265	1,784	480	346	4,999	6,737	6,507	8,088	21,870	10,286
4	1,901	4,979	1,207	407	235	170	3,787	3,057	3,155	1,135	1,670	779
5	360	2,191	4,811	227	112	53	2,362	2,636	2,409	234	1,580	564
6	4,697	5,459	4,866	100	42	28	999	1,187	1,186	520	540	303
7	6,282	5,087	10,363	741	178	78	1,920	1,470	1,244	22,369	17,151	17,438
8	6,415	11,956	9,936	2,283	2,483	516	4,304	4,805	1,652	20,075	20,512	6,027
9	18,021	30,041	11,665	9,573	6,864	4,105	4,684	7,391	5,071	15,504	14,761	10,916
10	44,857	44,625	17,487	35,761	31,012	27,029	9,710	9,667	9,941	14,981	16,667	15,217
11	22,091	24,064	25,396	12,373	23,045	18,829	8,670	10,436	9,690	17,529	17,822	15,033
12	19,752	51,583	38,119	22,891	33,853	26,954	9,453	9,234	9,274	13,054	14,583	12,587

주 : 2012년 11~12월 생산량은 2009~2011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 가격

(1) 생산액

- 생산액 기준 연근해어업의 주요 10대 어종은 생산량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오징어류, 멸치, 꽃게, 갈치, 고등어, 가자미류, 붕장어, 문어류, 참조기, 낙지류가 10대 어종이다.
- 지난 3년간 생산액 기준 10대 어종은 거의 동일하였고, 순위에서만 다소 변경이 있었다. 2012년의 경우는 11월과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조기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꽃게와 붕장어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월별 생산액을 보면 2012년은 2011년에 비하여 연근해어업 전체는 1월, 2월,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연안어업은 1~5월까지의 증가하였지만 6월부터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어업은 1월, 2월, 5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11> 참조).

〈표 4-10〉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액 순위(2010~2012년)

단위 : 천 원

연도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1	오징어류	567,827,691	오징어류	693,641,997	오징어류	362,439,850
2	멸치	390,404,552	멸치	429,826,880	멸치	229,643,922
3	갈치	300,903,156	참조기	311,598,862	꽃게	224,253,935
4	꽃게	278,915,339	갈치	294,175,675	갈치	222,559,437
5	고등어	167,876,152	고등어	287,794,231	고등어	181,859,539
6	참조기	160,686,094	꽃게	266,108,212	가자미류	137,219,747
7	가자미류	145,640,756	가자미류	152,066,943	붕장어	133,561,365
8	문어류	130,006,120	문어류	143,941,363	문어류	132,522,212
9	낙지류	129,313,049	낙지류	140,116,487	참조기	109,186,081
10	삼치류	114,071,337	붕장어	138,146,114	낙지류	106,383,703

주 : 2012년은 1~10월까지의 생산량 통계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표 4-11〉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액(2010~2012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3,911,681	4,444,106	3,987,186	1,707,199	1,790,543	1,671,311	2,204,482	2,653,562	2,315,875
1	287,916	378,158	414,799	94,133	100,848	117,960	193,784	277,310	296,839
2	208,836	206,263	231,509	77,632	61,280	79,303	131,204	144,983	152,206
3	213,733	262,702	240,817	96,358	94,286	102,916	117,375	168,417	137,900
4	255,035	250,096	248,174	137,816	128,742	137,797	117,219	121,353	110,377
5	302,254	298,422	317,395	184,620	184,120	187,872	117,634	114,302	129,524
6	267,369	283,997	257,745	177,249	175,115	153,335	90,120	108,882	104,410
7	296,761	245,786	233,488	147,932	137,112	115,866	148,828	108,673	117,622
8	256,506	308,120	190,500	126,671	142,636	88,872	129,835	165,484	101,627
9	379,484	437,717	402,900	176,648	179,004	175,509	202,836	258,713	227,391
10	557,256	668,187	518,224	194,994	225,888	199,472	362,263	442,299	318,752
11	466,342	578,566	482,358	169,301	214,400	177,018	297,041	364,167	305,340
12	420,188	526,089	449,277	123,845	147,111	135,390	296,343	378,979	313,887

주 : 2012년 11~12월 생산액은 2009~2011년 동기간의 생산액을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근해어업의 주요 어업별 생산액을 보면 대형선망의 경우 전년 대비 상반기에는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업생산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생산액은 2011년 약 4,197억 원에서 2012년에는 약 3,765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근해트롤은 전년 대비 상반기에는 생산액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생산액에 감소하였으며 특히 10월 생산액이 급감하여 전체적으로는 2011년의 3/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형저인망은 전년 대비 2~4월은 생산액이 증가하였고 8월과 9월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어기동안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생산액은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선권현망은 전년에 비하여 10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여 연간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4-12> 참조).

〈표 4-12〉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2010~2012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월	대형선망			근해트롤			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96,153	419,650	376,531	303,068	422,883	302,700	178,613	199,563	195,461	234,435	235,010	163,704
1	31,456	49,545	56,307	22,344	61,497	73,080	19,424	21,309	25,090	30,547	23,830	22,057
2	20,510	25,521	29,530	5,792	10,694	12,786	13,757	11,686	16,323	21,462	24,765	13,367
3	10,990	21,896	21,077	3,672	2,649	1,893	12,204	14,079	16,066	18,198	35,705	9,025
4	5,744	10,322	2,065	1,456	1,178	1,149	10,794	13,476	12,944	2,772	2,616	503
5	1,659	5,333	15,338	745	514	287	7,776	9,695	9,393	539	1,868	1,005
6	11,641	14,483	22,456	412	248	179	3,585	4,694	4,566	1,526	1,323	539
7	17,797	16,303	23,927	1,376	526	395	7,380	5,294	5,778	32,215	22,716	17,441
8	21,297	22,844	21,599	5,049	6,501	2,534	10,503	11,027	6,110	22,686	31,216	7,791
9	28,755	58,471	34,746	20,166	21,606	11,770	14,043	18,773	14,598	34,112	22,188	21,684
10	53,362	72,100	41,314	107,781	116,073	59,180	23,467	28,403	28,904	26,489	27,452	29,060
11	48,208	59,131	53,277	41,911	87,304	55,853	30,594	33,478	29,118	28,036	23,944	24,427
12	44,734	63,700	54,894	92,364	114,093	83,595	25,086	27,650	26,571	15,854	17,388	16,804

주 : 2012년 11~12월 생산액은 2009~2011년 동기간의 생산액을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2) 생산자 가격

- 2012년 생산자 가격은 연근해어업 전체를 볼 때 4~6월, 8월~9월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전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4-13> 참조).
- 연안어업의 경우, 5월과 8월을 제외하면 모든 기간 동안 생산자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 반면, 근해어업은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생산자 가격이 3.4% 하락하였으며, 1~3월, 7월, 10월의 가격이 전년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자 가격(2010~2012년)

단위 : 천 원/M/T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전체			연안어업			근해어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3,454	3,597	3,615	4,904	4,919	5,294	2,810	3,045	2,941
1	2,534	3,554	2,922	5,121	4,676	4,936	2,035	3,269	2,515
2	3,252	3,340	3,129	4,915	4,820	5,056	2,710	2,956	2,610
3	4,407	3,579	3,572	6,978	6,115	7,182	3,383	2,905	2,597
4	5,220	4,916	5,486	6,005	6,066	7,124	4,525	4,092	4,262
5	4,899	4,719	4,898	5,501	5,556	5,546	4,181	3,798	4,188
6	3,833	4,148	4,912	5,031	5,044	5,632	2,610	3,227	4,136
7	3,542	3,974	3,890	4,584	5,372	6,020	2,889	2,992	2,884
8	3,475	3,613	4,175	4,917	5,439	5,201	2,702	2,802	3,561
9	3,260	3,407	4,306	4,278	4,683	5,911	2,701	2,866	3,560
10	2,886	3,421	3,270	4,248	4,446	4,632	2,461	3,060	2,762
11	3,455	3,538	3,284	4,652	4,002	4,234	3,013	3,312	2,906
12	3,393	2,974	2,944	4,625	4,769	4,447	3,053	2,595	2,569

주 : 2011년 11~12월 단가는 2009~2011년 동 기간의 단가를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주요 근해어업별 생산자 가격 추이를 보면 대형선망은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고, 대형저인망은 7.9% 상승하였다. 그러나 근해트롤은 20.2%, 기선권현망은 13.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선권현망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가격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고가의 세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 4-14〉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자 가격(2010~2012년)

단위 : 천 원/M/T

구분 연도 월	대형선망			근해트롤			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846	1,915	1,980	3,042	3,570	2,850	2,777	2,761	2,979	1,486	1,525	1,326
1	1,464	2,585	1,577	2,214	3,552	3,028	2,532	2,343	2,551	942	1,674	1,071
2	1,839	2,442	1,929	1,708	3,785	3,228	2,385	1,783	2,895	1,817	1,955	974
3	3,244	2,304	1,381	2,058	5,518	5,471	2,441	2,090	2,469	2,250	1,633	877
4	3,022	2,073	1,711	3,579	5,011	6,756	2,850	4,408	4,103	2,442	1,566	646
5	4,609	2,434	3,188	3,281	4,587	5,406	3,292	3,678	3,899	2,303	1,182	1,782
6	2,478	2,653	4,615	4,120	5,911	6,402	3,589	3,955	3,850	2,934	2,450	1,779
7	2,833	3,205	2,309	1,856	2,955	5,069	3,844	3,601	4,644	1,440	1,324	1,000
8	3,320	1,911	2,174	2,211	2,618	4,912	2,440	2,295	3,698	1,130	1,522	1,293
9	1,596	1,946	2,979	2,107	3,148	2,867	2,998	2,540	2,879	2,200	1,503	1,986
10	1,190	1,616	2,363	3,014	3,743	2,190	2,417	2,938	2,908	1,768	1,647	1,910
11	2,182	2,457	2,098	3,387	3,788	2,966	3,529	3,208	3,005	1,599	1,344	1,625
12	2,265	1,235	1,440	4,035	3,370	3,101	2,654	2,994	2,865	1,214	1,192	1,335

주 : 2012년 11~12월 단가는 2009~2011년 동기간의 단가를 평균한 값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1) 생산 동향

- 2012년 현재 대형선망어업의 허가정수는 29건이고 2012년의 동안의 실제조업 통수는 24통이다.
- 2012년 대상어종별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고등어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참다랑어 어획량은 다소 증가하였고 전갱이 어획량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등어류의 어획량은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약 40%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5% 감소하였다.
- 정어리의 경우 2010년에 49톤이 어획되었고 2011년에는 2,600톤이 어획되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500톤 수준으로 다시 급락하였다.
- 오징어의 경우 또한 어획량이 감소하여 2011년 대비 3,000톤 가량이 감소하였다.

- 대형트롤어업의 허가정수는 37건이고 실제 조업척수는 부산 46척, 경남 5척, 전남 1척으로 모두 52척이 조업하였다.
 - 생산동향을 보면 전체 어획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오징어의 생산이 전년에 비해 6%가량 감소하였고,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및 국내 소비 둔화로 어가가 하락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38건이고 실제 조업통수는 36통이다(부산 16, 인천 5, 경남 10, 전남 5).
 - 전체 어획량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하였다. 주 어종인 삼치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88% 수준에 그쳤고 기타 어종의 어획량 또한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34건이고 실제 조업척수는 47척으로서 부산 20척, 경남 11척, 전남 16척이 조업하였다. 어종 구성이 다양한 외끌이대형 기저어업의 경우 대부분의 어획량이 약보합세(전체 어획량 1.5% 감소)를 보였으나 눈볼대의 어획량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수출금액 또한 증가하였다.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정수 68건이고 실제 조업통수는 약 77통이다.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봄, 가을 저수온 현상, 여름철 해파리 대량 출현, 8월말과 9월의 태풍 내습 및 이후의 기상 악화로 인한 조업 부진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은 세멸의 어획량 비중이 증가하지 않아서 어획금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2) 어업별 수익성

가) 대형선망어업

- 2011년 어획금액은 4,253억 원이었으나 고등어 등 전반적인 어획 감소로 인해서 2012년 어획금액은 3,667억 원으로 통당 수입은 24.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선망어업의 주요 조업시기인 11월과 12월 잦은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악화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어 어획량 부진을 면치 못했다.
 - 반면 2011년에 이어 유가는 계속 상승하였는데, 2010년 드럼당 평균 13만 8천 원 하던 것이 2011년에는 18만 3천 원으로 뛰어 올라 약 32.6%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19만 4,700원까지 상승하여 전년 대비 6.4%

상승함으로써 수익성 악화를 부추겼다.

- 이상을 종합하면 유류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선망 어업의 2012년 경영상황은 2011년 대비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대형선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업수입			15,183,344	14,235,209	19,346,472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구비	623,854	684,403	644,671	5.0%	5.5%	4.3%
		연료비	2,357,807	2,472,542	3,705,411	18.8%	20.0%	24.6%
		용기대	364,473	361,984	279,620	2.9%	2.9%	1.9%
		저장대	477,175	464,115	372,161	3.8%	3.8%	2.5%
		소모품비	754,420	732,106	718,390	6.0%	5.9%	4.8%
		주부식비	146,682	151,237	314,372	1.2%	1.2%	2.1%
		후생비	200,752	207,845	193,984	1.6%	1.7%	1.3%
		수리비	1,033,921	880,771	1,126,741	8.2%	7.1%	7.5%
		소계	5,959,084	5,949,003	7,355,350	47.5%	48.1%	48.8%
	임금 및 관리비	임금	3,382,658	3,376,183	3,602,817	27.0%	27.3%	23.9%
		사무비	940,952	987,999	1,404,881	7.5%	8.0%	9.3%
		공제 및 보험료	456,898	470,604	449,379	3.6%	3.8%	3.0%
		판매비	1,174,856	949,997	1,098,703	9.4%	7.7%	7.3%
		조세공과	50,736	47,184	14,969	0.4%	0.4%	0.1%
		기타	220,467	213,852	503,866	1.8%	1.7%	3.3%
		소계	6,226,567	6,045,819	7,074,615	49.6%	48.9%	47.0%
	감가상각비		363,606	381,030	630,607	2.9%	3.1%	4.2%
어업비용계		12,549,257	12,375,852	15,060,572	100.0%	100.0%	100.0%	
어업이익		2,634,087	1,859,357	4,285,900				
어업외비용		184,627	173,549	224,796				
총 비용		12,733,884	12,549,401	15,285,368				
당기순이익		2,449,460	1,685,808	4,304,365				
어업이익률		17.3%	13.1%	22.2%				

자료 : 수협중앙회, 2011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2.

나) 대형트롤어업

- 2012년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상황을 청취 조사한 결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약 5.6% 가량 감소했지만 어가하락으로 생산금액은 2011년 약 2,228억 원에서 2012년 1,751억 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트롤어업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오징어의 경우 어획량은 전년 대비 6%가량 감소하였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 둔화 및 국내 소비 감소가 나타나면서 어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형트롤 전체 어획금액은 전년 대비 약 21%나 감소하였다.

- 반면 유류비(경유 및 병커 C유)는 드럼당 6~7%가 인상되었고 전체 52척의 어선 중 10년 이상인 어선이 약 88%를 차지하여 수리비 증가로 인해서 경영상황은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대형트롤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업수입			2,492,038	3,155,078	5,179,064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구비	90,128	88,742	431,095	4.3%	3.2%	9.2%
		연료비	583,861	744,350	761,349	27.9%	26.7%	16.3%
		용기대	51,125	48,742	61,122	2.4%	1.8%	1.3%
		저장대	57,161	53,053	225,789	2.7%	1.9%	4.8%
		소모품비	128,053	132,017	326,501	6.1%	4.7%	7.0%
		주부식비	75,125	76,708	79,725	3.6%	2.8%	1.7%
		후생비	54,600	78,300	129,985	2.6%	2.8%	2.8%
		수리비	96,800	106,266	353,165	4.6%	3.8%	7.6%
	임금 및 관리비	소계	1,136,853	1,328,178	2,368,731	54.4%	47.7%	50.8%
		임금	604,028	981,514	1,459,956	28.9%	35.3%	31.3%
		사무비	47,037	62,518	172,604	2.2%	2.2%	3.7%
		공제 및 보험료	51,189	66,564	48,595	2.4%	2.4%	1.0%
		판매비	126,256	207,418	395,041	6.0%	7.5%	8.5%
		조세공과	14,525	28,175	144,974	0.7%	1.0%	3.1%
		기타	51,647	50,238	61,164	2.5%	1.8%	1.3%
		소계	894,682	1,396,427	2,282,335	42.8%	50.2%	48.9%
	감가상각비		51,153	59,153	15,477	2.4%	2.1%	0.3%
어업비용계		2,090,688	2,783,758	4,666,543	100.0%	100.0%	100.0%	
어업이익		401,350	371,320	512,521				
어업외비용		17,667	22,613	0				
총 비용		2,108,355	2,806,371	4,666,543				
당기순이익		383,683	348,707	512,521				
어업이익률		16.1%	11.8%	9.9%				

자료 : 수협중앙회, 2011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2.

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2012년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획상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전체 어획량은 13.1%가량 감소하고 어획금액은 10.4%가량 감소하였다.
- 주요 대상어종인 삼치의 경우 어획량은 전년의 88% 수준이었으며 어획금액은 94% 수준을 보였다.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전체 어획금액은 2011년 1,177억 원에서 1,055억 원으로 약 10.4%가 감소하였다. 유류비, 인건비 증가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를 감안한다면 전체 경영상황은 2011년에 비해 다소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업수입			4,407,751	4,727,071	5,757,829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구비	135,104	160,071	360,031	3.2%	3.5%	6.5%
		연료비	1,392,873	1,747,920	2,677,457	33.2%	38.4%	48.2%
		용기대	205,548	144,885	184,319	4.9%	3.2%	3.3%
		저장대	127,759	146,666	211,215	3.0%	3.2%	3.8%
		소모품비	235,267	229,577	94,485	5.6%	5.0%	1.7%
		주부식비	90,876	69,569	78,191	2.2%	1.5%	1.4%
		후생비	87,276	109,447	61,515	2.1%	2.4%	1.1%
		수리비	230,082	269,489	275,327	5.5%	5.9%	5.0%
	소계	2,504,785	2,877,624	3,942,540	59.7%	63.2%	71.0%	
	임금 및 관리비	임금	1,013,395	977,713	969,375	24.1%	21.5%	17.5%
		사무비	81,647	100,837	68,459	1.9%	2.2%	1.2%
		공제 및 보험료	103,674	114,434	76,969	2.5%	2.5%	1.4%
		판매비	303,262	282,358	386,363	7.2%	6.2%	7.0%
		조세공과	44,118	52,000	43,648	1.1%	1.1%	0.8%
		기타	44,948	40,453	46,858	1.1%	0.9%	0.8%
		소계	1,591,044	1,567,795	1,591,673	37.9%	34.5%	28.7%
	감가상각비		101,708	104,442	19,541	2.4%	2.3%	0.4%
어업비용계			4,197,537	4,549,861	5,553,754	100.0%	100.0%	100.0%
어업이익			210,214	177,210	204,076			
어업외비용			43,120	39,043	4,175			
총 비용			4,240,657	4,588,904	5,557,929			
당기순이익			167,094	138,167	199,901			
어업이익률			4.8%	3.7%	3.5%			

자료 : 수협중앙회, 2011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2.

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2011년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영상황을 2011년과 대비해 볼 때 생산량은 1.5%가량 감소했지만 생산금액은 243억 원에서 254억 원 수준으로 5%가량 증가하였다.
- 전반적인 어획량은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눈볼대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전체 어획금액 상승을 견인하였다.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증가를 감안하면 전체 경영상황은 전년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4-18〉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업수입			833,628	851,083	1,042,591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구비	39,359	35,269	96,478	4.9%	4.3%	9.5%
		연료비	99,373	101,825	162,587	12.2%	12.3%	16.1%
		용기대	17,519	19,403	21,732	2.2%	2.3%	2.1%
		저장대	35,875	29,242	81,150	4.4%	3.5%	8.0%
		소모품비	59,049	62,885	21,626	7.3%	7.6%	2.1%
		주부식비	43,655	35,316	20,669	5.4%	4.3%	2.0%
		후생비	35,933	27,032	22,028	4.4%	3.3%	2.2%
		수리비	80,093	83,915	23,191	9.9%	10.2%	2.3%
		소계	411,220	394,887	449,462	50.7%	47.8%	44.4%
	임금 및 관리비	임금	202,613	274,925	327,549	25.0%	33.3%	32.3%
		사무비	28,334	22,379	33,887	3.5%	2.7%	3.3%
		공제 및 보험료	21,372	26,937	34,806	2.6%	3.3%	3.4%
		판매비	47,481	50,315	39,138	5.9%	6.1%	3.9%
		조세공과	27,550	33,407	31,503	3.4%	4.0%	3.1%
		기타	66,502	16,382	93,284	8.2%	2.0%	9.2%
		소계	393,852	424,345	560,166	48.5%	51.4%	55.3%
	감가상각비		6,255	6,520	3,288	0.8%	0.8%	0.3%
어업비용계		811,327	825,752	1,012,916	100.0%	100.0%	100.0%	
어업이익		22,301	25,331	29,675				
어업외비용		5,912	7,245	0				
총 비용		817,239	832,997	1,012,916				
당기순이익		16,389	18,086	29,675				
어업이익률		2.7%	3.0%	2.8%				

자료 : 수협중앙회, 2011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2.

마) 기선권현망어업

- 기선권현망어업은 2011년에 사상 가장 높은 어획금액을 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되지 않아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기선권현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업수입			2,519,392	2,900,661	3,572,205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구비	87,379	96,931	9,670	3.8%	3.7%	0.3%
		연료비	474,782	590,436	730,946	20.9%	22.6%	23.7%
		용기대	101,286	128,757	133,832	4.5%	4.9%	4.3%
		저장대	24,748	27,208	33,672	1.1%	1.0%	1.1%
		소모품비	72,076	71,875	54,940	3.2%	2.8%	1.8%
		주부식비	77,911	110,787	92,514	3.4%	4.2%	3.0%
		후생비	40,339	47,319	41,038	1.8%	1.8%	1.3%
		수리비	198,249	166,127	713,884	8.7%	6.4%	23.1%
		소계	1,076,770	1,239,440	1,896,996	47.4%	47.5%	61.4%
	임금 및 관리비	임금	826,691	962,841	753,765	36.4%	36.9%	24.4%
		사무비	50,927	51,751	65,208	2.2%	2.0%	2.1%
		공제 및 보험료	45,251	52,456	58,708	2.0%	2.0%	1.9%
		판매비	121,373	144,584	117,173	5.3%	5.5%	3.8%
		조세공과	32,196	36,418	53,233	1.4%	1.4%	1.7%
		기타	79,735	81,492	28,460	3.5%	3.1%	0.9%
		소계	1,156,173	1,329,542	1,076,547	50.9%	50.9%	34.9%
	감가상각비		36,656	41,440	114,763	1.6%	1.6%	3.7%
어업비용계		2,269,599	2,610,422	3,088,307	100.0%	100.0%	100.0%	
어업이익		249,793	290,239	483,898				
어업외비용		51,591	52,058	107,651				
총 비용		2,321,190	2,662,480	3,195,957				
당기순이익		198,202	238,181	376,248				
어업이익률		9.9%	10.0%	13.5%				

자료 : 수협중앙회, 2011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2.

-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부진 원인은 여름철 해파리 출현 밀도 증가, 봄·가을철 냉수대 형성에 따른 어군형성 부진, 8월말과 9월의 연이은 태풍 내습, 초겨울 기상악화에 따른 출어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단가가 높은 세멸의 어획비중이 증가하지 않아 어획량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전할 수 없었으며, 동 업종이 유류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기선권현망어업 1구(경남지역)의 경우 어획금액은 전년 대비 435억 원이 감소하여 약 32.2%의 어획금액 감소를 보였다.
- 동 업종의 1통당 손익분기점은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업경비 구조를 보면 인건비, 유류비가 생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3. 2013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어업자원 및 어업생산량 변동성 확대

- 2012년에는 상반기 한파로 인한 저수온 현상,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해파리 대량 발생, 8월말과 9월의 연이은 태풍 내습, 초겨울 한파 등으로 어업자원 변동 보다는 조업 부진에 의해 대형선망어업과 기선권망어업, 그리고 대형기저(쌍끌이, 외끌이, 트롤)어업에서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하회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2013년의 기상상황은 봄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지만 이후부터는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근래 기상 이변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도 어업자원과 어업생산량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전반적으로 2013년의 어업자원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인 11개 어종의 전체 TAC가 약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근해 자원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도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기간이 축소되는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어획량이 약간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에 따라서 연안어업은 반사이익을 얻어 어획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정부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내 어업의 조업여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과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어업생산기반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어업 업종별 경영성과는 단기적으로 불안정

- 대형선망어업의 생산은 2013년도 고등어 TAC가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지만 조업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생산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상황과 관련해서는 소형어 비율 축소, 어가 상승 가능성은 커지지만 조업구역 조정으로 인해 단기적인 어획량 감소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생산은 제주도 연안에서의 조업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주요 어획대상 어종인 갈치, 참조기, 삼치 등의 단기적 생산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치는 친어자원량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미성어 어획비율이 높아서 단기적인 자원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2013년에는 유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어업경영은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생산은 일본 EEZ 안정적 입어 등으로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조업금지 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단기적 어획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 대형트롤어업의 생산은 오징어 TAC가 약간 증가함으로써 어획 증가가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온 변화 및 해역별 어군밀도에 따라 풍흉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대상어종의 어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영상황은 전반적인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3년 국제유가를 2012년에 비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은 수온 변화와 해파리 출현에 민감하게 변화된다. 기상청은 2012년 초겨울부터 시작된 한파가 1월에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봄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봄에는 저수온으로 인한 어군형성 지연이 예상되고, 여름부터는 해파리 발생 밀도가 높아져 어획 및 경영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연근해어업 희비교차 전망

- 2013년의 어업생산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서 다소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근해어업의 어획량은 단기적 생산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연안어업에서의 어획량은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단위당 어가 측면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근해어업 대상 어종의 어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어업비용은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의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유류비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외 에너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2013년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유류 의존도가 높은 어업에서는 어업경비 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하지만 이란 리스크 등 중동 정정 불안이나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락이 아닌 오히려 급등할 수 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2) 이슈 및 대책

자연재해 심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연근해어업과 관련 2012년의 가장 큰 이슈는 봄철 저수온, 여름철 해파리 대량 출현, 8월말과 9월의 연이은 태풍 내습, 초겨울 한파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을 들 수 있다. 2013년 역시 봄철 저수온, 여름철 고수온 및 강수량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연근해어업은 수산식량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등 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연안의 산란 성육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자원회복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추세에도 자원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근해

어업자원의 조성 및 확대 재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어종별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안정화 대책 필요

- 2013년부터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어종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해어업에서 조업구역을 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원회복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산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 근해어업 생산량을 곧바로 연안어업에서 대체하여 생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연안어업의 어법이 근해어업에 비해 선택적 어법으로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근해어업에서 생산되는 일부 어종에서의 어가 상승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해당 어종에 대해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물 비축이나 긴급 수입 확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어업구조 개선

- 2013년 세계 경기는 전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에서 1%p 낮춰 잡은 3%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산물 수요 둔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연근해 생산량의 정체 속에서도 가격 상승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온 연근해어업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정체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업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물 생산의 양적 확대에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 피시플레이션의 세계적 기조 속에서 타 부문에 비해 생산액이 정체될 가능성

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수산물의 수출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수산물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겨냥한 해외 마케팅 강화, 생산물의 품질 제고 등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대비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어황정보, 2011, 각 월.

기획재정부,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 2012. 1.

김정봉 외, 「한국 수산업의 선진 산업화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김대영, “대형선망어업, 경영 개선을 서둘러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수산동향, 2009. 8.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 2011. 12.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012. 12
수협중앙회, 2010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1.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남종오*·김수현**

목 차

- | | |
|------------------|-----------------|
| 1. 서론 | 4) 대내외 양식 환경 |
| 2. 2012년 양식산업 동향 | 3. 2013년 전망과 이슈 |
|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 1) 전망 |
| 2) 양식 생산 및 가격 | 2) 이슈 |
| 3) 양식 수출입 | |

1. 서론

- 2012년에는 여름철 덴빈, 볼라벤, 산바 등의 태풍 및 남·서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난히 양식 피해가 컸던 한 해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정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대미 굴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일본에서 양식 광어 관련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대일 광어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입식량 조절 실패로 인한 우럭 가격 폭락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은 올 한해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암울하게 했던 큰 사건들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양식산업에 서광을 비춰준 좋은 소식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억불 수출을 달성한지 불과 2년 만에 2억불을 초과 달성한 김 수출의 쾌거라든지, 2012년 호주 호바트에서 날아온 2015년 제9회 세계전복심포지엄 여수 유치 확정과 같은 낭보는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특히, 수산분야 10대 전략 품목 중 양식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2012년은 양식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업

* 전문연구원(수산업관측센터장), ** 전문연구원

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다.

- 2013년에는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종자산업이 육성하게 됨에 따라 양식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동향과 환경 변화, 그리고 2012년 양식 수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 등을 살펴 본 후, 2013년의 수급 전망 및 주요 이슈 등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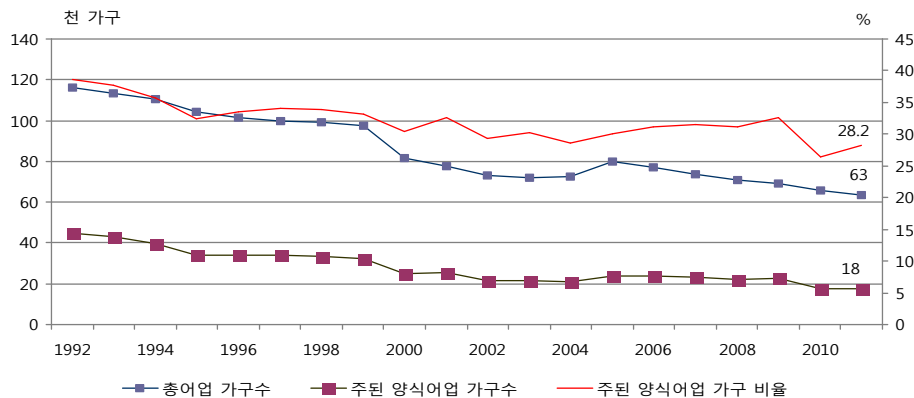
2. 2012년 양식산업 동향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1) 양식어업 가구변화

- 2011년 기준 총어업 가구수는 6만 3,215가구이며, 주된 양식어업 가구수는 1만 7,815가구로 2010년에 비해 각각 2,524가구와 429가구가 줄어들었다.
-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양식어업 가구수는 2000년 대 초반 전복 양식업의 확대에 의해 일시 증가하기도 했으나, 2010년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주된 양식업 가구수 및 가구수 점유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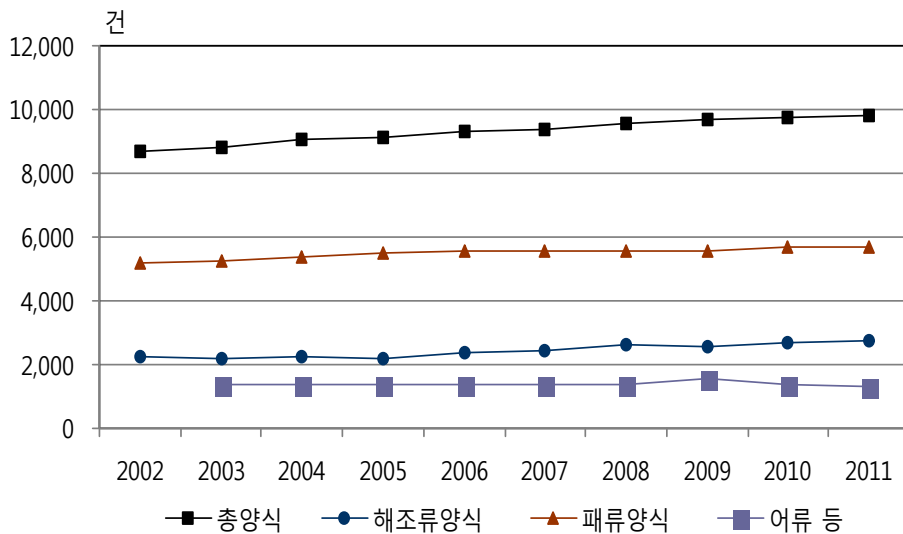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이에 총어업 가구수 대비 30% 선을 유지했던 양식어업 가구수는 2010년부터 20%대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28.2%를 점하고 있다.

(2) 양식 면허건수 및 면적 변화

- 우리나라 양식 총 면허 건수 및 면허 면적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양식 총 면허 건수는 10년 전인 2001년(9,352건)보다 14.5% 많은 9,795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양식 등 모든 부류의 양식 면허 건수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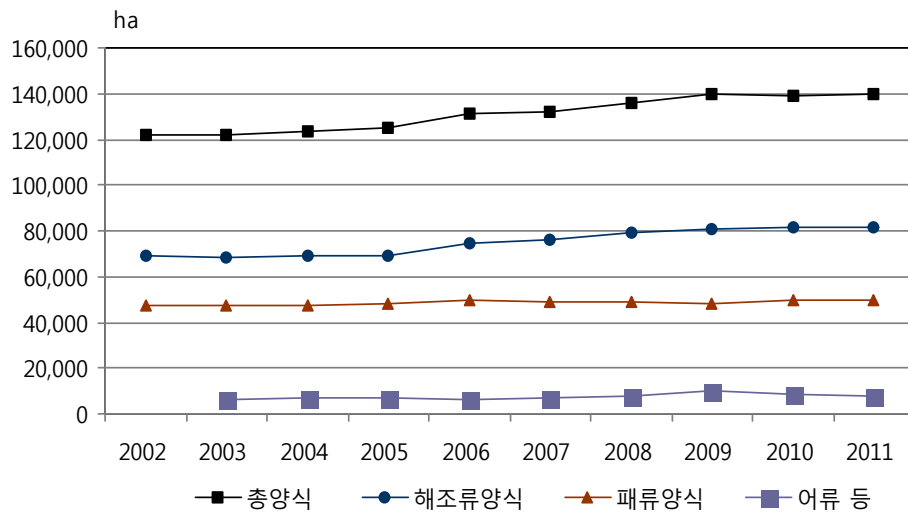
〈그림 5-2〉 양식 면허건수 추이



자료 : 통계청

- 양식 총면적은 2011년 기준으로 139,811ha로 2001년의 122,218ha 비해 14.4%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해조류와 패류 양식 면적이 각각 16.6%, 11.8%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림 5-3〉 양식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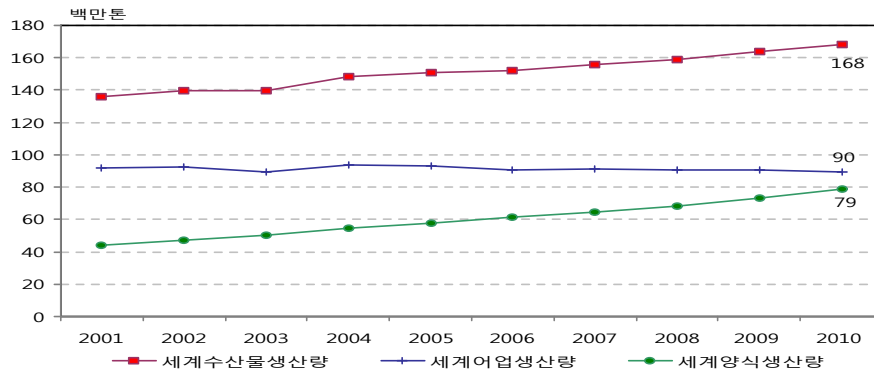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양식 생산 및 가격

(1) 세계 양식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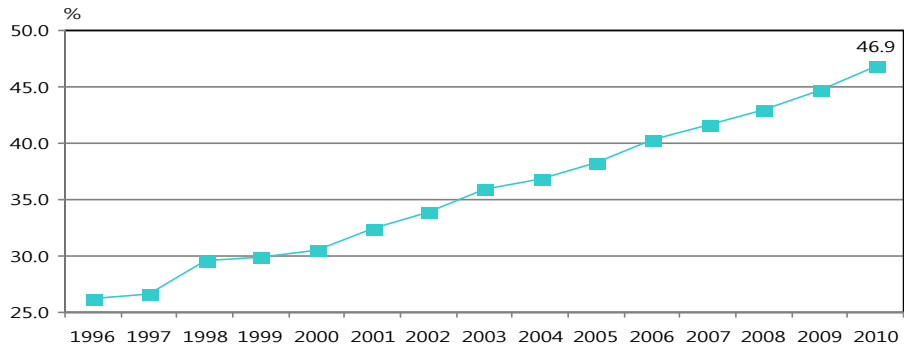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선 어업 생산의 정체 또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양식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2010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6,845만 톤이었다. 이 중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7,894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6.9%를 차지하였다. 세계 양식 수산물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30%를 초과한 이래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5> 참조).
-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세계 각국에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에도 최근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4〉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자료 : FAO

〈그림 5-5〉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점유비 추이



자료 :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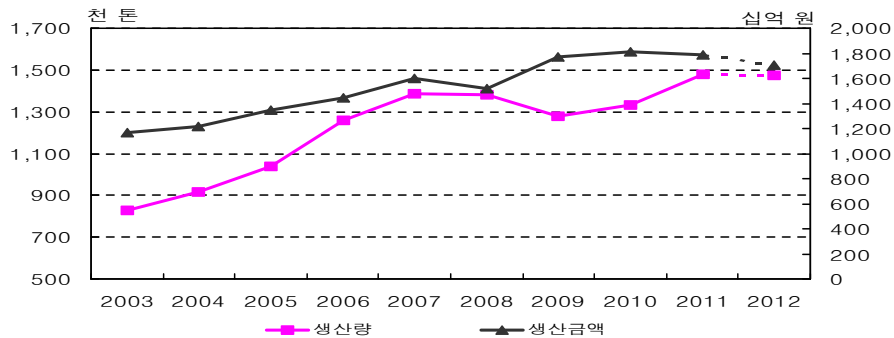
(2) 국내 양식 생산 및 가격 동향

가)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생산액 변화

- 우리나라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5년에는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에는 양식 생산량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 2012년 기준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잠정치는 약 147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양식 수산물의 생산금액 또한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금액 잠정치는 1조 7,09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6〉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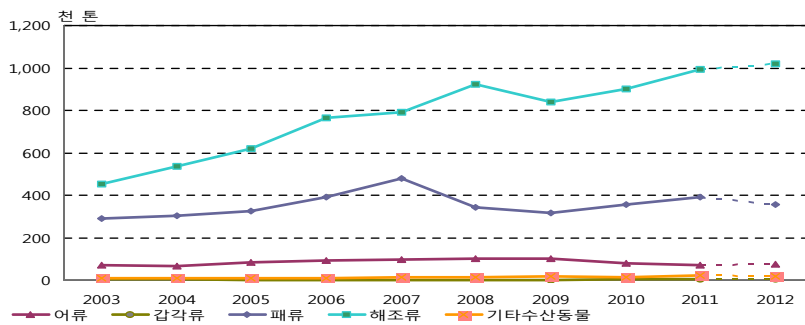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2년 양식수산물 생산량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어류와 갑각류, 해조류는 전년에 비해 각각 2.0%, 2.8%,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패류와 기타수산동물은 각각 8.8%, 16.2% 감소하였다.

〈그림 5-7〉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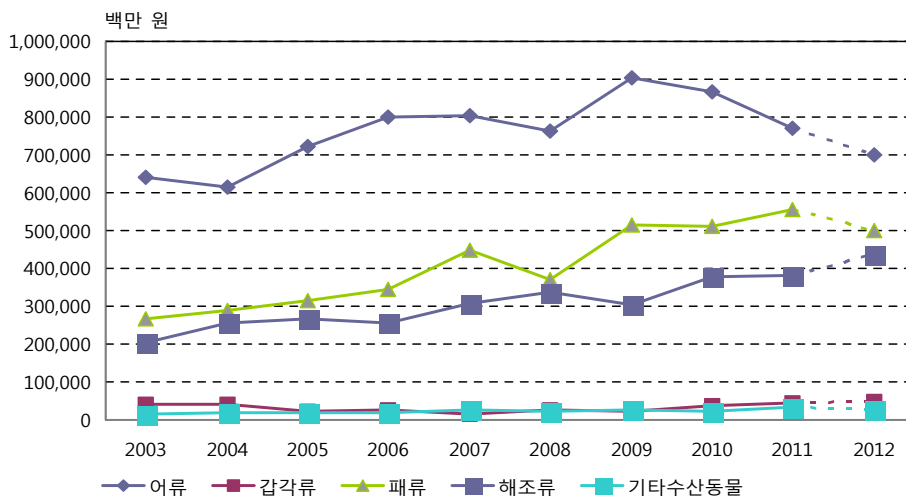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2년 양식수산물 부류별 생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해조류(69.4%), 패류(24.2%), 어류(5.0%), 기타수산동물(1.2%), 갑각류(0.2%)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갑각류와 해조류는 전년에 비해 각각 12.5%, 14.4% 증가했으나, 어류, 패류, 기타수산동물은 전년에 비해 각각 9.0%, 10.5%, 18.1% 감소하였다.
- 부류별 생산금액 점유율은 어류(41.0%), 패류(29.1%), 해조류(25.5%), 갑각류(2.8%) 기타수산동물(1.6%)의 순이었다.

〈그림 5-8〉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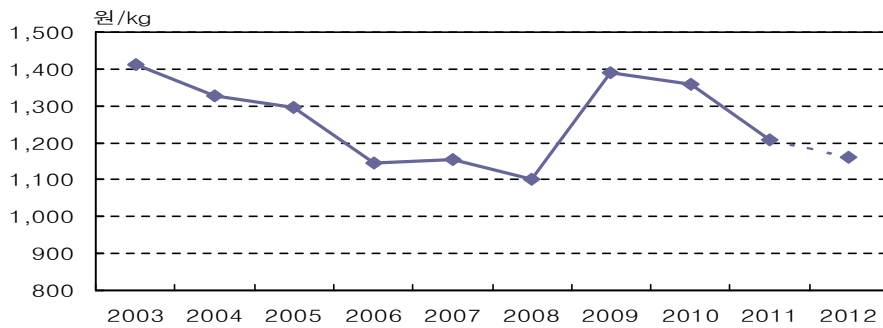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나)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변화

- 2012년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가격은 kg당 1,160원으로, 전년대비 48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양식 수산물 중 생산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생산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생산가격이 높은 어류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5-9〉 양식 수산물의 생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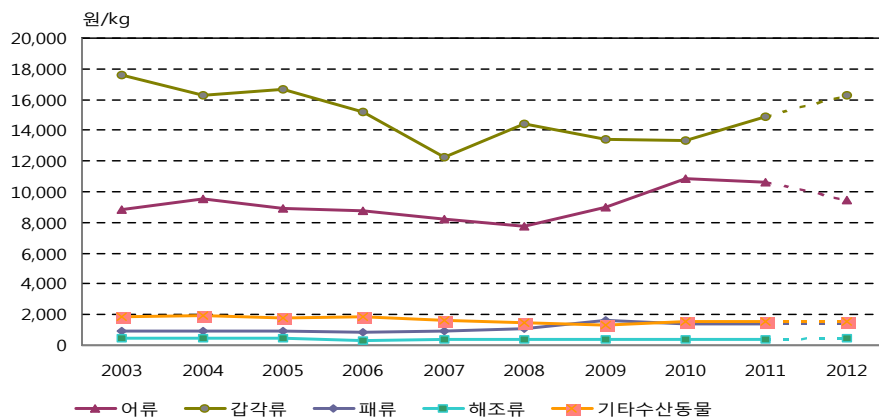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2년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어류와 패류, 기타수산동물의 생산가격은 각각 10.8%, 1.8%, 2.3% 하락했으며, 갑각류와 해조류는 각각 9.4%, 11.5% 상승했다.
- 어류의 경우 2012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던 조피볼락의 영향이 컸으며, 해조류는 미역의 가격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림 5-10〉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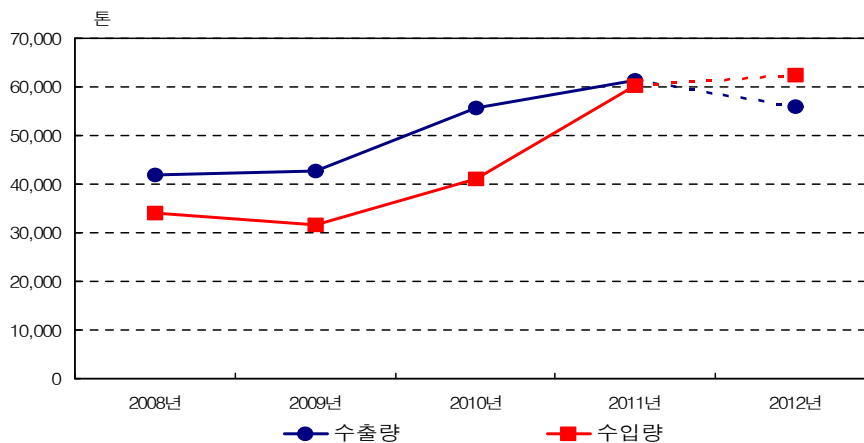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3) 양식 수출입

- 최근 우리나라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출을 보면 2011년까지는 대체로 증가세였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 2012년 주요 양식수산물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8.9% 감소한 5만 5,88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굴 수출 중단으로 인해 패류 수출이 전년에 비해 23.8% 감소한 1만 8,751톤에 그쳤기 때문이다.
- 또한 2012년 주요 양식수산물 수입량은 6만 2,336톤으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지락을 비롯한 패류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1〉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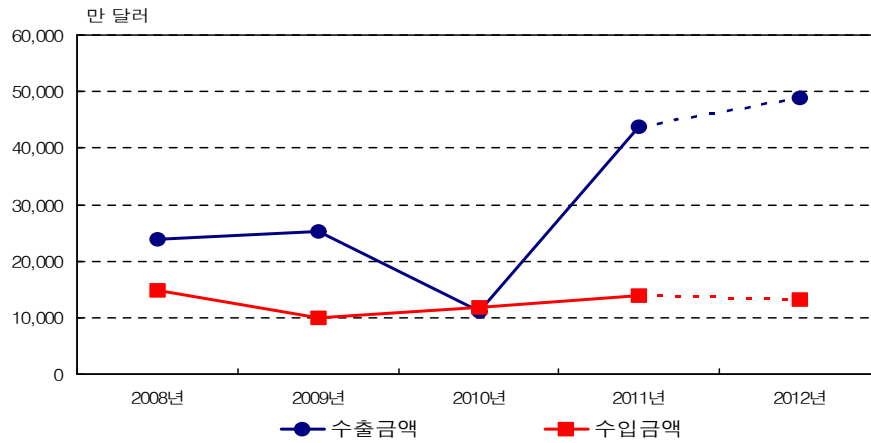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통계」

- 주요 수산양식품목 수출금액은 패류와 해조류 수출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 전년에 비해 11.3% 증가한 4억 8,785만 달러로 추정된다.
- 반면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3.8% 감소한 1억 3,301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2년 국내산 활어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활어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해조류 수입 금액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5-12〉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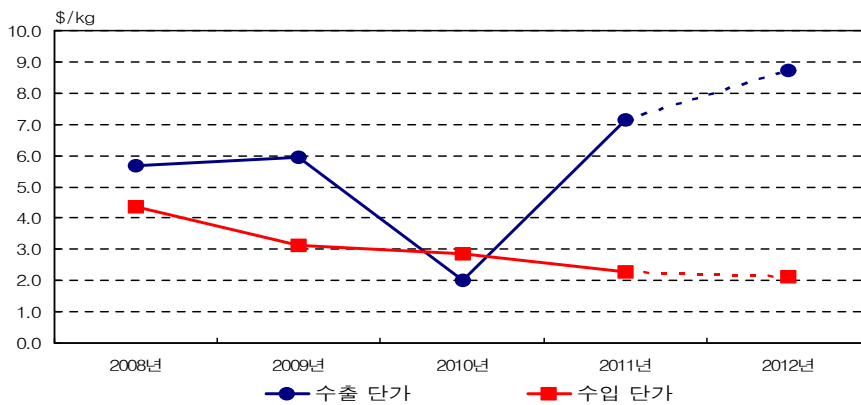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통계」

- 한편 양식 수산물의 평균 수출입 단가를 비교해 볼 때, 수출단가는 kg당 8.7달러로 수입단가 kg당 2.1달러보다 6달러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2년 양식수산물의 수출입단가 변화를 살펴보면, 수출단가는 22.2% 상승했으나, 수입단가는 6.9%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13〉 양식 수산 품목의 수출입 단가 추이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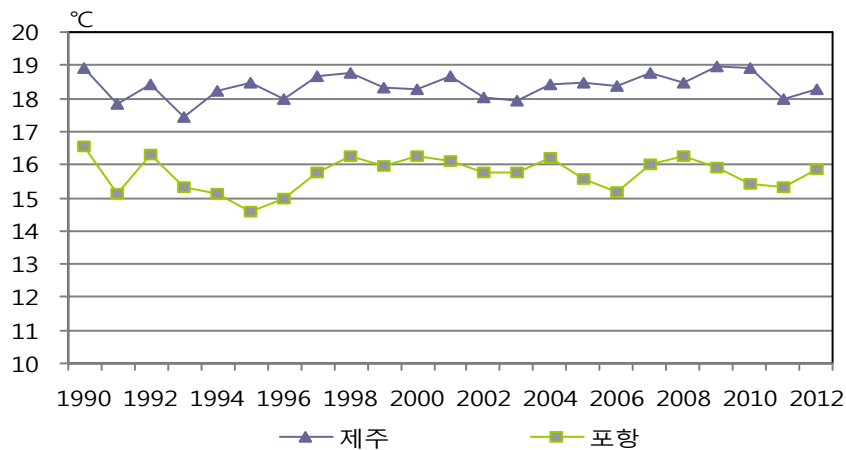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통계」

4) 대내외 양식 환경

(1) 해수온의 변화

- 해수온의 변화는 양식 수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채묘, 입식, 양성 등 주요 양식 기간에 냉수대가 양식장에 유입되거나, 수온이 적정 생육 온도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양식 수산물의 생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 1990년 이후 주요 양식 지역의 수온 변화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제주지역의 경우 수온이 전년에 비해 0.3°C 상승했으며, 포항지역 또한 0.6°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2년에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어류의 폐사가 많았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컸다.

〈그림 5-14〉 주요 양식 지역의 수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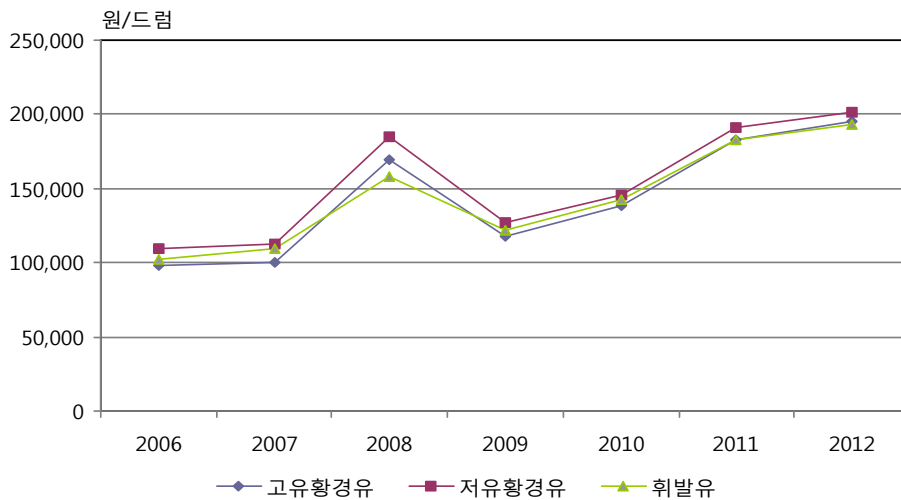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해양자료센터, 연안정지관측자료

(2) 면세유 가격 변화

- 우리나라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휘발유 면세가격은 각각 드럼당 194,733원, 200,943원, 193,000원이었다.
- 한편 국제정세에 따라 단기간 상승 및 하락이 거듭되기는 하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는 등 양식생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15〉 면세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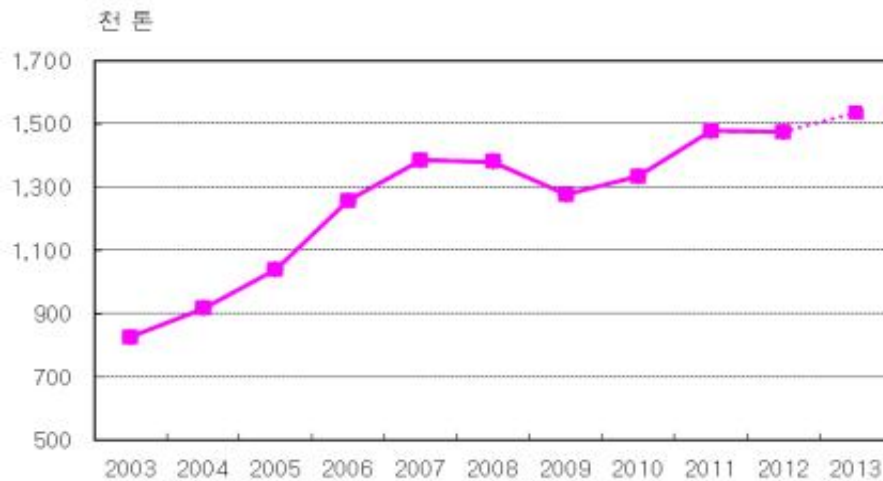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3. 2013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 2013년 천해양식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3% 증가한 약 1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광어, 우럭 등 양식 어류 생산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김, 미역 등 해조류와 굴, 전복 등 패류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5-16〉 2013년 천해양식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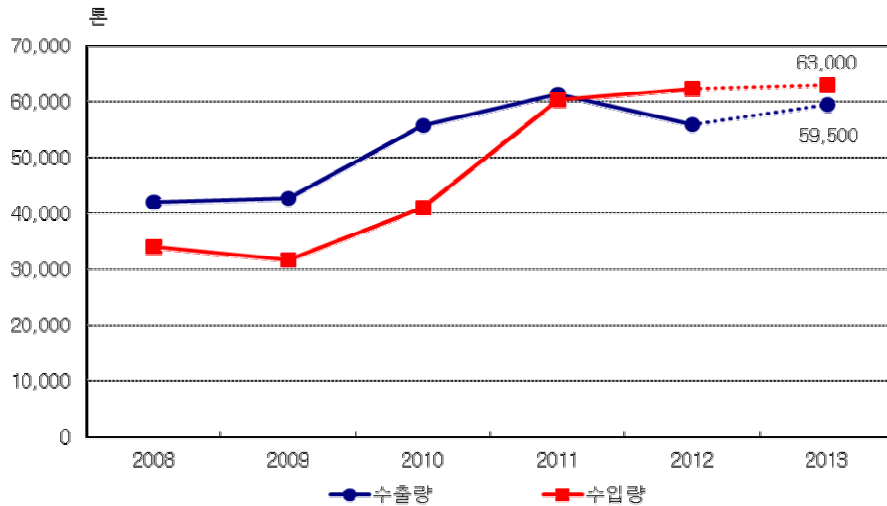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잠정치이고, 2013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3년 국내 천해양식 수산 품목 수출입량은 각각 5만 8천~6만 2천 톤, 6만 3천~6만 5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은 김과 전복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17〉 2013년 천해양식 수출입 전망



주 : 2012년은 잠정치이고, 2013년은 전망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통계」

- 2013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 및 가격 그리고 수출입량을 전망해 보면 <표 5-1>과 같다.
- 우선, 2013년산 김 생산량은 전남 슈퍼김 시설이 늘면서 2012년산(1억 2,503만 속)보다 5~10% 증가한 1억 3,100만~1억 3,800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산 물김 산지가격은 슈퍼김 시설이 많았고, 해황도 좋아 2012년산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출량은 조미김 수출국 다변화로 인해 2012년(3,556만 속)보다 5~10% 증가한 3,900~4,300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2013년산 미역 생산량은 시설량 증가와 더불어 수온 및 해황 여건도 좋아 2012년산(43만 7,440톤)보다 0~5% 증가한 43만 8,000~4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역 산지가격은 여기 초 양성상태가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2012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미역 수출량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12년(11만 3,840톤)보다 13~18% 감소한 9만 4,000~9만 9,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2013년 광어 생산량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12년(3만

9,106톤)과 비슷한 3만 8,000~4만 1,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어 위판가격은 상반기 보험세를 유지하다 하반기 양성물량이 늘어나면서 2012년보다 소폭 하락한 kg당 9,500~10,000원 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어 수출량은 일본의 한국산 광어에 대한 검역 강화로 2012년(3,167톤)보다 소폭 감소한 3,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2013년 우럭 생산량은 입식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2012년(2만 8,185톤)과 비슷한 2만 8,00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럭 산지가격은 지난해 물량 적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럭 수입량은 중국에서의 수입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난해(0톤)에 이어 수입이 없거나 소량 수입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섯째, 2013년 송어 생산량은 양성물량 및 입식량 등을 고려할 때 2012년(3,005톤)보다 1~4% 증가한 3,025~3,120톤 수준이 예상된다. 또한 송어 산지가격은 공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12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어 수입량은 칠레의 수급 사정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최근 3년간 수입 증감률을 고려할 때 2012년(919톤)보다 다소 적은 89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섯째, 2013년 전복 출하량은 지난해와 같은 태풍 피해만 없다면 2012년(8,727톤)보다 5% 증가한 9,2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복 산지가격은 상반기 봄철 출하 증가로 하락이 예상되나, 하반기 여름철 보양식 및 추석 선물용 수요가 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된다. 2013년 전복 수출량은 일본의 활전복 수요 증가로 2012년(1,418톤)보다 10% 증가한 1,6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끝으로, 2013년산 굴 생산량은 잔여시설량, 수하연당 평균 알굴 생산량, 예상 월하량 등을 종합해 볼 때, 2012년산(3만 4,211톤)보다 -1~9% 정도인 33,900~37,400톤으로 예상된다. 또한 굴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2013년 굴 수출량은 FDA 대미 수출 중단의 재개 여부에 따라 수출량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수출 재개가 늦어진다면 2012년(1만 788톤)보다 다소 많은 1만 2,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정상화가 연초에 이루어진다면 작년보다 많

은 1만 5,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 2013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전망(2012년 대비)

품목명	생산	(산지)가격	수출(입)량
김	증가세	하락세	증가세
미역	증가세	하락세	감소세
광어	보합세	하락세	감소세
우럭	보합세	상승세	보합세 (수입량)
송어	증가세	하락세	감소세 (수입량)
전복	증가세	보합세	증가세
굴	증가세	하락세	증가세

2) 이슈

(1) 10대 전략 품목 육성 강화

가) 10대 전략 품목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실현 방안 마련

-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의 100억불 달성을 위한 품목별 단계적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10대 전략품목 육성의 기본전략인 주력 수출분야를 원양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외양식 기지조성을 위한 적지 조사 및 해외 수출 거점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요 조사 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된다.
- 정부는 양식 전략 품목의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양식 어장을 확보하고자 신규 어장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강화해 왔다. 특히, 현재 내만 양식 적지의 70% 이상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양식 전략 품목의 생산 증대를 위한 새로운 국내 어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 신규어장 확보 : 외해 참치 양식어장 480ha, 연안 김 양식어장 1,300ha, 육상 넙치 양식장 60ha

* 기존어장 이용 : 갯벌참굴 양식어장 2500ha, 해삼 양식어장 4800ha

- 그러나 해외양식기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적지 조사나 수출 전략 품목의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실현 가능한 국내 생산량 규모 등을 분석하는 연구 등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따라서 10대 전략 품목별 육성 계획에 적합한 맞춤형 실천 방안이 구체화되어 질 필요가 있다.

<수산부문 10대전 전략 품목별 육성 계획>

- ① 갯벌참굴 : 갯벌을 친환경 양식생산 기지로 조성, 2020년까지 2,500ha에 125,000톤 생산
- ② 해삼 : 7,500ha의 해삼 전문 생산거점 지구 조성, 2020년까지 45,900톤 생산
- ③ 전복 : 양식어장의 재배치 및 외해 중층가두리 설치, 그리고 참전복 육종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35,000톤 생산
- ④ 광어 : 국내외 양식장 확대뿐만 아니라,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 개발을 통해 2012년까지 88,000톤 생산
- ⑤ 참치 : 연안국 협력 강화를 통한 원양 참치 자원 확보와 더불어 20,480ha에 이르는 외해 양식장 확보를 통해 2020년까지 325,100톤 생산
- ⑥ 해조류(김, 미역) : 신품종 개발 및 양식어장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805,600톤 생산과 가공식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조류 부가가치 제고
- ⑦ 새우 :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양식기지 선점,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 확대, 국내 고밀도 유기 양식기법 및 순환여과 양식기법을 이용하여 활새우 생산에 주력, 2020년까지 국내외 포함 약 48,600톤 생산
- ⑧ 뱀장어 : 뱀장어 완전양식을 위한 R&D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실뱀장어 생산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실뱀장어 수출과 국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10,700톤 생산
- ⑨ 능성어 : 3.1조원 수준인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12,300톤 생산
- ⑩ 관상어 : 식용어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점을 이용하여 고급어(해마, 파랑돔 등) 생산기술 확보, 마니아 중심의 내수 시장을 확대 및 거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44만\$의 수출을 2020년까지 1억\$로 증대

나) 종자산업 본격적 육성 추진

- 수산양식업의 기반산업이자 10대 전략품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대 전략품목 종자산업 육성방안’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2,444억 원을 투입해 우량 육종품종 개발, 신품종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종자관측제 도입 및 보급센터 설립 등 종자개발 및 보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7대 추진과제로 ▶맞춤형 종자생산 시스템 구축, ▶수산종자 관측제 도입, ▶우량 수산종자 개발 및 보급, ▶10대 품목 수출 및 해외양식장 개발, ▶R&D 투자확대 및 민간 연구지원,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수산종자산업 관리체계 개편 등이 선정되었다.
- 육종품종 개발 및 새로운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은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가 선행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산·관·학·연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별 클러스터를 통해 실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수산 종자산업은 개발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육성대책이 추진될 경우 국내 종자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계 수산 종자시장에서 선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 수산양식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양식어장 개발 제한 해제 및 양식 품종 자율 선택 본격 시행

- 면허어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칙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8개 양식 품종(전복, 김, 미역, 굴, 어류가두리, 멍게, 미더덕, 홍합)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개발하게 되었다.
- 또한 동 규칙의 개정으로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사이의 거리, 어장의 수심 등 면허처분 대상 요건이 대폭 간소화 되고 양식품종이 삭제되어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의 종류와 방법별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하여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양식어업은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외해양식으로 분류되고 수하식·바닥식·가두리식·축제식·혼합식어업 등으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이 구분되어 품종별(굴, 홍합, 가리비, 진주조개, 피조개, 새조개, 멧게, 미더덕, 어류, 미역, 다시마 등)로 어업인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품종에 한하여 양식이 가능하였다.
- 그러나 이제는 기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 내에서 양식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새로운 복합어업과 혼합양식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 이에 2013년부터 지자체별 양식어장 개발에 있어 양식방법별 양식품종의 자율 선택이 부분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통계」

수협중앙회, 통계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자료

한국해양자료센터, 연안정지관측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양식어업 동향」, 각호 2005~2012

FAO, 통계자료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장홍석* · 안재현** · 마창모** · 한덕훈**

목 차

- | | |
|-------------------|------------------|
| 1. 서론 | 4) 경영 및 고용 현황 |
| 2. 2012년의 원양산업 동향 | 5) 해외 원조 및 자본 진출 |
|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 3. 2013년 전망과 이슈 |
| 2) 생산 및 수출 동향 | 1) 전망 |
| 3) 해역별 조업 현황 | 2) 이슈 및 대책 |

1. 서론

- 원양산업은 외형적으로 2012년에 비해 약간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엔고 등에 의한 호기를 맞고 있지만, 원양산업의 생산구조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서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 즉, 대외적으로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여전히 규제 일변도이며, 대내적으로는 자본재의 노후화에 따라서 현재의 생산 규모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적 면에서 원양산업은 생산액과 생산량 모두 2011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에 달러와 엔화의 가치 변화, 일본 다량어 시장의 변화와 소비 위축 등이 반영될 경우에는 우리의 통제 밖의 요인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와중에 FAO에서는 2021년 장기 전망을 내놓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수출 100억 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 이는 우리 원양산업에 이러한 양대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 부연구위원, ** 전문연구위원

‘공급력 확대’이다.

- 그러나 지금 원양산업계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내적인 경영 부담 등과 같이 공급력 확대를 위한 재투자가 쉽지 않고, 업체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경영행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 다행인 점은 2013년에 ‘원양총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정부 차원에서 원양산업계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 도입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원양산업의 2012년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2013년을 전망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12년의 원양산업 동향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 2012년에 개최된 제 67차 UN 총회에서 체결된 수산결의안의¹⁾ 주요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제 66차 수산결의안에서와 같이 세계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관점에서 지속적인 어업과 개별국 식량안보를 위해 천연수산자원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
 - 둘째, EU와 호주 등은 제안한 “The Future We Want”를 수산결의안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부분이 채택되었다.²⁾
 - 셋째, 미국, EU, 노르웨이 등은 어업행위의 형사범죄화 범죄(살인,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를 INTERPOL을 통해 척결하려는 시도가 제안되었으나 회원국

1) 기본적으로 수산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단 수산결의안의 문구로 규제사항이 들어 오면 향후 국제수산규범의 제정과 지역수산기구(RFMO)의 보존조치 등에서 그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국제수산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이 문건은 기후변화, 환경, 수산자원의 보호, IUU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제안된 바 있다.

의 반대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제안국은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 넷째, 저층어업규제는 현안이 유지되었다. 2015년에 저층어업 관련 이행평가가 검토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의 보완조치와 자료수집 등 이행 상황(국내 보완조치와 자료 수집)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2)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국제적으로 한 어종으로 가장 많은 지역수산물기구³⁾ 가지고 있고 우리 원양어획량의 절반에 1차산물 중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랑어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올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는 우리나라 다랑어 생산량의 90% 이상이 생산되는 남태평양 수역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지역수산물기구로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다랑어 자원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제9차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의 연례회의에서는,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보존관리조치를 논의하였고, 조업국과 연안국의 이견대립으로 2013년에 한하여 적용할 임시조치만 채택하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에는 어류군집장치(Fish Aggregating Device:FAD)의 사용금지(7~9월, 예외 없음), 동 기간 중 중 선박감시장치(VMS)에 의한 30분 간격 선박위치만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 한편, 눈다랑어의 자원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연례 총회에서는 더 강화된 보존조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4~2017년 동안의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⁴⁾
 - 연승어업의 눈다랑어 조업쿼터는 2012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한국과 대만은 2011년 쿼터를 모두 소진하여 2%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여 우리는 15,014톤에서 300톤 삭감키로하였다.

3) 전 세계 다랑어자원을 관리하는 5대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의 2011년 논의 동향은 2012년 다랑어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전망을 위해서 2011년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2013년 8월에 일본에서 작업반회의 결과

* 단, 중국은 2012년 수준 대비 10% 감축 의무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는 참다랑어 TAC, 국별 쿼터의 재조정 및 동부참다랑어 보존조치의 개정, 가나 합작선사의 해상전재 문제, 북방황새치, 남방날개다랑어 등 주요 어종의 쿼터 설정, 우리나라 이행관련 보고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ICCAT는 공동조업 후 이송 중 죽은 참다랑어에 대해 기재하고, 이를 자국의 쿼터에 반영기로 하였다. 또한 이송활동 중 죽은 참다랑어의 전재는 실제 어획한 선박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12년도 과학위원회는 동부대서양 및 지중해 참다랑어 자원평가 결과 자원회복 조짐이 있다고 평가되어 TAC를 13,500톤 또는 현재 수준인 12,900톤으로 설정해도 2022년까지 목표한 자원회복 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권고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는 기존 TAC(12,900톤)의 0.6%인 77.53톤을 쿼터로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 TAC가 13,400톤으로 늘어 80.53톤(0.6%)을 할당받았다. 또한 우리 연승어선 척수는 14척(작년 동일)으로 결정되었다.
 - 남방황새치는 2013년 자원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2013년도에 TAC 및 국별 쿼터를 결정기로 했기 때문에 TAC는 전년과 같은 15,000톤이며, 이 중 우리 쿼터는 50톤을 2013년에도 유지하였다.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제16차 연례회의에서 기 채택된 IOTC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태, 북한의 협력적 비회원국 지원신청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2년도부터 시행기로 한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에 대한 보존조치와 바닷새 및 상어 등에 대한 부수어획 경감조치, 어획문서제도(CDS) 등 신규 보존조치 제안서 및 결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 기존의 연승어업 바다새 저감방식 중 line weighing 방식 등을 남위 25도 이남 수역 전체에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무화하였다.
 - FAD를 사용하는 선망선 및 bait 조업선은 2013년 말까지 사무국에 FAD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소형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포획을 최소화하고, FAD 사용과 관련된 비목표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 등을 포함토록 결의하였다.
 - 한편, 현재 국내 원양업계의 인도양 수역 생산 비중은 1% 미만으로 낮아, 규제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2012년 제7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방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제19차 연례회의에서는 2012~2014 TAC(총허용어획량) 및 국별 쿼터를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3년 남방참다랑어 TAC는 10,949톤으로 전년보다 5백 톤 늘어났으며, 우리나라 기준쿼터는 911톤에서 948톤으로 4% 늘어났다.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지난 해 개최된 제83차 총회에서 선망선 어획능력(어창용적) 및 금어기간, 연승선 어획쿼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 결과, 분담금 산정공식(2013~2017년 적용), 어창 봉인 절차, 어창 용적 임대 및 양도에 관한 절차, 데이터 기밀 유지 정책, 가용한 최선의 과학에 관한 권고, 참다랑어 보존프로그램 등 10개 부문을 결의·확정하였다.
 - 다랑어보존프로그램(다년)에서는 동부 태평양의 다랑어 조업 회원국들은 2012~2013년 TAC를 10,000톤으로 제한하되, 2012년 어획량은 5,60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동부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 전력이 있는 회원국은 연간 최대 500톤까지는 어획을 허용하며, 초과어획 방지를 위한 감시로 보고를 15일 마다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현행 해상전재 규정에는 상어류도 생태계 관련종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3)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 2012년 11월 12일~21일까지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에는 양국의 주장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어 2013년 1월~2월 중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한국은 그동안 동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러시아의 IUU 통제(수입신고 등)를 강화하는데 협력해 왔으나 이번 위원회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계류(대게, 왕게 등)에 대한 ‘제3국 수입에 대한 입항 전 원산지 증명 확인’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⁵⁾

5) 특히, 일본을 거쳐 수입되는 러시아산 계류 중에 밀어(密漁)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국을 거쳐 반입되는 계류를 입항 및 하역 전에 원산지 증명서 유무를 확인하여 없을 경우에 입항을 금지시키는 것은 다른 화물에 대한 입항 및 하역도 금지되므로 불가항력이라는 우리측 주장을 러시아는 묵살했다(이는 GATT 조항은 한국

- 또한 한·러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등과 관련한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양측 발표가 있었는데, 러시아 측은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입지로서 나훗카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그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다.
-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결렬 상태로 가면서 우리 러시아 명태조업 선사 및 관련 생산자들 2013년 어기 조업에 대한 불안감과 국내 명태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동 위원회는 1월~2월에 거쳐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생산자(명태원양선사 등)가 적극적인 협력 하에 러시아와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2012년 명태 재고량이 평년에 비해 많고 현재 명태 가격이 예년 수준보다 한참 하회하고 있으며 러시아 현지 합작물량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태 수급에 대한 여파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4)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 한국과 중국은 2012년 10월 11일 한국 제주도에서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 2013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양국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척수는 1,600척(6만 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에 합의하였다.
- 한국 어선의 중국 EEZ 입어척수는 1,600척으로 2012년과 동일하였으며, 쿼터는 2012년 62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이 줄었다.
 - 저인망류는 6,165톤에서 5,665톤으로 줄었으며, 선망은 10,500톤에서 10,000톤으로 줄어서 2012년에 비해 총 2천 톤이 줄었다.

측 주장에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6-1〉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단위 : 척, 톤

업 종	2012		2013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00	62,000	1,600	62,000	-	△2,000
저인망류	187(-)	6,165	187(-)	5,665	-	△500
선 망	173	10,500	173	10,000	-	△500
자망류	167	4,742	167	4,242	-	-
안강망	87	2,180	87	2,180	-	-
낙시류	881(285)	33,624	881(285)	33,624	-	-
통발류	105(-)	4,789	105(-)	4,289	-	△500
운반선	13	-	13	-	-	-

주 : ()는 한국어선은 북위 27도 이남의 입어 척수이고, 일반어획물운반선은 ‘합계’ 척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각 연도.

- 이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2012년 보다 입어척수 50척,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각각 감축하였으며, 특히 어획강도가 강한 저인망(타망) 28척과 유망(자망) 18척을 각각 감축하였다.

〈표 6-2〉 중국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단위 : 척/톤

업 종	2012		2013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50	62,500	1,600	60,000	△50	△2,500
타 망	812	40,479	784	39,079	△28	△1,400
- 쌍타망	798	39,896	770	38,496	△28	△1,400
- 단타망	14	583	14	583	-	-
위 망	92	10,003	88	9,108	△4	△895
유 망	691	7,877	673	7,672	△18	△205
우 조	55	4,141	55	4,141		-
운반선	60	-	58	-	△ 2	

주 : ()는 북위 33도 45분이남의 대형트롤금지구역 내측 조업 척수이고, 일반어획물운반선은 ‘합계’ 척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각 연도.

- 이외에도 조업조건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중국 선망(위망)의 자동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 보존을 시범 실시하고, 중국 유망(자망)어선에 대하여는 2012년도 어구실명제 도입에 이어 2013년 8월 1일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시행하여 변형된 어구어법 사용 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 아울러 양국은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엄중위반행위 어선 단속·처벌강화,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 구축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불법조업 예방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의 구체적인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집단으로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6) 기타 지역기구 동향

-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는 남동대서양공해수역에서의 전갱이, 돔류, 이빨고기 등 비참치류를 관리하는 기구로 2012년 11월에 제8차 과학위원회를 한국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 총괄적인 보존이행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규어종에 대한 TAC 설정 문제도 논의하였다.
 - 또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트롤어업에서 VME종에 대한 임계수준을 절반수준으로 수정하여 살아있는 해면 300kg이상 또는 살아있는 산호 30kg, 신규조업수역인 경우 살아있는 해면 200kg, 살아있는 산호 30kg으로 정의하도록 제안되었다.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는 2012년 9월 제34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어종별 쿼터 TAC를 설정하여 한국의 쿼터는 새우 96톤,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으로 결정되었다.
-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는 남태평양공해수역에서의 전갱이, 오렌지러피 등과 같은 비참치류를 관리하는 기구로 2012년 1월에 제3차 설립 준비회의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하였다.
 - 제3차 설립준비회의에서는 주요 관리어종인 전갱이 자원의 급감으로 2010년 기준 각국 어획량의 40% 수준을 감축하는 어획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어업관리를 위한 어획실적 및 VMS 자료제출, 옵서버 승선 등이 강화되었다.

- 한국은 2011년 1월 협약문에 서명하였으며, 2013년 1월 28일에 뉴질랜드에서는 제1차 위원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남빙양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빙양의 공해어족자원인 이빨고기, 크릴, 빙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제31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88.1해구 및 88.2해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신청한 이빨고기 시험조업(6척)을 승인하였고, 58.4.1해구에 대한 총 84톤의 과학조사 어획량을 승인받았다. 또한 한국 트롤어선 3척의 크릴조업 신청도 승인되었다. 또한 남빙양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협약 수역내 불법어업 선박 잠재목록 등재 협상 결과 한국어선을 IUU 목록에 등재하지 않기로 하였다.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는 북태평양공해수역의 돔류, 꽁치 등 비참치류 관리를 목적으로 2012년 8월 제3차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의 사무국 유치여부는 2013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산 및 수출 동향

(1)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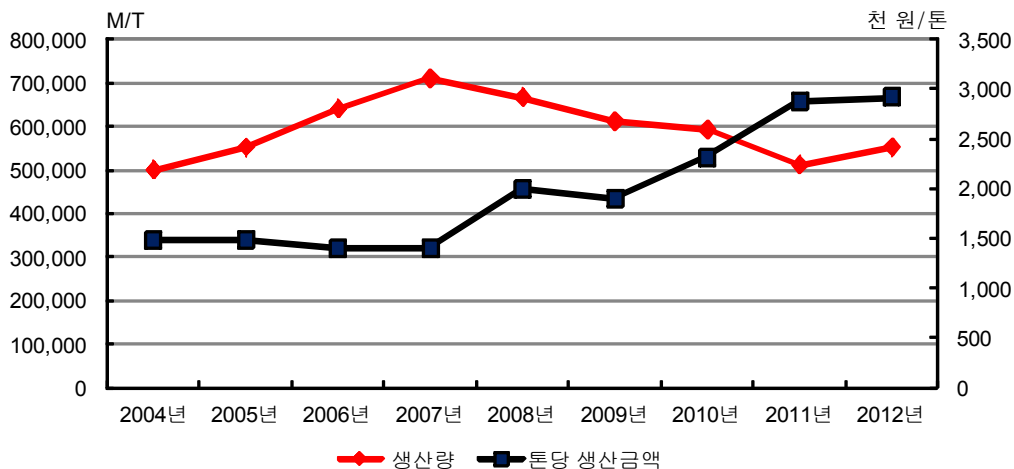
-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50만~70만 톤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는 2007년 70만 톤을 기록한 이래 감소추세를 지속하였으나, 2012년에는 작년 대비 약 5.5% 증가한 53.8만 톤에⁶⁾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중서부태평양 조업어장의 어황이 양호하여 원양수산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양선망어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식통계가 집계된 10월 말 현재 원양선망어업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 원양채낚기어업은 태평양 수역의 어황은 부진했지만, 대서양 포클랜드 수

6) KMI 추정치

역에서 오징어 주 어기인 상반기 해황이 양호하여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약 16% 늘었다. 원양트롤어업은 북양트롤과 해외트롤 모두 어황이 나빠 작년 대비 생산량이 약 11% 감소했다.

- 톤당 생산금액은 1998년에 100만 원, 2010년에는 200만 원을 넘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작년보다 증가한 290만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톤당 생산금액의 상승은 명태 수요 감소와 오징어 생산 증가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은 다랑어류의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림 6-1〉 원양 생산량과 단가 추이



주 : 2012년 생산 실적의 경우, 10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1~12월 생산 실적은 2011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2) 주요 어종의 생산 실태

-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명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7%씩 증가했고, 다랑어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오징어와 꽁치의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오징어와 꽁치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18.5%, 15.1%로 나타났다.

- 다랑어류는 자원보호를 위한 연안국들의 어획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1년 들어 생산량이 주춤했으나, 전 세계적인 참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 명태의 경우, 한·러 입어협상에서 확정된 2012년 쿼터는 40,001톤으로 2011년 쿼터 50,001톤보다 감소했으며, 생산량도 작년보다 17.1% 줄었다. 오징어는 태평양 해역 어황은 다소 부진했지만, 대서양 포클랜드 어획량은 올해 크게 증가했다.
- 주요 어종의 적당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랑어류는 최근 5년간 어선척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당 생산량은 2011년에 생산량이 줄면서 크게 감소했다가, 2012년에 생산량이 다시 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당 생산량도 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태의 경우에 2012년 쿼터 축소로 작년보다 생산량은 줄었으나, 최근 5년간 출어척수가 증가추세이므로 연평균 적당 생산량도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주요 어종별 생산량 및 적당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척,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성장률
다랑어류	생산량	286,889	327,181	319,712	244,937	291,585	0.4
	출어척수	187	182	179	179	179	-1.1
	적당 생산량	1,534	1,798	1,786	1,368	1,629	1.5
명태	생산량	27,980	38,996	46,794	48,793	40,464	9.7
	출어척수	6	5	5	7	7	5.0
	적당 생산량	4,663	7,799	9,359	6,970	5,781	5.5
오징어	생산량	181,780	84,652	65,416	70,130	80,073	-18.5
	출어척수	30	31	30	31	31	1.0
	적당 생산량	6,059	2,731	2,181	2,262	2,583	-18.5
꽂치	생산량	29,591	22,001	21,360	18,068	15,404	-15.1
	출어척수	20	17	17	17	17	-4.0
	적당 생산량	1,480	1,294	1,256	1,063	906	-11.5

주 : 2012년 생산량은 잠정치이며, 2012년 어선척수는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1년 말 어선척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단, 꽂치의 척수는 꽂치붕수망과 오징어채낚기 겹잡 척수이고, 명태척수는 합작선이 제외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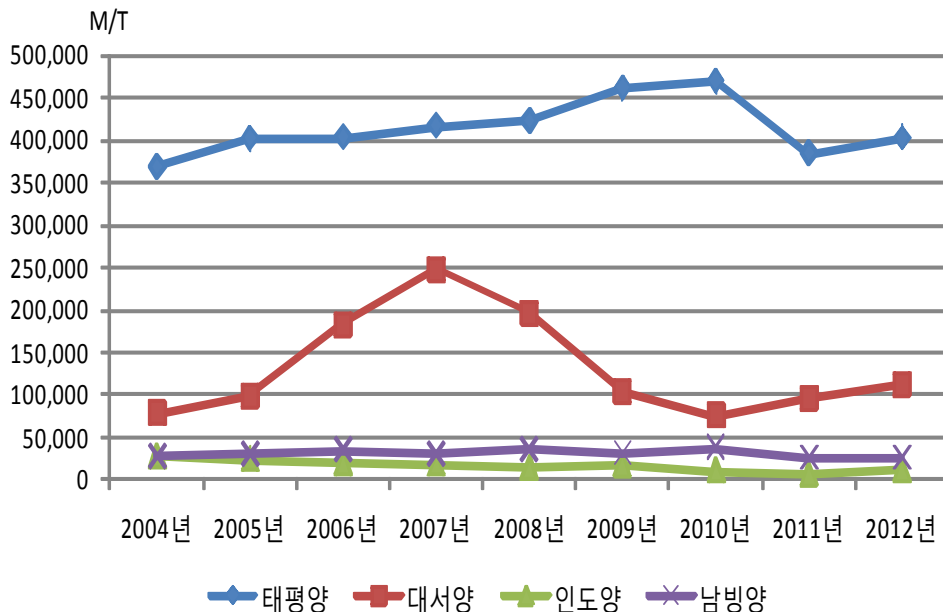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3) 해역별 생산 실적

- 최근 몇 년간 주요 해역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대서양 어장의 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2007년 이후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1년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태평양 어장의 생산량은 2004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11년에 크게 감소했고, 2012년 들어 다랑어 생산량 증가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서양 어장의 생산량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다랑어 및 오징어 생산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양과 남빙양의 생산량도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해역별 생산 추이



주 : 2012년 생산 실적의 경우, 10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1~12월 생산 실적은 2011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표 6-4〉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단위 : 천 톤, %

구 분	2011년		2012년		주요 생산어종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합 계	511	100.0	552	100.0	다랑어류, 오징어류, 명태, 크릴새우 순
태평양	384	75.2	402	72.9	다랑어류, 명태, 오징어류, 꽁치 순
대서양	95	18.6	112	20.3	오징어류, 민어류, 다랑어류 순
인도양	7	1.2	11	2.1	다랑어류, 오징어류, 돔류 순
남빙양	25	5.0	26	4.7	크릴새우

주 : 2012년 생산 실적의 경우, 10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1~12월 생산 실적은 2011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4) 주요 어종의 수출 실태

- 원양어획물의 수출은 주요 어종의 수출량이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수출금액이 2004년 이후 해마다 6.6%씩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원양어업 어종별 수출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합 계	다랑어류	새우류	오징어류	저서어류	기 타
2004년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2005년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2006년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2007년	471,044	276,491	10,500	66,371	112,873	4,809
2008년	505,689	332,080	6,245	51,556	109,219	6,589
2009년	539,688	355,428	13,693	44,574	124,540	1,453
2010년	658,297	477,655	12,118	53,161	111,705	3,658
2011년	675,761	441,626	15,340	62,853	153,174	2,768
2012년	660,615	467,277	12,294	53,556	126,020	1,468
연평균성장률	6.6	7.6	24.4	-0.4	8.0	-21.8
전년 대비	-2.2	5.8	-19.9	-14.8	-17.7	-47.0

주 : 2012년 수출실적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한국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2012.

- 2012년 잠정치 기준 원양수산물 수출은 횡감용 다랑어류, 새우류 및 저서어류 등의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주요 원양산 수출품인 통조림용 다랑어류 수출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물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수출금액은 통조림용 다랑어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에는 주요 원양산 수출품목중 다랑어류 수출이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다랑어류 중 통조림용은 47.0% 증가한 반면, 횡감용은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새우류, 오징어류, 저서어류 등의 수출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각각 19.9%, 14.8%, 17.7% 감소했다.

3) 해역별 조업 현황

- 2012년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3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21개국(기지는 21개)에 총 359척이 진출해 있다.
- 태평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59.6%에 해당하는 214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다.
- 대서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36.8%에 해당하는 132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3대양 중 2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기지수로는 47.6%(10개)로 태평양 수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인도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3.1%에 해당하는 11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 해역별 주요 업종의 진출 현황을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태평양은 다랑어 연승 및 선망, 북양트롤, 콩치 봉수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대서양은 오징어채낚기와 기지트롤의 비중이 높다.

〈표 6-6〉 대양별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해역	국가 수	기지 수	업종별 어선척수							
			계	다랑어 연승	다랑어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 트롤	기지 트롤	꽁치 봉수망	기타
합계	21	21	359	149	30	31	7	100	17	25
태평양	11	9	214	126	28	-	7	32	17	4
대서양	8	10	134	16	2	31	-	64	-	21
인도양	2	2	11	7	-	-	-	4	-	-
비중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태평양	52.4	42.9	59.6	84.6	93.3	-	100.0	32.0	100.0	16.0
대서양	38.1	47.6	37.3	10.7	6.7	100.0	-	64.0	-	84.0
인도양	9.5	9.5	3.1	4.7	-	-	-	4.0	-	-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1) 태평양 해역

- 태평양 해역은 11개 국가의 9개 기지에서 총 214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어선 척수는 2011년에 비해 3.9% 늘었다.
- 태평양 해역은 어선의 증감추세가 국가에 따라 다른데, 어선 척수가 증가한 해역(평균 증가율 3.9% 보다 더 늘어난 해역)은 러시아(부산 기지), 솔로몬(Honiara 기지), 베트남(Kampong 기지) 등이며, 감소한 지역은 인도네시아(Bitung 기지), 피지, 페루(Callao 기지) 등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 뉴질랜드, 캄보디아, 키리바티, 파푸아뉴기니, 타히티, 마이크로네시아 등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7〉 태평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1년	2012년	증감률
인도네시아	AMBON	기지트롤	9	10	11.1
	BITUNG	기지트롤	9	8	-11.1
한국(러시아)	BUSAN	북양트롤	5	7	40.0
		꽁치붕수망	17	17	0.0
		기타	2	2	0.0
뉴질랜드	CHRISTCHURCH	기지트롤	5	5	0.0
	TIMARU	기지트롤	7	7	0.0
		기타	1	1	0.0
캄보디아	KAMPONG	기타	1	1	0.0
피지	-	다랑어연승	80	76	-5.0
키리바티	-	다랑어선망	5	5	0.0
파푸아뉴기니	-	다랑어선망	8	8	0.0
타히티	-	다랑어연승	40	40	0.0
솔로몬	HONIARA	다랑어연승	0	10	-
		다랑어선망	7	7	0.0
베트남	HAIPHONG	기지트롤	1	2	100.0
페루	CALLAO	기지트롤	1	0	-100.0
마이크로네시아	PONAPE	다랑어선망	8	8	0.0
합 계(총 359척 중 59.6%)			206	214	3.9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2) 대서양 해역

- 대서양 해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연안국을 중심으로 8개국(10개 기지)에서 총 130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어선 척수는 2011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 대서양 해역에서의 주요 조업 대상국은 앙골라, 포클랜드,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이다.
- 우리의 조업 어선 척수가 늘어난 국가는 앙골라, 가봉, 포클랜드, 기니, 기니비사우, 남아공 등이며, 주로 다랑어연승과 기지트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국가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이다.

〈표 6-8〉 대서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1년	2012년	증감률
앙골라	LUANDA	다랑어연승	0	13	-
		기지트롤	6	7	16.7
가봉	DAKAR	기타	3	4	33.3
포클랜드	STANLY	오징어채낚기	30	31	3.3
		기지트롤	12	13	8.3
기니	CONAKRY	기지트롤	14	21	50.0
		기타	3	2	-33.3
기니비사우	BISSAU	기지트롤	12	12	0.0
		기타	2	1	-50.0
남아공	CAPE TOWN	다랑어연승	0	3	-
라이베리아	MONROVIA	기지트롤	3	0	-100.0
시에라리온	FREETOWN	기지트롤	10	7	-30.0
		기타	3	4	33.3
수리남	PARAMARIBO	기지트롤	1	1	0.0
공해	MONTEVIDEO	기지트롤	3	2	-33.3
		기타	10	9	-10.0
기타		다랑어연승	16	0	-100.0
		다랑어선망	2	2	0.0
합 계(총 359척 중 36.8%)			130	132	1.5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3) 인도양 해역

- 인도양 해역은 오만과 소말리아에서 기지트롤, 모리셔스에서 다랑어연승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에 비해 조업 어선 척 수가 35.3% 줄었다.
 - 오만의 기지트롤 어선은 더 이상 조업을 하지 않고, 소말리아의 기지트롤은 1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해역의 다랑어연승 어선 13척은 완전히 철수했고, 모리셔스에서 새롭게 다랑어연승 7척이 조업을 시작했다.

〈표 6-9〉 인도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1년	2012년	증감률
오만	MUSCAT	기지트롤	1	0	-100.0
모리셔스	PORT LOUIS	다랑어연승	0	7	-
소말리아	SALALAH	기지트롤	3	4	33.3
기타		다랑어연승	13	0	-100.0
합 계(총 359척 중 3.1%)			17	11	-35.3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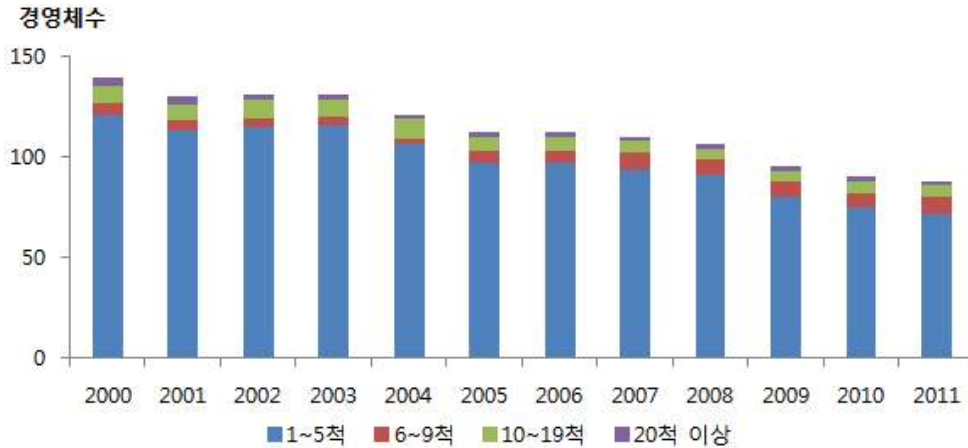
4) 경영 및 고용 현황⁷⁾

(1) 어선 보유 척수별 경영체 현황

- 원양어업 경영체는 2010년에 90개에서 2011년에는 88개로 2개(22%)가 줄었다.
 - 특히, 경영체 수의 감소가 현저한 그룹은 어선을 1~5척 보유한 소규모 경영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동 그룹은 동기간에 75개에서 72개로 5개(4.0%)가 줄었다.
- 여기서의 문제점은 원양어업 경영체가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영세 경영체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7) 통계적인 한계로 경영 및 고용 현황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6-3〉 원양 어선보유 척수별 경영체 추이



자료 : 상계서

(2) 어선 척수 현황

- 원양어업 경영체가 줄어든 반면에 원양어선 척수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353척에서 359척으로 6척(1.7%)이 늘었지만, 신조선이 아닌 노후어선의 증가에 그쳤다.
 - 어선이 늘어난 업종은 북양트롤(5척에서 7척), 기지트롤(97척에서 100척), 오징어채낙기(30척에서 31척)이지만, 이 중 기지트롤 1척(선령: 10년~2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척은 모두 20년 이상된 노후어선이었다.
 - 상대적으로 노후화된(21년 이상) 어선 척수는 2011년말에 336척으로 93.6%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말 353척 중 323척(93.2%)에 비해 23척이 늘어난 셈이다.
- 즉, 원양어선의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어려운 현실은 그나마 노후어선으로 구분되지 않는 20년 이내의 어선 수가 23척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원양에서 경쟁국과의 생산성 결핍과 안전 조업의 문제를 넘어 원양의 존폐를 가늠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표 6-10〉 업종별 어선 척수 및 선령 현황(2010년 말)

단위 : 척

업종별	합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합계	359	3	2	12	6	149	54	133
다랑어연승	149	-	-	5	2	115	19	8
다랑어선망	30	3	2	1	1	4	7	12
북양트롤	7	-	-	-	-	2	1	4
기지트롤	100	-	-	3	2	8	18	69
오징어채낚기	31	-	-	-	-	11	4	16
꽁치붕수망 (꽁치·오징어겸업)	17 (16)	-	-	-	-	4 (4)	2 (2)	11 (10)
모선식외줄	11	-	-	-	-	1	-	10
통발·저연승겸업	11	-	-	3	1	2	3	2
저연승	3	-	-	-	-	2	-	1
비중	100.0	0.8	0.6	3.3	1.7	41.5	15.0	37.1

자료 : 상계서

(3) 어선원 현황

- 원양어업 어선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841명에서 2011년 현재 6,593명으로 연간 3.1%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어선원은 동기간 중에 2,145명에서 2,053명으로 매년 1.1%씩 줄어든 반면에 외국어선원은 3,696명에서 4,540명으로 매년 5.3%씩 늘고 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원양어선원 수에서 차지하는 외국어선원의 비중도 동기간 동안에 63.3%에서 68.9%로 5.6%p 늘어난 것으로 나와 외국어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늘고 있다.

〈표 6-11〉 연도별 원양어업 어선원 고용 현황

단위 : 명, %

업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어선원	2,145(36.7)	1,897(34.6)	1,928(36.0)	1,892(32.0)	2,053(31.1)	-1.1
외국인어선원	3,696(63.3)	3,586(65.4)	3,435(64.0)	4,006(68.0)	4,540(68.9)	5.3
합계	5,841	5,483	5,363	5,898	6,593	3.1

자료 : 상계서.

5) 해외 원조 사업 및 자본 진출

- 해외 원조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이용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양자간의 원조사업이 공여국 입장에서 수원국과의 좋은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 특히 원양산업이 해외 연안 개도국의 어장에서 조업을 하거나 수산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양자협력은 우리나라 국적선의 조업 환경에 도움이 되어 왔다.
- 연안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물자원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연안 개도국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 특히 한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추진하였던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수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억원의 예산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남태평양 바다목장화 사업, 스리랑카와 탄자니아에서의 수산양식 개발사업 등 수산관련 원조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된 이후에도 ‘포스트 여수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산부문의 ODA 사업은 KOICA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수산부문 ODA 사업의 규모는 총 40억 원 수준이다.
 - KOICA의 ODA 사업은 크게 초청연수사업 7개 과정과 프로젝트 사업 3건이 추진되고, 이들 사업은 주로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치중되어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수산 ODA 사업은 크게 물자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포럼·워크숍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원양어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의 도서국가, 가나, 기니 등 대서양트룰 입어국가들이다.

〈표 6-12〉 2012년도 사업실적 및 2013년 계획

업종	2012년	2013년 계획
KOICA	초청연수 7개 과정(114명, 16억 원) - 수산기술 및 정책(나이지리아)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알제리) - 한·PIF 수산자원 전문가 특별연수(PIF) - 아프리카 수산기술 및 정책 -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 한·칠레 공동연수(수산양식) - 수산과학(장기연수 3년과정)	초청연수 4개 과정(70명 13억 원) - 수산기술 및 정책(나이지리아) - 한·PIF 수산자원 전문가 특별연수 -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 수산과학(장기연수 3년)
	프로젝트 3건(8억 원) - 어항개발사업(솔로몬 군도) - 사하라 사막 새우양식센터 설립 및 기술이전(알제리) -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앙골라)	프로젝트 3건(30억 원) - 어항개발사업(솔로몬 군도) - 사하라 사막 새우양식센터 설립 및 기술이전(알제리) -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앙골라)
농림수산식품부 (‘12년, 16억 원 ‘13년, 17억 원)	물자지원사업 10개국 - 키리바시,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기니, 기네비소, 앙골라, 가나, 페루, 세네갈, 피지 교육훈련사업 5개국 - 솔로몬, 나우루, 피지,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포럼·워크숍 34개국 -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사모아 등 남태평양도서국 - 페루, 우루과이 등 남미 - 가나, 기니 등 아프리카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물자지원사업 10개국 - 키리바시,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기니, 기네비소, 앙골라, 가나, 페루, 세네갈, 피지 교육훈련사업 5개국 - 솔로몬, 나우루, 피지,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포럼·워크숍 34개국 -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사모아 등 남태평양도서국 - 페루, 우루과이 등 남미 - 가나, 기니 등 아프리카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자료 : KIOCA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2.

- 수산부문 ODA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었던 솔로몬 사업은 최초로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가 역할분담을 하여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최근 솔로몬 정부의 무상전환 희망으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 솔로몬 어항개발 사업은 수산부문에서 추진된 가장 규모가 큰 원조사업으로 민간이 어항의 배후부지에 참치통조림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등의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현재 기니 코나커리, 가나 테마항, 세네갈 다카항 등에 대한 사업

수요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수산부문에서 하나의 성공사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2012년 현재의 상황이 그리 밝지 않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시행하는 물자공여사업 등의 원조사업과 포스트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산관련 ODA 사업의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최근 국무총리실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대상국 26개국에 대한 중점대상 3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7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CPS(국가협력전략)를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수산분야가 포함된 국가는 솔로몬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향후 3~5년 동안 추진될 중점대상국의 사업에 수산부문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산업에 대한 수원국의 사업 우선 순위가 높지 못한 측면이 크며, 개도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수산업의 중요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교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2013년 이후의 ODA 사업들은 중점대상국에서 수산업의 ODA 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부문 ODA 사업은 적은 규모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농업·농촌과 묶어서 농어촌 개발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 2013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2013년 원양어업 생산량, 56만 7천 톤 될 듯

- 2013년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 국제지역수산기구의 다랑어 쿼터가 이전에 비해 약간 늘어났기 때문이다.
- 다랑어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남획과 자원고갈이 우려되자 2000년대 들어 다랑어에 대한 조업 규제가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최근의 자원조사 결과에서 2012년에 다랑어 자원이 약간의 회복세가 나타나 일부 국제지역수산기구에서⁸⁾ 다랑어 쿼터를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평양 해역에서는 2008년부터 폐쇄되었던 포켓공해(Pocket High Seas)가 특별 관리를 조건으로 2012년부터 개방되었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리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선망어선의 2012년도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⁹⁾ 조업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 6-13〉 국제지역수산기구로부터의 대한민국 수산물 Quota

단위: 톤

국제기구	2012년	2013년	증감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15,014	14,714	△300감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7.53	80.53	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911	948	3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500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새우 133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새우 96 오징어 453 적어 169	새우△37
	16,757.53	16,960.53	203

- 최근 원양어획량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MI의 총량모형에 따른 2013년 우리 원양어획량은 약 53만 7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단,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의 재협상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원양생산량의 8~9%를 차지하는 명태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서 생산량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¹⁾,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¹⁾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는 2012년에 다랑어 자원이 회복되고 있다는 과학조사 결과에 의함.

9) WCPFC 제8차 총회(광, 2012.3)

- 따라서 원양(러시아) 명태의 쿼터량은 우리의 수산물 자급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 어획물의 수출단가 소폭 하락 예상

- 원양어획물의 수출단가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며, 그 이유는 EU 경제위기, 선진국 재정 절벽, 환율 변동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선진국들과 중국 및 동남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늘 것이라는 장기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침체(EU 경제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등)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경제위기에 내몰린 선진국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원가 부담 등은 실수요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이 화폐 증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가 글로벌 외환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와 엔화의 환율 상승이 결국에는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 이슈 및 대책

원양총조사 국가 통계 승인, 이제는 국가가 돌본다.

- 2012년 우리 원양산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원양총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이며, 이는 우리 원양산업을 국가가 주목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완비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제도이며¹⁰⁾ 다른 하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
- 1960년대말에 처음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래로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두 요소가 갖추어지지 못한 채 원양산업을 발전해 왔다.

10) 원양산업발전법

- 그러나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의 원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미완의 지원이 아닌 완비된 지원 하에서 시작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UU어업에 대한 국제형사범죄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 금번 제67차 유엔수산물결의안 검토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INTERPOL과 미국, EU, 노르웨이, 러시아에 의하여 IUU어업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직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마약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IUU 어업행위 자체도 국제형사범죄화 하려는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도 어업 분야 초국가적 조직범죄 행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이는 IUU어업행위의 결과물을 시장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막겠다는 기존의 발상에서 아예 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겠다는 태도로서 큰 파장을 몰고 올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IUU어업이 즉각적으로 국제형사범죄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단체와 국가들이 동 이슈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향후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대응하며 동시에 IUU어업과 관련된 국내법 제도의 정비와 시행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공해상 저층어업규제와 관련하여 올해 추가적인 규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에 FAO 저층어업 관련 이행평가 검토회의가 예정되어 있기에 국내의 보완조치와 자료수집 등 이행 상황을 충실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법 검토 필요

- 원양업계는 4~5개 기업이 상장기업인 반면에 그 외 90% 이상의 업체가 영세 규모(1사 1~5척)를 가지고 있는 양극화 산업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마치 원양업계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지원이라는 착각을 불러일킬 수 있다.

- 원양산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은 대부분이 담보를 기반으로 한 저리융자 정책이지만, 여기에 부합하는 원양업체는 5개 내외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담보력 부족에 의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 결국, 정부 정책 자체가 양극화의 상층부에 있는 기업만을 지원할 수밖에 구조에 빠져 있어 원양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원양업계는 90% 이상이 중소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있어서 우리 원양업계의 내외형적인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원양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은 앞으로 이들 영세업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 즉, 양극화되어 있는 업체간의 차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향은 담보력에 의한 저리융자 지원(대규모 업체)과 보조금(영세업체)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또한 효율성 제고와 산업내의 개별업체간 상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조금, 개별 비용의 공동비용화 등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의 新도약판, 개도국 수산발전 위한 선제적 제안과 설득

- 2013년의 수산부문 ODA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의 총규모는 60억 원으로 증대되었지만 2012년 사업의 계속 사업 성격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ODA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향후 연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산부문의 ODA 사업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작성되고 있는 CPS 전략 수립에 따라 적은 규모의 개별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즉, 전체 사업 건수는 많아지겠지만 사업의 금액 등 규모는 오히려 축소될 전망이다.
- 다만, 포스트 여수프로젝트의 재원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추진될 계획이므로 이들 사업을 이용한 ODA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최근의 아프리카에서 수산시설에 대한 사업수요는 솔로몬 프로젝트의 성

공여부와 매우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성공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들어 우리원은 KORAFF(Korea-Africa Fisheries Forum, 한-아프리카 수산포럼), KOSOPFF(Korea-South Of Pacific Fisheries Forum,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등을 통해 해외 연안개도국의 수산전문가와 네트워킹을 추진한 바, 이들 연안개도국에서의 한국과의 다양한 수산협력 수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 이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산업의 역할과 기능(외화획득, 식량 자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배워 자국의 경제 성장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대해 국내적인 여론 확산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산분야에 특정화된 ODA의 방법론 개발과 예산 규모의 확대가 원양산업의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예를 들어 Fisheires Knowledge Sharing Program(FKSP, 수산지식공유)과 수산 인프라 ODA가 병행되는 새로운 수산협력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연안국들마다 어항 증·건설, 어촌 경제 활성화, 선원 교육, 양식, 수산자원 조사와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표 6-14〉 KMI 수산협력 사업에 따른 해외 연안개도국의 수산협력 수요

종류	KORAFF	KOSOPFF
어항 증·건설	가나, 기니, 적도기니, 세네갈 등	솔로몬 제도 등
어촌 경제 활성화	상동, 세네갈, DR 콩고 등	PNA 8개국
양식	대부분의 연안개도국, DR콩고(내수면)	PNA 8개국
자원조사 및 관리	앙골라, 기니, 세네갈, 남아공 등	PNA 8개국
유통	가나 등	-
선원 학교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

- 현재 추진되는 CPS 사업에서 수산부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부문 발전 모델과 성과관리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국내 원조사업 수행기관과 수원국을 설득해 나가는 등 국내외 정책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물식품부, 입어 현황 내부자료.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2.

, 「한국원양어업 50년 1957~2006」,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수산전망대회 -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화 방향」, 2011.2.

KOICA 홈페이지(<http://stat.koica.go.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농림수산물식품부 웹사이트 (<http://www.mifaff.go.kr/>).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원양산업협회 웹사이트 (<http://www.kosfa.org/>).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웹사이트 (<http://fs.fips.go.kr/>).

제7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 강종호*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도 전망과 이슈 |
| 2.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
| 1) 수산식품 소비 부문 | 2) 주요 이슈 및 대책 |
| 2) 수산유통 부문 | |
| 3) 수산가공 부문 | |
|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 |
| 5)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 |

1. 서론

-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는 세계 경제 불안요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환율 불안정’에 이어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의 영향이 2012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¹⁾
- 이러한 부진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2013년 세계 경제의 전망도 대부분의 기관이 밝은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 IMF(세계통화기금)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도 작년 4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 0.5% 포인트 낮아진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 발표하였다.²⁾
- 2013년 경제성장은 1년 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유로지역에 비해

* 연구위원

- 1) 2012년 세계경제는 전년대비 0.5% 포인트 낮아진 3.3% 성장이 예상되며, 2012년 선진국 경제는 0.3% 포인트 낮아진 1.3%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신흥국 경제는 0.9% 포인트 낮아진 5.3%로 KDB는 전망함(자료 : KDB, 2013년 세계경제 전망).
- 2) IMF(세계통화기금)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도 작년 4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 0.5% 포인트 낮아진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 발표(자료 : IMF).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긴축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³⁾

- 특히, 2013년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물론 수산식품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수산식품의 주요한 교역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경제 성장의 정도에 따라 수산식품의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뿐만 아니라 작년 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우려는 세계 경제 성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산식품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 인상은 소비자 구매 의지를 꺾어 수산식품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이 2013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수산식품산업 성장 및 수산식품 소비지출에 부정적 요인이 많은 해이다. 다만, 완만하나마 세계 경제와 함께 유럽 및 일본의 회복가능성, 그리고 내수 위주의 중국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수출 수요 증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의 동향과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그런데 타 분야에 비해 수산식품산업부문의 시계열 통계 자료가 미비한 점을 반영하여 하여, 여기서는 2012년 이전 자료의 추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소비, 유통, 가공, 수출입, 위생안전)의 동향을 기술하고, 2013년도 전망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2.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1) 수산식품 소비 부문

-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공급량은 2007년 645만 톤을 최고로 약간 감소하여 2011년에는 592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생산량과 수입량의

3)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lobal Research Weekly Overview, 한글판(2012.12.10).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 2011년도 수산물 생산은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3,256천 톤을 기록하였
한 반면, 수입이 12%나 감소한 2,059천 톤을 기록하였다.
- 2011년 수산물 국내소비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3,813천 톤을 기록한
반면, 수출은 1,466천 톤으로 16.3%나 감소하였다.

〈표 7-1〉 수산물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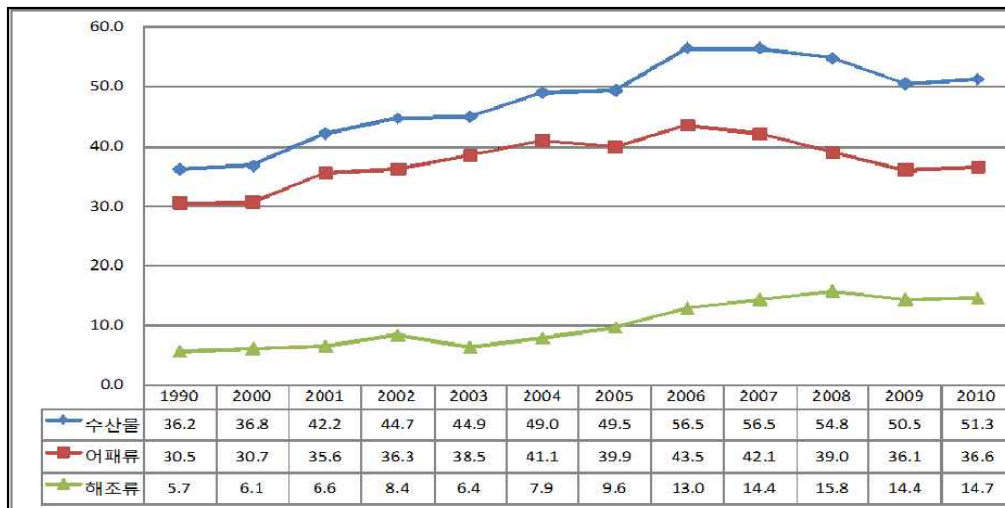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

년도	공 급			합 계	수 요		
	생산	수입	재고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05	2,714	2,557	531	5,802	4,169	1,121	512
2006	3,032	2,646	512	6,190	4,568	1,047	575
2007	3,275	2,604	575	6,454	4,621	1,211	618
2008	3,361	2,135	618	6,113	4,280	1,266	567
2009	3,182	2,186	567	5,935	4,071	1,336	528
2010	3,111	2,339	528	5,993	3,639	1,751	603
2011	3,256	2,059	603	5,918	3,813	1,466	6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농림수산물 주요통계(2012, 9).

〈그림 7-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 kg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2011.12).

- 한편 우리나라의 2010년 1인 1년간 수산물 소비량은 51.3kg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가장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 2006년 및 2007년 56.5kg에 비해 5.2kg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여 2008년에 도입한 친환경 수산물제도와 수산물이력제도에 의해 안전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012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년에 비해 35개 증가한 62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현재 친환경품목으로 인증품을 출시하는 것은 굴, 김, 미역, 넙치, 홍합, 조미김, 마른김, 구운김, 건미역, 마른미역 등이다.
 - 2012년 수산물이력품은 21개 품목, 4,475개 업체(생산 4,356개 업체, 단순 가공 119개 업체 등)가 참여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2) 수산유통 부문

- 2012년의 수산물 유통 동향은 산지 위판장의 양극화 심화, 소비지 도매시장의 지속적 약체화, 대형소매업의 출점 증가로 인한 수산물 취급 비중의 지속적 증가와 시장지배 확대로 이전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 산지 위판장의 경우에는 중규모 위판장이 수와 거래량, 거래금액에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영세 위판장의 거래량과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소비지 도매시장은 2011년에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소비량 대비 취급량의 비중도 높아졌지만, 이는 수산물 총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 수산물 소매업은 대형마트의 점포수 소폭 증가에 비해 대기업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출점수가 더 늘어나면서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산지위판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 이에 반해 슈퍼마켓을 앞세운 소매시장의 성장세는 더 강해져 전년에 이어 수요자 주도시장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1) 수산물 산지 유통의 동향

- 수산물 산지 유통⁴⁾은 계통출하 비중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 2012년의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계통출하 비중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7.0%였다.
-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2.9% 증가하였고, 천해양식어업의 계통 출하 비중은 19.3% 증가하였다.

〈표 7-2〉 우리나라 어업별 계통 출하 비중의 추이(생산량 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
2008	41.1	82.6	23.1	0.0	0.0
2009	41.6	81.9	24.3	0.0	0.0
2010	47.4	82.3	40.1	0.0	0.0
2011(A)	45.7	83.8	30.7	0.0	0.0
2012(B)	47.0	86.3	36.6	0.0	0.0
B/A	2.8	2.9	19.3	-	-

주 : 2012년은 1월~10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하였고, 11월~12월은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년도.

- 위판장의 규모를 임의적으로 영세(2만 톤 미만), 중규모(2만 톤 이상~7만 톤 미만), 대규모(7만 톤 이상)로 구분하여 규모별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7-3>과 같다.
- 2012년 산지 수협의 수는 92개이며, 이중 위판이 없었던 수협은 9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위판이 있었던 83개 수협 중에서 영세 규모 위판장은 62개로 전년 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중규모 위판장은 2012년에 15개로 전년에 비해서 2개가 증가하였다. 대규모 위판장은 6개로 전년 대비 1개가 늘어났는데, 7만~8만 톤의 규모를 가진 위판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규모별 취급량으로 보면, 보다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그림 7-2> 참조).
- 대규모 위판장의 거래량은 201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하락하였고, 반대로 중규모 위판장의 거래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수산물 산지 유통은 출하 기구에 따라 계통(수협 위판장) 출하(이를 제도권 시장이라 함)과 비계통(수협 위판장 이외의 산지 수집상 등) 출하(이를 비제도권 시장이라 함)로 구분된다.

- 반면, 영세규모 위판장은 그 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위판물량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개년 평균	
						조합수	비중	평균	비중
위판 없음		4	5	9	9	9	9.8	7.2	8.3
영세	1만 톤 미만	47	47	50	50	52	56.5	49.2	56.4
	1만-2만	18	17	10	11	10	10.9	13.2	15.1
중규모	2만-3만	6	8	4	5	8	8.7	6.2	7.1
	3만-4만	2	0	4	3	2	2.2	2.2	2.5
	4만-5만	1	1	1	1	1	1.1	1.0	1.1
	5만-6만	1	1	3	2	2	2.2	1.8	2.1
	6만-7만	0	1	0	2	2	2.2	1.0	1.1
대규모	7만-8만	0	1	2	2	3	3.3	1.6	1.8
	8만 톤 이상	5	3	5	3	3	3.3	3.8	4.4
합계		84	84	88	88	92	100.0	8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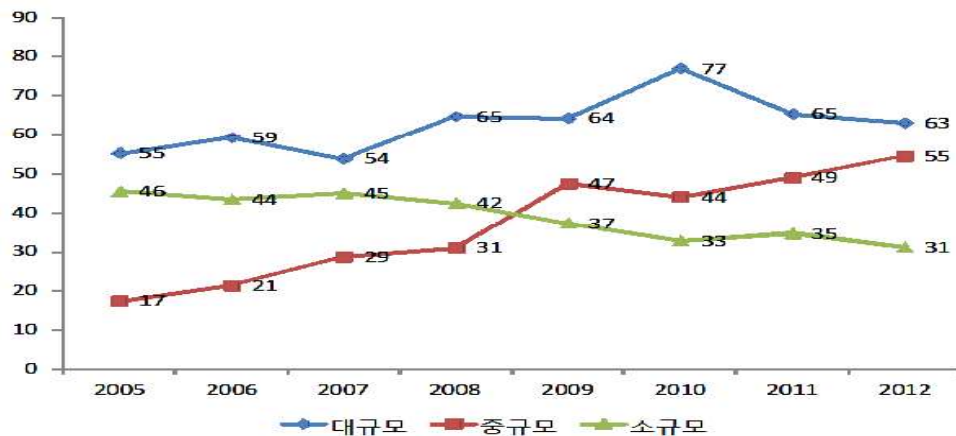
주 : 1)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의 산지 수협을 대상으로 함(공판장 포함).

2) 평균의 수치는 총 대상 수협 위판장의 2008~2012년간의 평균 양륙량으로 계산한 것임

3) 2012년은 11~12월의 위판량을 최근 5년간의 평균 위판량 비율로 추정한 것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7-2〉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량의 추이(만 톤)



주 : 대규모는 거래량 7만 톤 이상, 중규모는 2만 톤 이상 7만 톤 미만, 소규모는 2만 톤 미만임

자료 : 수협중앙회, 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년도.

- 결국 규모별 취급량 추이에서 대규모 위판장의 거래규모가 줄어들면서 중규모 위판장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위판장들은 약체화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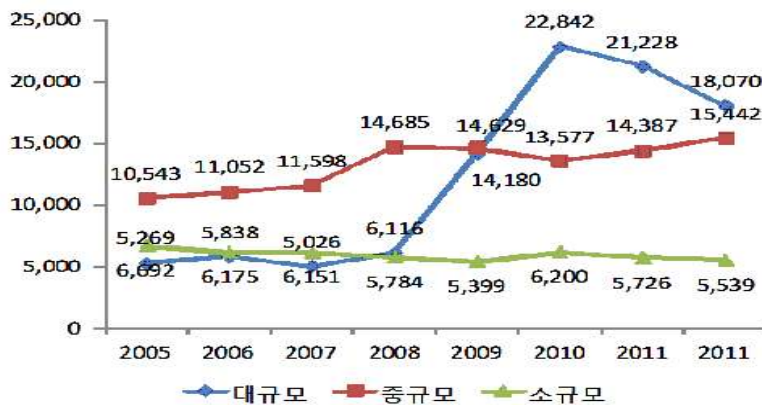
〈표 7-4〉 위판금액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개년 평균	
					조합수	비중	평균	비중
위판없음	5	5	9	9	9	9.8	7.4	8.5
영세	1백억원 미만	25	18	15	22	23.9	19.2	22.0
	1백-2백억	17	18	17	13	14.1	16.6	19.0
	2백-3백억	13	13	11	11	12.0	11.4	13.0
중규모	3백-5백억	8	8	11	9	9.8	9.8	11.2
	5백-1천억원	13	14	13	17	18.5	13.8	15.8
대규모	1천-2천억원	2	7	9	9	9.8	7.2	8.2
	2천억원이상	1	1	4	2	2.2	2.0	2.3
합계	84	84	89	88	92	100.0	87.4	100.0

주 : 1)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의 산지 수협을 대상으로 함(공판장 포함).
 2) 평균의 수치는 총 대상 수협 위판장의 2008~2012년간의 평균 양륙금액으로 계산한 것임
 3) 2012년은 11~12월의 위판금액을 최근 5년간의 평균 위판금액 비율로 추정된 것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 이상의 결과를 규모별 금액별로 보면 <그림 7-3>과 같이 위판금액 1천억 원 이상인 수협은 2010년에 13개에서 2012년에는 11개로 전년 대비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금액 규모면에서는 하락세이다. 중규모는 1개소가 늘어났지만, 3백억 원 미만의 영세 규모는 2012년에 46개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림 7-3〉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금액의 추이



(2) 수산물 소비지 도매유통의 동향

- 소비지의 수산물 집하와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도매시장(공영+법정)은 2011년에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7.2%, 거래금액은 6.1% 증가하였다. 거래량에 비해 거래금액의 증가율이 큰 것은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 공영도매시장과 일반 법정도매시장으로 나누어 보면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은 물량이 11.8%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7.2%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산물이 많이 거래되었다.
- 하지만 일반 법정도매시장은 물량이 5.1% 감소한 반면 금액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7-5〉 우리나라 공영 및 법정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동향

단위: 천 톤, 억 원

구분	합계		공영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5	385	10,821	281	7,612	103	3,209
2006	382	10,826	279	7,548	103	3,278
2007	382	10,750	277	7,433	106	3,317
2008	374	11,284	269	7,872	105	3,412
2009	412	13,213	306	9,679	106	3,534
2010(A)	395	13,654	287	10,072	108	3,582
2011(B)	423	14,494	321	10,794	102	3,700
B/A	7.2	6.1	11.8	7.2	-5.1	3.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년도

〈표 7-6〉 국내 수산물 소비량 대비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 천 톤,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소비량(A)	4,169	4,568	4,621	4,280	4,071	3,639	3,813
도매 시장	공영	281	279	277	269	306	287
	일반법정	103	103	106	105	106	108
	소계(B)	385	382	382	374	412	395
B/A	9.2	8.4	8.3	8.7	10.1	10.8	11.1

자료 : 1.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 년도

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

- 2011년의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소비량 대비 11.1%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다.
- 이는 경기 둔화로 수입수산물이 감소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량도 다소 감소하였고, 도매시장 취급량이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3) 수산물 소매유통의 동향

- 소매 유통은 매출액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2011년에 전년 대비 9.1%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체인스토어슈퍼마켓도 6.5%의 성장을 보여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 업체 수에서 대형마트는 2011년에 전년 대비 2.1%가 늘어난 데 비해, 체인스토어슈퍼마켓은 7.8%의 증가를 보였다.
- 수산물 매출액에서는 대형마트가 2011년에 전년 대비 24.1%, 체인스토어슈퍼마켓도 25.1%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 업체 당 수산물 매출액을 보면, 대형마트가 21.6%로 크게 증가하였고, 체인스토어슈퍼마켓도 16.1%의 증가를 보였다.

〈표 7-7〉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규모

구 분		대형마트	체인스토어 슈퍼마켓
사업체수 (개)	2010	437	928
	2011	446	1000
	전년 대비(%)	2.1	7.8
매출액 (백만 원)	2010	33,733,030	23,812,482
	2011	36,797,070	25,358,724
	전년 대비(%)	9.1	6.5
수산물 취급비중 ¹⁾ (%)	2010	4.1	4.8
	2011	4.7	5.6
	전년 대비(%)	13.7	17.4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	2010	1,397,541	1,134,527
	2011	1,733,819	1,418,865
	전년 대비(%)	24.1	25.1
업체당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개소)	2010	3,198	1,223
	2011	3,887	1,419
	전년 대비(%)	21.6	16.1

주 : 1) 수산물 취급 비중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유통업체연감에서 전국 대형마트 6개 업체의 동향을 분석한 부문별 매출액 구성비를 활용함. 2) 대형마트 매출액은 통계청 자료임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12, 통계청, 소매판매 · 도소매업동향, 각년도.

-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의 취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 수산물 취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점포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 2010년과 2011년의 대형마트 6개 업체의 식품분야 부문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의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 하지만, 가공식품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 대형마트와 슈퍼체인 등에서 수산물 취급의 비중이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취급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폭이지만 가공식품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원물 상태의 유통이 주류인 산지시장과 도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8〉 대형마트의 부문별 매출액 구성비의 추이

(단위 : %)

구분	2010(A)	2011(B)	B-A
농산물	27.3	23.6	-0.1
축산물	12.6	13.0	0.0
수산물	9.8	8.5	-0.1
가공식품	36.2	46.1	0.3
즉석조리식품	14.1	8.8	-0.4
합계	100.0	100.0	

자료 : 한국체인스토아협회, 유통업체연감, 2012.

3) 수산가공 부문

- 2011년의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지만, 생산금액은 4.9% 감소하고, 생산단가는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제품별로 보면, 염건품과 염장품의 생산량은 각각 176.2%, 136.3% 증가하였지만, 단가는 오히려 각각 58.0%, 39.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조림품, 해조제품, 조미가공품 등도 모두 생산량은 증가한 가운데, 생산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원/kg,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합계	1,815,286	1,865,546	2.8%	6,875,258	6,540,369	-4.9%	3,787	3,506	-7.4%
냉동품	1,289,583	1,249,510	-3.1%	4,135,905	3,867,926	-6.5%	3,207	3,096	-3.5%
소건품	3,622	3,906	7.8%	77,802	66,188	-14.9%	21,480	16,945	-21.1%
수산피혁품	743	794	6.9%	4,550	5,933	30.4%	6,124	7,472	22.0%
어유분	13,287	3,128	-76.5%	15,628	17,784	13.8%	1,176	5,685	383.4%
연제품	114,823	121,018	5.4%	428,613	377,184	-12.0%	3,733	3,117	-16.5%
염건품	12,565	34,700	176.2%	371,013	430,522	16.0%	29,527	12,407	-58.0%
염신품	35,315	27,228	-22.9%	216,846	153,828	-29.1%	6,140	5,650	-8.0%
염장품	9,933	23,468	136.3%	49,158	69,778	41.9%	4,949	2,973	-39.9%
자건품	44,974	33,651	-25.2%	223,346	135,536	-39.3%	4,966	4,028	-18.9%
조미가공품	34,654	44,271	27.8%	333,940	348,493	4.4%	9,636	7,872	-18.3%
통조림품	54,168	82,452	52.2%	196,153	165,965	-15.4%	3,621	2,013	-44.4%
한천	206	450	118.4%	6,392	9,838	53.9%	31,029	21,862	-29.5%
해조제품	164,104	205,810	25.4%	523,502	565,437	8.0%	3,190	2,747	-13.9%
기타	37,309	35,160	-5.8%	292,410	325,957	11.5%	7,838	9,271	1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1

- 생산금액이 크게 증가한 제품을 중심으로 세부품목의 생산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염건품은 조기류(굴비)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산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타 제품들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염건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단위 :톤

구분	2010	2011	전년 대비
합계	12,565	34,700	176.2%
조기류	12,189	34,375	182.0%
기타	376	325	-13.6%

자료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각년도

- 염장품은 고등어(자반, 간고등어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기타 염장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제품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염장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단위 :톤

구분	2010	2011	전년 대비
합계	9,933	23,468	136.3%
고등어	5,963	7,631	28.0%
기타	3,970	15,837	298.9%

자료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각년도

- 수산통조림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품목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어와 골뱅이, 참치 통조림의 생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굴, 홍합, 바지락, 기타 통조림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수산통조림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단위 :톤

구분	2010	2011	전년 대비
합계	54,168	82,452	52.2%
꽂치	14,275	14,634	2.5%
고등어	5,994	7,953	32.7%
굴	3,042	1,711	-43.8%
골뱅이	1,252	3,425	173.6%
홍합	47	24	-48.9%
바지락	53	29	-45.3%
참치	28,000	54,443	94.4%
기타	1,505	233	-84.5%

자료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각년도

- 수산통조림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품목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어와 골뱅이, 참치 통조림의 생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굴, 홍합, 바지락, 기타 통조림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해조제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의 동향

단위 :톤

구분	2010	2011	전년 대비
합계	164,104	205,810	25.4%
마른김	57,178	34,335	-40.0%
건미역	21,346	8,507	-60.1%
염장미역	74,325	140,400	88.9%
다시마	2,907	13,711	371.7%
톳	2,364	2,899	22.6%
해조류	5,024	2,199	-56.2%
기타	960	3,759	291.6%

자료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각년도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 2012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4억 1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39억 달러로 2012년 12월말 현재 수산물 무역수지는 15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규모는 2011년 18억 8천만 달러에서 2012년 15억 4천만 달러로 18.4%가 감소했다.

〈표 7-13〉 2012년 수산물 교역 무역수지

단위 : 천 달러, 톤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수 출	2,308,155	686,930	2,409,753	719,479	4.4%	4.7%
수 입	4,191,944	4,845,662	3,946,598	4,694,863	-5.9%	-3.1%
무역수지	-1,883,790		-1,536,845		-18.4%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추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1) 수산물 수출 동향

- 2012년 수출수산물은 참치가 약 6억 1천만 달러로 1위 품목으로 전년에 비해 어획량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 다음으로 전년에 비해

43% 늘어난 김 2억 3천만 달러, 기타어류 1억 8천만 달러, 오징어 1억 2천만 달러, 고등어 7천 3백만 달러, 붕장어, 게살, 명태, 전복, 삼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였다.

〈표 7-14〉 우리나라의 수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톤, %

품목별	2011년(A)		2012년(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686,930	2,308,155	719,479	2,409,753	4.7%	4.4%
참치	144,253	393,668	188,690	613,348	30.8%	55.8%
김	11,964	161,495	14,929	230,376	24.8%	42.7%
기타어류	66,815	309,497	39,571	178,532	-40.8%	-42.3%
오징어	65,332	181,034	56,044	120,606	-14.2%	-33.4%
고등어	37,944	48,879	65,675	73,086	73.1%	49.5%
붕장어	5,209	55,264	5,809	70,004	11.5%	26.7%
게살	5,235	54,172	5,679	59,667	8.5%	10.1%
굴	10,909	81,689	7,377	56,312	-32.4%	-31.1%
어란	4,439	45,863	4,695	54,202	5.8%	18.2%
전복	1,259	52,351	1,425	58,779	13.2%	12.3%
명태	36,460	47,332	49,308	58,971	35.2%	24.6%
삼치	16,798	67,667	14,282	58,380	-15.0%	-13.7%
넙치	4,464	54,010	3,956	50,854	-11.4%	-5.8%
바지락	11,507	37,989	11,886	39,426	3.3%	3.8%
이빨고기	2,193	46,651	2,042	39,547	-6.9%	-15.2%
미역	18,656	40,765	17,018	36,235	-8.8%	-11.1%
어류가공품	8,540	35,732	8,803	37,532	3.1%	5.0%
대구	16,567	53,052	12,717	37,672	-23.2%	-29.0%
돔	9,417	27,258	10,510	35,653	11.6%	30.8%
캐비아	1,999	32,040	2,080	34,314	4.1%	7.1%
전갱이	17,229	23,076	17,407	27,561	1.0%	19.4%
기타수산물분	32,818	26,449	34,293	27,504	4.5%	4.0%
돔	2,748	31,886	2,269	27,091	-17.4%	-15.0%
기타	154,175	400,334	143,014	384,105	-7.2%	-4.1%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율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특히, 금액 기준으로 참치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56%나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고등어 50%, 김 43%, 돔 3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어류, 오징어, 굴, 대구는 각각 42%, 33%, 31%, 29%나 감소하였다.

- 전년에 비해 부진한 품목 중에서 굴은 일본 수출부진 지속과 노로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미국 어패류 수출중단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12월 말 현재 아직도 대미 굴 수출의 재개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 주요 수출 품목별 국가별 실적(2012년 11월까지 누적 실적치)을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1위 품목인 참치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일본 2억 2천만 달러로 약 45%, 태국 1억 9천만 달러로 약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2천 2백만 달러, 중국 2천 1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5〉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톤, %

구분	2011년(A)		2012년(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686,932	2,308,158	715,860	2,403,837	4.2%	4.1%
일본	168,437	993,537	147,089	1,003,282	-12.7%	1.0%
중국	155,156	464,819	131,869	389,330	-15.0%	-16.2%
태국	107,166	173,433	126,745	261,960	18.3%	51.0%
미국	29,117	180,852	28,980	189,205	-0.5%	4.6%
뉴질랜드	38,043	92,707	30,502	72,322	-19.8%	-22.0%
베트남	37,024	61,453	30,334	57,325	-18.1%	-6.7%
스페인	23,721	54,767	20,151	43,180	-15.0%	-21.2%
대만	7,525	26,515	10,903	29,589	44.9%	11.6%
홍콩	1,971	31,295	1,689	28,858	-14.3%	-7.8%
캐나다	4,064	17,199	8,474	25,910	108.5%	50.6%
이집트	12,365	11,851	26,555	24,174	114.8%	104.0%
이탈리아	5,176	15,036	7,593	23,387	46.7%	55.5%
에쿠아도르	4,780	6,203	11,315	21,181	136.7%	241.5%
필리핀	3,799	5,766	10,534	17,352	177.3%	200.9%
나이지리아	13,978	15,824	17,608	17,914	26.0%	13.2%
미령사모아	0	0	7,829	15,157	100%	100%
프랑스	1,034	7,516	2,253	14,864	117.9%	97.8%
호주	4,360	12,303	5,010	13,115	14.9%	6.6%
코르디바르	6,474	6,616	11,650	10,881	80.0%	64.5%
싱가포르	1,439	16,954	1,941	11,989	34.9%	-29.3%
인도네시아	7,316	8,107	8,304	11,176	13.5%	37.9%
기타	53,987	105,405	68,532	121,686	26.9%	15.4%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율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201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상위 10개국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87%로 전년 91%에 비해 약간 낮아졌지만, 10대 수출대상국의 수산물 수출 집중도는 매우 높다.

- 2012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 집중도는 41.7%로 2010년 47.8% -> 2011년 43.0% -> 41.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출 집중도는 2010년 12.9% -> 2011년 20.1% -> 2012년 16.2%로 작년에 증가한 만큼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 태국 수출 집중도는 2011년 7.5%에서 2012년 1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에 약 10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해 전년도에 비해 수출액이 1%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2.7%나 감소하였다.
- 대일 주요 수출 품목은 참치, 김, 붕장어, 전복, 게살, 넙치, 굴, 삼치, 캐비아, 톳 순이며, 미역은 전년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2) 수산물 수입 동향

- 2012년 10대 수입수산물(금액 기준) 품목은 새우, 명태, 기타어류, 소금, 낙지, 참치, 오징어, 어란, 조기, 갈치(소금 포함)이며, 이들 10대 품목의 수입금액이 전년 45.6%에 비해 증가한 52.7%를 기록하였으며, 20대 품목도 전년 65.7%에 이 약간 증가한 70.5%를 기록하였다.
- 2012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은 총 10개이며, 이는 전년도인 14개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새우 45%, 개게 35%, 참치 20%, 돔 17%, 오징어 14%, 어란 13%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중량 면에서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중량 469만 톤 중에서 소금이 7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10대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대만, 일본, 칠레, 호주, 노르웨이이며, 이들 10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비중이 약 78.9%(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3개 국가가 약 57%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 30%, 중량 26.8%나 감소하였다.

〈표 7-16〉 우리나라의 수산물 품목별 수입 동향

자료: 천 달러, 톤, %

품목별	2011년(A)		2012년(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4,845,662	4,471,653	4,694,863	3,946,598	-3.1%	-11.7%
새우	57,548	271,530	67,365	394,027	17.1%	45.1%
명태	260,685	397,926	251,971	354,190	-3.3%	-11.0%
기타어류	140,257	287,878	136,687	274,229	-2.5%	-4.7%
소금	3,482,412	220,889	3,409,883	189,322	-2.1%	-14.3%
낙지	42,237	194,527	42,327	178,580	0.2%	-8.2%
참치	14,068	139,500	16,887	167,648	20.0%	20.2%
오징어	54,090	142,476	59,335	162,836	9.7%	14.3%
어란	22,917	112,544	22,297	127,163	-2.7%	13.0%
조기	36,428	162,631	26,432	120,508	-27.4%	-25.9%
갈치	28,940	110,641	28,571	111,537	-1.3%	0.8%
연어	18,568	122,583	16,309	98,147	-12.2%	-19.9%
주꾸미	30,614	117,857	24,231	95,293	-20.8%	-19.1%
실장어	9	81,643	8	80,869	-11.1%	-0.9%
기타수산물분	36,518	61,814	44,313	69,212	21.3%	12.0%
아귀	25,993	100,045	21,640	67,206	-16.7%	-32.8%
기타넙치	24,455	65,464	25,772	62,175	5.4%	-5.0%
돔	6,096	48,309	7,487	56,747	22.8%	17.5%
대게	3,546	41,951	4,345	56,677	22.5%	35.1%
기타연체동물	52,281	179,664	15,134	63,947	-71.1%	-64.4%
대구	24,384	66,035	21,863	52,005	-10.3%	-21.2%
취치	8,764	57,419	7,555	50,255	-13.8%	-12.5%
꽁치	51,530	62,678	46,788	57,078	-9.2%	-8.9%
고등어	60,799	124,561	32,402	68,028	-46.7%	-45.4%
기타	362,525	1,301,088	365,262	988,920	0.8%	-24.0%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시장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금액기준)는 2010년 31.7% -> 2011년 29.8% -> 27.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집중도는 2011년 15.8%에서 2012년 16.9%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집중도는 2010년 10.9%에서 2011년 11.5%, 2012년 12.7%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집중도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2010년 6.6%에서 2011년

4.0%, 2012년 3.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2년 물량기준의 수입 집중도는 소금 수입량 때문에 호주 39.9%, 멕시코 13.7%, 인도 10%로 나타났다.

〈표 7-17〉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톤, %

구분	2011년(A)		2012년(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4,845,662	4,191,941	4,693,199	3,940,538	-3.1%	-6.0%
중국	1,140,959	1,250,436	801,465	1,079,354	-29.8%	-13.7%
러시아	313,890	662,758	315,660	665,767	0.6%	0.5%
베트남	135,207	482,607	146,648	501,662	8.5%	3.9%
미국	54,177	155,412	46,428	149,401	-14.3%	-3.9%
태국	30,945	135,111	32,706	145,684	5.7%	7.8%
대만	62,198	128,598	55,593	128,215	-10.6%	-0.3%
일본	56,310	168,543	41,236	117,867	-26.8%	-30.1%
칠레	59,452	142,581	55,919	112,647	-5.9%	-21.0%
호주	1,762,928	112,822	1,871,551	102,138	6.2%	-9.5%
노르웨이	31,152	138,833	25,192	107,389	-19.1%	-22.6%
페루	25,231	71,556	29,894	76,145	18.5%	6.4%
홍콩	213	80,256	46	65,865	-78.4%	-17.9%
인도네시아	24,546	69,815	25,284	69,806	3.0%	0.0%
캐나다	14,530	67,852	9,048	61,430	-37.7%	-9.5%
멕시코	683,442	49,721	640,844	45,409	-6.2%	-8.7%
인디아	276,571	44,924	468,320	45,040	69.3%	0.3%
세네갈	6,210	18,038	12,069	35,771	94.3%	98.3%
말레이시아	10,596	55,774	6,764	37,163	-36.2%	-33.4%
영국	3,497	23,309	3,217	26,609	-8.0%	14.2%
에콰도르	4,171	14,010	5,206	27,299	24.8%	94.9%
아르헨티나	7,810	24,146	7,838	26,417	0.4%	9.4%
기타	141,627	294,839	92,271	313,460	-34.8%	6.3%

주 : 2012년 수출입실적은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5)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① 웰빙 식품으로서 수산물 소비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 수산식품 위생안전부문에는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없었던 해이지만,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능 검출, 가성소다(양젓물)를 이용한 건 해산물 판매사건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 웰빙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식품 수입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260만 톤까지 늘어났다. 2011년 206만 톤까지 감소하였으나 국내생산의 한계로 총공급에서 200만 톤 이상은 수입수산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수산물 총 공급 대비 수입수산물의 비중은 1990년 9.7%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44.1%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도 평균 3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7-18〉 국내 수입수산물의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공급(A)	3931	4,516	5,802	6,454	6,113	5,935	5,993	5,918
국내소비(B)	2,583	2,668	4,169	4,621	4,282	4,071	3,639	3,813
수입(C)	380	1,420	2,557	2,604	2,135	2,186	2,339	2,059
비중(C/A) %	9.7	31.4	44.1	40.3	34.9	36.8	39.0	34.8
비중(C/B) %	14.7	53.2	61.3	56.4	49.9	53.7	64.3	54.0

자료 : 해양수산부, 2005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6),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농림수산물 주요통계(2012, 9).

- ② 수입수산물 부적합 건수는 2007년 0.5%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
- 수입수산물 검역 시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률이 2000년에 0.7%에서 2005년 0.5%, 2012년 0.4%로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수입수산물의 평균 부적합 건수는 289건, 비율은 0.4%로, 부적합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주요 수입국과의 양자간 위생안전협정 등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19〉 수입수산물 부적합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적합건수 (A)	341	292	536	373	284	255	278	256
총검사건수(B)	49,156	96,112	100,357	82,016	80,792	78,910	72,822	68,985
부적합률 (A/B)	0.7	0.3	0.5	0.5	0.4	0.3	0.4	0.4

주 : 2012년 총검사건수와 부적합건수는 1월~11월 실적 합계치에 전년도 실적치를 합산한 잠정치로 사용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사검역통계조회 (www.qia.go.kr/)

③ 저가 수산물 식재료 수요 급증으로 국내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간이 횃집, 씨푸드 뷔페 등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식재료용의 국내산 수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및 비위생적 관리 등이 주요한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 2010년 연간 1인당 어패류의 공급은 36.1Kg으로 2007년 42.1Kg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는 씨푸드 레스토랑이나 대중 횃집, 그리고 고급 일식집의 증가 추세와 상충되는 현상이다. 또한 연간 육류 공급에 비해 어패류의 공급 비중은 1995년 50.5%에서 2005년 52.2%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로 2010년에는 45.4%를 기록하였다.

〈표 7-20〉 연간 1인당 육류 대비 어패류 공급량 비중

단위: kg, %

구 분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합 계(B)	66.1	68.2	76.5	83.0	79.7	78.3	79.6
어패류(A)	33.4	30.7	39.9	42.1	39.0	35.4	36.1
해조류	11.7	6.1	9.6	14.4	15.8	14.4	14.4
육류	32.7	37.5	36.6	40.9	40.7	42.9	43.5
어패류 비중(A/B)	50.5%	45.0%	52.2%	50.7%	48.9%	45.2%	45.4%

주 : 어패류에는 해조류를 포함하지 않음. 육류에는 계란, 유지류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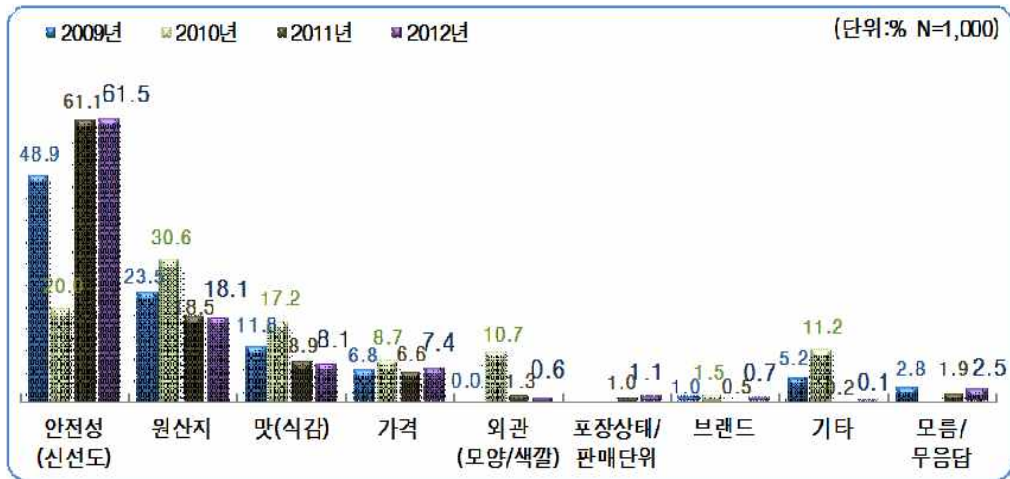
④ 수산물 구매 시에 소비자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2년 11월에 조사한 「2012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설문에 대해 ‘안전성’ 61.5%, 그 다음으로 ‘원산지’ 18.1%, ‘맛(식감)’ 8.1%, ‘가격’ 7.4%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시중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소 걱정된다’ 65.8%, ‘매우 걱정된다’ 13.4%로 합계 7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성과보고서」(2011.12).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에 11월에 발표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축수산

〈그림 7-4〉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시 가장 우선하는 요인



⑤ 사전예방적인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전문가 양성 절실

- 우리 정부는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패류지정해역관리제도 및 육상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대미 수출용 패류(굴) 지정해역 관리의 미비로 대미 굴 수출 중단 경험을 하게 되었다.
 - 금년도의 경험을 철저히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05년부터 실시한 양식장 HACCP는 2011년까지 총 컨설팅 199개 업체에 불구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는 14개로 매우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수산물안전연구소의 주관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11월 말 현재 7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추진 시스템을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시 컨설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 구매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맛과 품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선도’ 28.8%, ‘안전성’ 24.4%, ‘가격’ 6.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2011」(조사기간 : 2011년 7월 25일~8월 19일), 2011.12.

농촌정보문화센터가 2010년 6월에 발표한 「2010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농축수산물 구매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 대해 ‘안전성’ 40.5%, ‘신선도’ 35.2%로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농축산물을 실제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는 ‘원산지’ 54.5%, ‘인증표시’ 26.1%, ‘브랜드’ 7.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는 2012년 11월말 기준, 넙치, 김, 멸치, 오징어 등 21개 품목에 전국 규모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유통점, 백화점을 포함한 1,464개 업체(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도 신규로 등록한 품목은 꼴뚜기, 고등어, 삼치 3개 품목이며 꼬막은 등록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소비자의 수산물 주요 구매처를 중심으로 한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절실

-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구매처는 재래시장 41%, 대형마트 약 39%, 슈퍼마켓 7.4%로 상위 2개 소매 업체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재래시장의 수산물 소매점은 위생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수산물 소매점 및 유통경로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2013년도 전망과 이슈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① 수산식품 소비부문

웰빙 식품으로 수산식품의 소비자 인식 강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산식품은 세계 경제의 발전에 따른 소득 증대와 식문화의 글로벌화에 따라 2013년에도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과거 식품으로 호평을 받지 못하던 수산식품이 웰빙 붐과 함께 금년도에도 소비증대 경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인도, 이집트, 베트남을 비롯한 한 아시아 국가들도 소득증대와 함께 가정식으로서 웰빙 식자재용으로 수산물 구입을 늘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

인다.

- 전통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라 축산식품에 비해 웰빙 식품으로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식품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정 지속 예상

-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웰빙 식품으로서 수산식품 및 수산식자재의 소비를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공공요금 및 생필품의 가격 인상 러쉬가 수산식품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의 수산식품 소비지출을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추세는 피쉬플레이션과 연계되어 수산식품 소비자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 확대 폭의 축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요인이 수산식품 소비 전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웰빙 추구에 따라 수산물 소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초부터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수산물 소비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전술한 수산물 수급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늘어나는 국내소비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 증가의 한계로 말미암아 수산물 수급 불안정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식품 소비시장의 양극화와 함께 프리미엄 식품의 요청 강화

- 소비자 물가의 상승과 함께 수산물 가격도 상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산물 소비시장의 양극

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물 소비시장의 양극화는 외식점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 식재료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고품질의 수산물 식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수산식품과 차별화시킨 프리미엄 수산식품의 요청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수산유통·가공 부문

FPC사업 도입 2년차, 성공적인 모델의 구축 필요

- 2011년부터 새로운 수산사업으로 도입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사업은 한림수협, 부산시수협의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2억 원이 지원된다.
 - 동 사업은 지역별·품목별 거점 시설(예: 위판장)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적, 세척·선별·포장 등 전처리가공 및 도매물류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위생관리형(HACCP 등)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초의 사업지역인 한림과 속초의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2011년에 FPC TF가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 이어 2013년에는 지역별로 60억 규모의 중규모 FPC사업이 3개소가 예정되어 있어 규모별, 지역별 성공모델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FPC의 확산은 물량적인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조기 확산을 통해 산지유통의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입수산물의 품질 제고,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에 위협 신호

- 지난 1997년 수산물 시장이 개방될 때 약 119만 톤이 수입되면서 국내 수산물 총공급량의 25% 정도를 차지했던 것이 2011년에는 약 190만 톤이 수입되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2002년에 수입수산물 kg당 평균단가는 1.6달러였고, 2006년에 2.2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008년부터 kg당 0.7달러, 2011년에는 0.9달러로 저가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값싼 수산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값싼 수입산이 많아진 것이다.
- 하지만 최근에는 연어나 킹크랩, 새우 등의 고급수산물 수입이 늘었고, 유럽 등에서 고등어와 같은 대중어가 수입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결국 값싼 수산물도 많이 들어오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수입수산물도 이제는 많이 들어오면서 국산수산물의 경쟁력도 이제는 높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2012년 8월의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태도조사(대한상공회의소)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 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 그리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것에서는 중국산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9.7%, 일본산과 미국산은 각각 67.2%, 62.6%였고, 유럽산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23.1%, 호주·뉴질랜드산은 16.9%였다.
- 이 조사결과만 보면 여전히 국산수산물의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국산에 대한 구매의향에서 15.3%는 비싸면 안먹겠다는 응답을 했고, 중국산의 식품안전성 같은 경우는 10.3%가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이 반드시 높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편 aT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수입수산물을 사먹는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이 ‘값이 싸서’인데, 2008년 조사에서는 94.2%였던 것이 2011년에는 62.1%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에 ‘국산을 구하기 어려워서’ 수입수산물을 구매한다는 응답은 증가했다.
- 그리고 수입수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인데, 2008년에는 62.0%인데, 2011년에 79.4%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이라면 값이 싸지 않아도 구매한다는 점이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구매한다는 것이다.

- 이처럼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리 장을 보러가면 당연히 있는 품목 정도의 의미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적당한 가격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면 앞으로도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앞으로 한중 FTA를 포함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수산물의 품질과 위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수산물의 품질경쟁력과 가공제품의 다양성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③ 수산물 수출입 부문

유럽 시장 및 중국 등 아시아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기회 증대 전망

- 유럽 경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완만하나마 불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금년에는 웰빙 식품으로서 수산식품 소비 증대로 완만하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수산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이 수산물 수입시장을 어느 정도는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경제발전의 영향이 중부 내륙 및 도시부로의 확산됨에 따라 해면수산물 및 프리미엄 수산물에 대한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새로운 지도부로 구성된 중국 경제는 금년에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물 수입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프리미엄 수산식품과 중가의 브랜드 수산식품 개발이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전반적으로는 수산물 수입시장의 안정기로 진입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지진 영향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해양오염으로 폐쇄된 토오호쿠 해역어장에서 생산되는 굴 등의 주요 생산품은 공급 부족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수산물 시장은 미국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문제 해소 여하에 따라 수입 시장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굴 수출문제 해결 및 회복도 금년에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산물 가격 상승 및 경제성장 불투명으로 수산물 수입증가세 둔화

- 2013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식품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유럽 수산물 수입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폭적인 수산물 수출 증대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입 중량면에서는 총수요 및 국내소비의 정체, 수출수산물 원재료의 감소 등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금액면에서는 약간 증가세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④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수산식품 안심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관심 증가

- 2013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웰빙식품으로 수산식품의 안심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속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검출되는 방사능 오염문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약품 사용, 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변질 등으로 인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수산식품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인증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이력제의 빠른 확산을 강하게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산식품 수입을 계속 해서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어느 때보다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저가 수산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수산식품안전관리 요구 증대

-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어 간이 횃집, 씨푸드 뷔페 등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식재료용의 국내산 수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및 비위생적 관리 등이 주요한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 또한, 수산식품의 가격 상승과 웰빙 식품으로 수산식품의 수요 증대로 상대적으로 저가 수산물에 대한 유통, 물류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저가 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재래시장의 수산식품 안전관리는 일종의 사각지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안전관리의 종합행정 요구 증대

- 변질,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수산물은 어획 또는 채취했을 때부터 선도관리 및 온도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 조직, 시설, 인력 등을 구비한 종합행정이 강하게 요청될 것이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산물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양식장 HACCP은 물론 어선 및 위판장에서도 위생관리형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기반구축이 강하게 요청될 것이다.
- 생산단계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정해역 확대 및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 수산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해수산물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조기 회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의 활성화가 강하게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이슈 및 대책

① 수산식품 소비 부문

수산식품 가격 안정이 2013년 상반기 주요 쟁점으로 대두

- 2013년 수산식품 소비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소비자의 수산식품에 대한 지출 증대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에 이어 피쉬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구조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공공요금 및 생필품의 가격 인상 러쉬가 상반기 물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미국이나 일본 내수경제의 불확실성, 예상되는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세 부진 등은 신흥국 경제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불확실한 세계 수산물 시장의 변동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② 수산유통 부문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수협 경제사업 개선 TF에서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초안이 마련된 이후, 2012년에 개최된 수협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수

협에서 제출한 세부 투자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 수협의 경제사업활성화(안)에서는 ‘신(新)수협 계통판매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수산사업으로 기 도입되었던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포함하여,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로컬푸드형 직거래마트 등의 사업이 제안되어 있다.
- 2021년까지 모두 1조 8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품질 좋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한 가격의 실현으로 수협만이 아닌 어업인과 소비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산물 유통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FTA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부터 동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③ 수산가공 부문

지역 특산수산물 가공품 수출 활발, 상품개발에 더 많은 지원 필요

- 12년 11월까지 국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73억 불을 기록했고 그중 수산식품은 21억7천만불로 4.7% 증가했다.
- 2012년 수산식품의 수출에서 특징은 ‘속초 웰빙 젓갈’, ‘장흥 무산김’ 등 지역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수출용 상품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육성 알아이에스(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단은 ‘바다海속삭임’이라는 공동브랜드로 2012년 9월 호주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 속초 RIS사업단은 2007년 10월부터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을 준비해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속초 젓갈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출을 개시하였다.
 - 또한 장흥 해조류 RIS사업단은 장흥무산김과 함초소금, 함초환 등을 개발해 해외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전라남도는 2012년 11월까지의 수산물 수출실적이 1억 4천만 달러를 넘기는 등 2년 연속 1억4천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출 증대에 기여한 주요 품목은 전복은 3천703만 달러(26%), 김은 2천284만 달러(16%), 톳은 2천119만 달러(15%), 미역은 2천97만 달러(15%) 어치를 수출했다.
 - 주요 수출국은 일본(77%), 중국(7%), 미국(4%), 태국(3%), 홍콩(3%)으로 일본 수출 편중이 줄어들고 아시아권과 미국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 실제로 전라남도는 동남아시아 유통망 발굴을 위해 12월에 10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자물(GIZA MALL)에서 조미김, 자반, 건어물, 녹차, 한과, 뽕음료 등 10개 품목에 대해 홍보 판촉을 갖고 8만 달러의 수출성고를 올렸다.
- 이처럼 2012년에는 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수출 시장을 공략할 대표상품이 부족하고, 가공품 등의 상품 다양성이 높지 않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산물 수출에 지역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수출용 상품의 개발과 지원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식품의 온라인쇼핑은 증가, 수산물 구매율은 여전히 낮아

- 영업규제 강화와 신규 출점의 한계로 인해 성장률 정체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는 향후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 닐슨(Nielsen)이 최근 발간한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물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3명 중 1명(33%)은 최근 3개월 내 국내 대형마트 3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개월 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물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경우, 10회 쇼핑 중 평균 6회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쇼핑의 경우, 일정한 소비 패턴이 형성돼 있는 정기적 계획 쇼핑과 여러 제품과의 비교 검색이 편리한 선물 구매 쇼핑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

면,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식사 준비를 위한 쇼핑 및 급하게 필요한 상품 구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개월 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카테고리를 분석해본 결과, 식품군 중에서는 면류(44%)와 커피류(43%), 농산물(41%), 스낵·비스킷(35%), 유제품 (34%), 캔·즉석 가공식품 (33%), 생수(29%)의 구매율이 높았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수산물의 입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원인은 결국 소비자가 수산물을 정기적 계획 쇼핑을 할 수 있는 가공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앞으로 수산물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간편 가정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등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그리고 대부분의 수산물 간편 가정식이 해물탕, 대구탕, 양념주꾸미 등 주로 수입수산물 위주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 수산물을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수산물 수출입 부문

세계 수산물 시장의 불확실성 반영한 수출전략 마련

- 2012년 상반기 수산식품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8.4%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수산업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전복, 광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해삼 등 10대 수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 2012년 상반기 수출실적(확정치)을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참치 47.5%, 고등어 116.0%, 김 52.1%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오징어, 굴, 해삼은 각각 25.1%, 32.5%, 23.3%로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불확실성,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수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에 대응한 수출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수산물 품목별로 국별 시장 선호도에 따라 다변화를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수출전략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리미엄 수산식품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개도국들을 수산식품 프리미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예상되는 수입증가 관리 강화

-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2013년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국내 수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내수를 위한 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산물 국내소비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의 한계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수산물 수입의 양적 관리 및 무역수지 적자규모의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2013년 주요 이슈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⑤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종합적인 수산식품 품질위생 행정조직 설치 및 법제 제개정

- 신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해양수산행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내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던 수산식품 위생관리행정기능을 조정·통합하여 독립적인 조직(과)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수산정책에서도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정책기능을 상위로 조정하여 수산식품위생안전정책이 신정부에서 수산식품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산식품안전관리 행정을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와 행정조직, 전문인력,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완비해야 한다.

- 새 정부에서 다시 중앙부처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가칭) 「수산식품유통및품질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수산식품유통국 아래 담당과로서 수산식품안전과를 설치하여 생산단계에서 판매, 외식단계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안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산물이력제, HACCP 등 관련 제도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마련

- 프랑스를 시작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식품의 품질위생 관련 제도(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지리적표시, 양식장HACCP 등)와 이력추적제도의 연계를 통한 수산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이슈화가 요구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의 빠른 확산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확립 및 전문컨설턴트 확보 및 양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제도간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품질인증제도, 친환경수산물제도, 양식장 HACCP제도, 지리적표시제도 등과의 수산물이력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검사검역통계조회 (www.qia.go.kr/)
- 농림수산물부, 2012년도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2. 9.
- 농림수산물부, 2011년 12월 수산물 수출실적, 2012.1.
- 농림수산물부, 2011년 12월 수산물 수입실적, 2012.1.
-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2009, 2010, 2011.
- 농림수산물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 농림수산물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 년도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농림수산물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9.10
- 농촌정보문화센터, 2010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0.6.
- 대한상공회의소,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태도조사, 2012. 8.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 주문배 외, 2012년도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최종보고서, 농림수산물부, 2012.
-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 각년도
- 통계청, 소매판매 · 도소매업동향, 각년도.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각년도
-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2011.12.
- 한국체인스토아협회, 유통업체연감, 2012.
- 해양수산부. 2005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제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제8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I. 김 수급동향과 전망

백은영*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재고 | 4) 소비 |
| 4) 수출입 | |

1. 서론

- 2012년산 김 총 생산량은 1억 2,495만 속으로 2011년산보다 다소 적었으나,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2012년산이 생산된 2011년 하반기에는 채묘상태가 양호했으나, 저수온으로 성장이 더디면서 어기초에 작황이 부진했다. 그러나 1월 들어 해황이 안정되면서 적정 수온을 유지했고, 특히 전남 슈퍼김이 어기말까지 생산되면서 생산량은 전년산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김 산지가격은 수출 증가로 인해 2011년산보다 15.7% 상승한 kg당 752원이었다. 한편 도매가격도 재고량 부족과 수출 증가로 2011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수출량은 2010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011년 대비 46% 증가했다.

* 부연구위원

- 2012년 12월 재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3개년 평균 대비 15%가량 적은 2,500여만 속이었다.
- 2013년산 김 생산량은 2012년산보다 5~10% 증가한 1억 3,100~1억 3,800만 속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산 생산량은 작년과 달리 다수확이 가능하고 병해에 강한 전남 슈퍼김의 시설량이 많은데다 12월 현재 해황과 작황이 양호해 전년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3년은 원/달러 환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량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수출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출대상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 2012년 동향

1) 생산

(1) 시설동향

- 2004년부터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위성판독사업을 통해 지역별 김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으로 전환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양식어가에서는 적정 생산을 통해 수급조절은 물론 김 품질향상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어장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식어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김 시설 책 수는 최근 신규참여 확대와 양식 규제 완화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요 김 산지인 전남 일부지역에서는 면허지 증가와 타 품목의 면허를 김 어장으로 변경하고 있다.
 -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13년산 김 시설 책 수는 약 79만 책으로, 2012년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전국 시설 책 수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12년산 대비 3.4% 증가했다. 한편 전북과 충남지역도 각각 1.2%, 1.6% 증가했다.

- 반면 신행 건설로 어장이 축소된 부산과 경기지역은 전년산보다 감소했다.

〈표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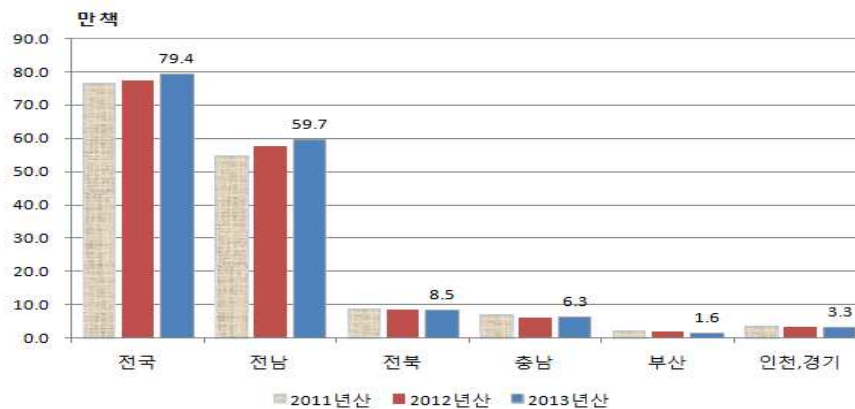
단위 : 만 책, %

구 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9년산	67.6	45.1	12.0	6.0	2.4	2.0
2010년산	72.9	51.0	11.2	6.3	2.3	2.1
2011년산	76.8	55.0	9.0	7.0	2.2	3.5
2012년산(A)	77.5	57.7	8.4	6.2	1.8	3.4
(점유율)	(100.0)	(74.4)	(10.8)	(8.0)	(2.3)	(4.4)
2013년산(B)	79.4	59.7	8.5	6.3	1.6	3.3
(점유율)	(100.0)	(75.2)	(10.7)	(7.9)	(2.0)	(4.2)
증감률(B/A)	2.4	3.4	1.2	1.6	-12.5	-3.0

주 : 책이란 양식용 김밭의 단위 규격으로 1책 = 2.2m×40m(정부 공인 김밭 규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 각 월호, 2009~2010년산은 위성영상 판독 결과이며, 2011년산과 2012년산 항공영상 판독 결과임. 2013년산은 표본어가 시설 조사 결과(2012년 11월)를 이용하여 추정

〈그림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 품종별 김 양식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돌김의 양식시설 비율이 일반김보다 높았으나, 2006년 이후 역전되면서 일반김의 양식시설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이는 양식어가에서 수확이 많은 슈퍼김 시설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돌김류의 시설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013년산의 경우 전체 시설은 다소 늘었으나, 품종별 양식시설 비율은 2012년산과 동일했다. 이는 양식어가들이 지난해 태풍 내습으로 잇바디돌김의 종묘확보가 어려워 잇바디돌김 시설은 줄이고 모무늬돌김 시설은 늘렸기 때문이다.

〈표 8-2〉 품종별 김 양식시설 비율

단위 : %

품종별 점유율	합계	일반김	돌김
2009년산	100.0	59.9	40.1
2010년산	100.0	62.3	37.7
2011년산	100.0	61.8	38.2
2012년산	100.0	67.9	32.1
2013년산	100.0	67.9	32.1

(2) 생산현황

- 김의 생산 시기는 전년 10월에서 당년 5월까지 약 7~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히 주 생산 시기는 전년 11월에서 당년 4월까지 6개월이며, 이 시기의 생산량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 월별 김 생산량은 햇김이 생산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3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과거의 경우 주요 김 생산시기는 1~3월이었으나, 최근 종어기가 늦춰지면서 2월부터 4월까지의 생산량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 이러한 원인은 최근 주변국의 생산량 감소와 수출 호조세로 어기말까지 고가격이 형성되면서 양식어가들이 생산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의 생산은 일정한 생산주기를 갖기에 연산별 특징은 명확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2012년산 김 생산량은 2011년산보다 2.3% 감소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이는 높은 수온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어기초와 달리 1월 이후 수온이 호전되면서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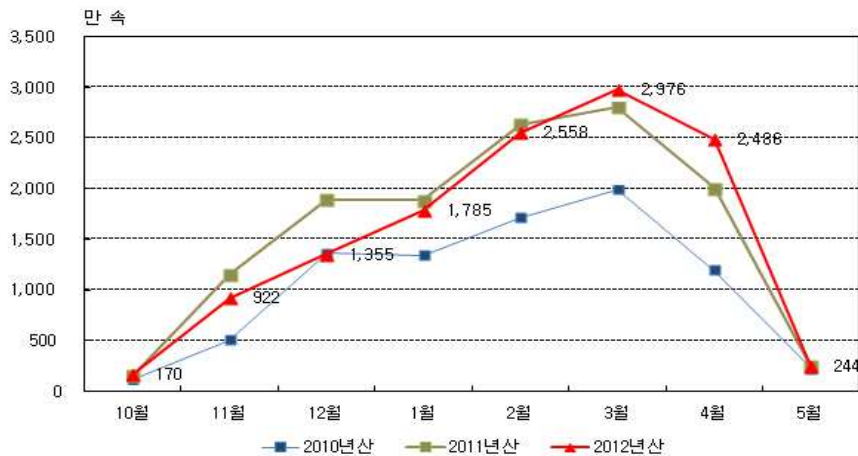
<표 8-3> 연산별 월별 김 생산량 동향

단위 : 만 속, %

구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8년산	10,416	19	974	1,854	1,881	1,981	2,658	1,002	48
2009년산	9,494	60	783	1,568	1,736	2,048	2,313	941	45
2010년산	8,433	112	502	1,359	1,345	1,716	1,988	1,195	219
2011년산(A)	12,791	155	1,158	1,894	1,885	2,636	2,806	2,009	249
2012년산(B)	12,495	170	922	1,355	1,785	2,558	2,976	2,486	244
점유율	(100.0)	(1.4)	(7.4)	(10.8)	(14.3)	(20.5)	(23.8)	(19.9)	(2.0)
증감률(B/A)	-2.3	9.5	-20.4	-28.4	-5.4	-3.0	6.1	23.8	-1.9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그림 8-2> 연산별 월별 김 생산량 추이



-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2년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남이 7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 8.1%, 전북 7.8%, 부산 5.7%, 경기 5.2% 순이었다.
- 전남의 경우 신안·해남·완도·진도·고흥지역은 주요 김 산지에 해당되며, 전북은 군산, 충남은 서천, 부산은 강서구 등이다.
- 전남은 타 품종이 김 면허로 면허지를 변경하여 시설이 다소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생산비중도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북은 황백화 현상과 어업인의 노령화로 김 생산량이 줄었으며, 부산은 신항 건설로 면허지가 축소되면서 생산량 비중이 전년산에 비해 낮아졌다.

-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줄어든 생산량은 2011년산부터 다소 회복되면서 2012년에는 1,011만 속으로 2005년산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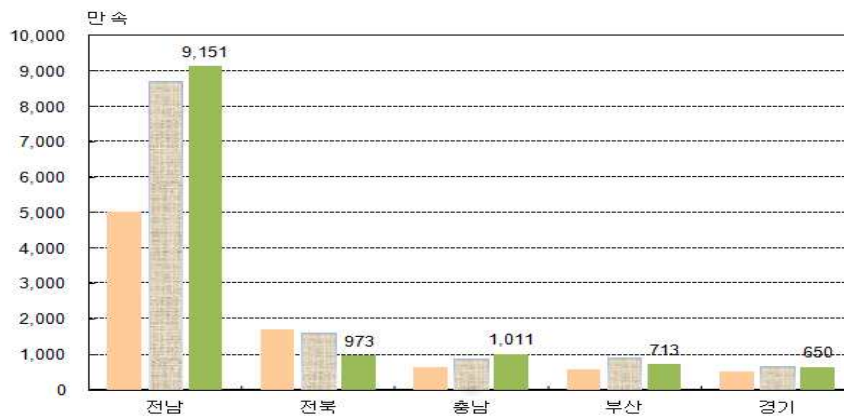
〈표 8-4〉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동향

단위 : 만 속, %

구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8년산	10,416	5,514	2,445	1,353	738	366
2009년산	9,494	4,858	2,245	1,251	607	533
2010년산	8,433	5,015	1,688	636	585	509
2011년산(A)	12,791	8,727	1,603	880	909	672
2012년산(B)	12,495	9,151	973	1,011	713	650
점유율	(100.0)	(73.2)	(7.8)	(8.1)	(5.7)	(5.2)
증감률(B/A)	-2.3	4.9	-39.3	14.8	-21.6	-3.2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월호

〈그림 8-3〉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추이



2) 가격

(1) 산지가격

- 연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860원 수준으로서 2000년 대 초반보다 생산량이 늘면서 점차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산지가격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21.1% 하락했다.

〈표 8-5〉 연대별 김 산지가격 동향

단위: 톤, 원/kg, %

구분	평균 생산량	명목 평균가격	실질 평균가격
1993~2002(A)	190,992	928	1,176
2003~2012(B)	223,880	862	928
증감률(B/A)	17.2	-7.1	-21.1

주 : 실질 평균가격은 산지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환산한 가격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2년산 산지가격은 2011년산(650원/kg)보다 15.7% 상승한 kg당 752원이었다. 이는 어기 초기에 작황이 부진했으며, 주변국의 생산량 감소와 국내산 김 수출 호조세로 가공수요가 어기말까지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월별 산지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달에서 2011년산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어기초에는 생산량 감소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2~3월에도 2011년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어기인 4~5월에도 수출용 가공 수요가 집중되면서 30%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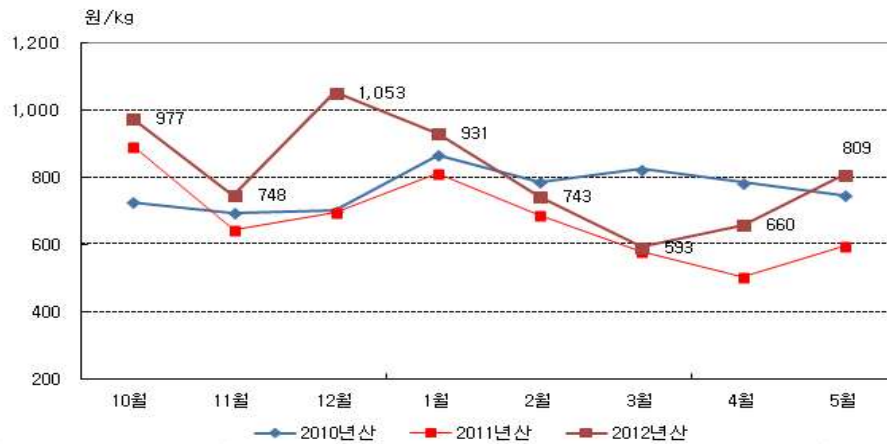
〈표 8-6〉 연산별 김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분	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8년산	961	1,779	957	948	1,139	953	882	829	1,107
2009년산	899	1,096	983	861	806	893	1,005	876	1,152
2010년산	790	728	694	701	868	788	825	785	746
2011년산(A)	650	895	642	697	814	688	578	503	597
2012년산(B)	752	977	748	1,053	931	743	593	660	809
증감률(B/A)	15.7	9.2	16.5	51.1	14.4	8.1	2.6	31.3	35.6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그림 8-4〉 연산별 김 산지가격 추이



(2) 도매가격

- 당 센터 조사결과, 2012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은 속당 3,694원으로 2011년 대비 10.3% 상승했다.
- 2012년산 생산량이 예년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재고물량이 여전히 적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국내 공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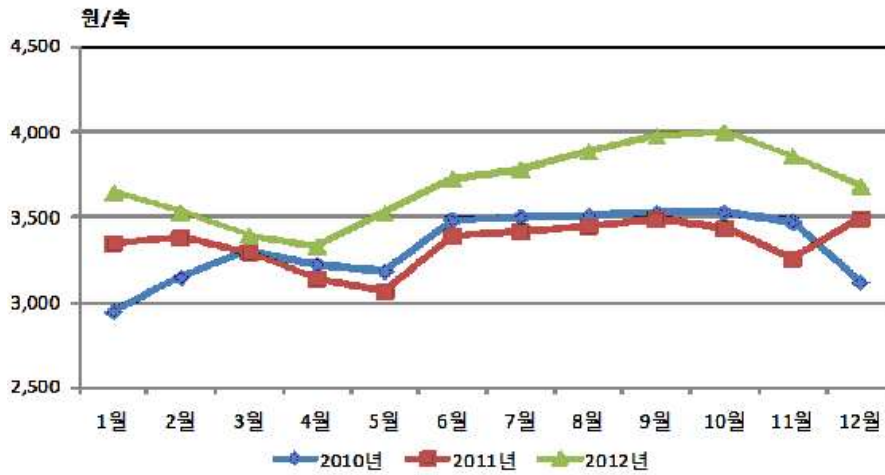
〈표 8-7〉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속, %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3,187	3,419	3,509	3,353	2,823	2,692	3,094	3,319	3,330	3,374	3,258	3,169	2,899
2009년	2,873	2,835	2,756	2,806	2,653	2,711	2,919	3,018	2,998	3,004	2,971	2,935	2,867
2010년	3,332	2,948	3,152	3,301	3,226	3,188	3,485	3,505	3,510	3,529	3,511	3,511	3,121
2011년(A)	3,349	3,352	3,384	3,295	3,142	3,072	3,389	3,420	3,449	3,493	3,435	3,266	3,495
2012년(B)	3,694	3,649	3,530	3,397	3,330	3,526	3,730	3,783	3,887	3,983	4,001	3,859	3,683
증감률(B/A)	10.3	8.9	4.3	3.1	6.0	14.8	10.1	10.6	12.7	14.0	16.5	18.4	5.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당 센터 전국 재래시장 가격)

〈그림 8-5〉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추이



3) 재고

- 2012년 12월 말 현재 재고는 2,600여만 속으로 전년 및 예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량은 많았으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도매업체들의 재고물량 확보가 어려웠다.
- 2012년말의 재고량은 전년 대비 11.1% 적은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재고량에 비해서도 24.4% 적은 수준이다.

〈표 8-8〉 연도별 김 추정재고량 동향(연도말 기준)

단위 : 만 속,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10 평균	전년 동월 대비	3개년 평균대비
재고량	3,574	2,996	3,586	3,030	2,560	3,385	-11.1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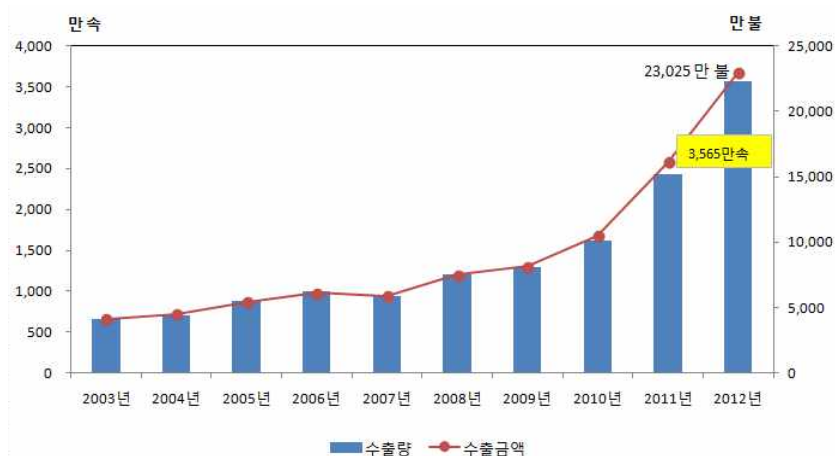
주 : 2010년까지는 당 센터 추정치 자료이며, 2011년부터는 매월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월호.

4)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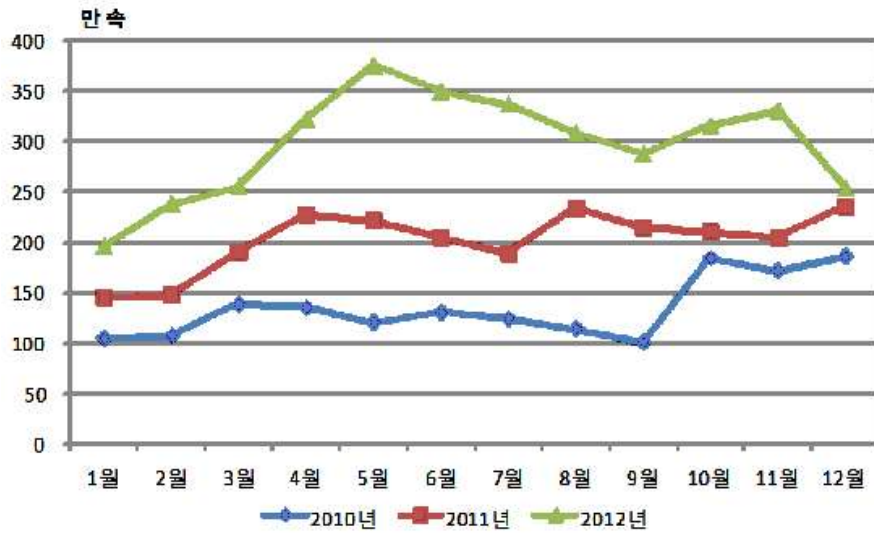
- 김 수출량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현재 생산량의 약 30% (최근 3년 평균)를 수출하고 있다.
- 2011년 수출량은 2010년 대비 49.7% 증가한 2,431만 속이었으며, 2012년에도 2011년 대비 46.6% 증가한 3,565만 속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이러한 눈부신 수출의 성과는 2011년부터 수출대상국의 확대로 현지의 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2012년에는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부진으로 한 국산 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전년에 이어 2012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높아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8-6〉 연도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2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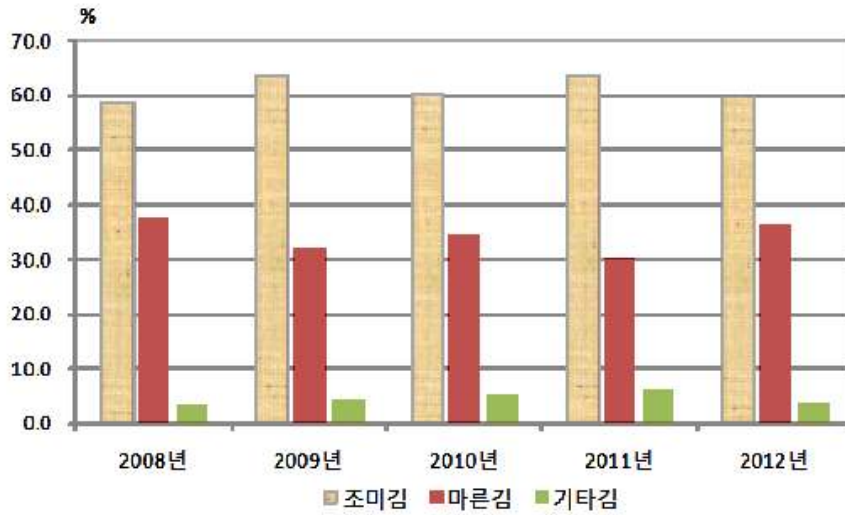
〈그림 8-7〉 연도별 월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2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김 수출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마른김보다 조미김의 수출 강세가 뚜렷했다. 조미김은 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유럽국가에 집중된 반면 마른김은 일본과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었다.
- 2012년 마른김의 수출 비중은 2011년보다 70% 이상 늘었는데, 이는 주변국의 김 작황 부진으로 국내산 김이 원료김으로 각광 받아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 제품별 수출량(2012년 기준)은 조미김 2,137만 속, 마른김 1,294만 속, 기타김 134만 속이었다.

〈그림 8-8〉 연도별 제품별 김 수출량 비중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2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김의 수출 대상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2012년의 국별 수출량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25.9%, 미국 23.9%, 중국 10.7%, 대만 4.0% 순이었다.
- 기존 미국, 일본, 대만에 국한된 김 수출대상국은 최근 70개국 이상으로 늘면서 중국과 기타 국가(동남아시아)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국 및 기타국가의 수출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수출대상국의 지속적인 다변화로 수출 점유율이 2012년에는 35%까지 높아졌다.

〈표 8-9〉 연도별 국가별 김 수출량 비중

단위 : %

구 분	합계	미국	일본	대만	중국	기타
2008년	100.0	28.4	20.3	8.2	7.9	35.2
2009년	100.0	25.0	27.1	5.0	6.8	36.1
2010년	100.0	24.1	28.4	4.9	7.2	35.4
2011년	100.0	26.6	29.2	4.1	8.6	31.6
2012년	100.0	23.9	25.9	4.0	10.7	35.4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2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국내의 김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최근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2012년에는 약 8만 속에 불과했다. 제품별로 수입국이 상이한데 마른김과 기타김은 중국에서, 조미김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 2012년 수입량은 2011년 대비 44.2% 감소한 16만 속이었으며, 점차 수입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산 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산 수요가 많지 않으며, 높은 환율도 수입량 감소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김 수입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0〉 연도별 월별 김 수입 동향

단위 : 만 속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45.0	1.8	5.3	9.8	3.6	2.9	18.8	0.9	0.0	1.4	0.3	0.0	0.1
2009년	41.5	2.3	0.0	0.0	0.7	0.0	0.4	7.4	7.1	21.2	0.0	2.4	0.1
2010년	6.5	0.0	0.3	0.1	0.8	0.0	0.2	2.9	0.1	1.1	0.8	0.3	0.0
2011년	28.8	21.2	0.1	0.2	0.4	1.7	0.2	0.7	0.7	2.9	0.0	0.1	0.7
2012년	7.9	0.4	0.3	0.0	0.1	0.0	0.0	0.0	1.6	1.4	3.3	0.3	8.4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2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3년산 김 생산량은 2012년산보다 5~10% 증가한 1억 3,100~1억 3,800만 속으로 추정된다.
 - 2012년 10~12월까지의 2013년산 김 생산량은 약 3,500만 속으로 2012년산보다 45.2% 많은 수준이다.
 - 2013년산은 지난해 태풍 내습으로 잇바디돌김의 종묘확보가 어려워지자 양식어가들이 시설을 많이 줄이면서, 어기초 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했다.
 - 그러나 12월에는 해황이 좋고 갯병없이 성장이 양호함에 따라 생산량은 작년 동월보다 크게 늘었다.
- 한편 1월 이후 예년보다 시설이 많이 된 전남 슈퍼김의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2013년산 생산량은 전년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

- 2013년산 물김 산지가격은 전년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산 산지가격은 어기초 생산량 감소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12월부터 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올해에는 슈퍼김의 시설이 많았고, 안정적인 해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은 전년산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다.
 - 한편 1월 하순부터는 동아채묘 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기초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의 도매가격은 올해 시설 감소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편 김밥용김도 재고 부족과 수출 증가로

높게 형성되었다.

- 그러나 12월부터는 생산량이 증가로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했다. 올해에는 전년산보다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도매가격은 다소 낮은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출

- 2013년 김 수출은 2012년보다 5~10% 증가한 3,900~4,300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일본과 중국의 김 생산량이 전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대상국의 현지인 김 소비가 토착화되면서 한국산 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10년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온 수출 실적은 2013년 들어 환율 인하로 수출 증가폭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4) 소비

- 2013년 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김 생산량은 전년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량은 증가할 것이나 수출 증가율이 생산증가율보다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국내 김 소비량은 2012년보다 늘어난 9,200~9,500만 속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1〉 2013년 김 수급 전망

단위 : 만 속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공 급 량>	9,535	8,440	12,820	12,503	13,130~13,760
- 생산량	9,494	8,433	12,791	12,495	13,120~13,750
- 수입량	42	6	29	8	10
<수 요 량>	9,535	8,440	12,820	12,503	13,130~13,760
- 소비량	8,244	6,816	10,389	8,947	9,230~9,460
- 수출량	1,291	1,624	2,431	3,565	3,900~4,3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12년까지는 실제치, 2013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II.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이남수*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수출입 | 4) 소비 |

1. 서론

-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19.2% 감소했다. 이는 어기 초부터 고수 온에 따른 업체 탈락 등 미역 작황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사 피해로 인해 보식(補植) 또는 재시설 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역 생산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춰진 요인도 생산량 감소에 한 몫을 했다.
- 2012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나물용뿐만 아니라 가공용 미역도 상승했다. 우선 나물용 미역은 어기 초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산 대비 상승했으며, 가공용은 2011년 초 일본의 대지진 이후 수요 증가와 2012년산 미역 생산량 감소에 따라 협상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2012년 마른실미역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1,962원으로 전년 대비 9.1% 상승했다.
- 최근 5년 내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했던 2011년에 비해 2012년 미역 수출량은 13.4% 감소한 11만 4천여 톤을 기록했다.
- 2013년산 미역 시설량은 전년산 대비 4.8% 증가했으며, 어기 초 양성상태가 예년보다 양호해 2013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산 미역 생산량은 44~46만 톤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전년산

* 연구원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른실미역 도매가격도 2013년산 가공용 미역 생산이 본격화 되는 2월 이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한국산 미역 수요가 많았던 2011~2012년과는 달리 2013년 미역 수출량은 작년 대비 13~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역 수입량도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에는 미역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국내 미역 소비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2년 동향¹⁾

1) 생산

(1) 시설

- 연산별 미역 시설량을 조사한 결과, 2013년산 시설 줄 수는 46만 8천 줄로 전년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역 시설량이 전년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의 미역 시설량 증가는 식용뿐만 아니라 전복 생산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먹이용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을 보면, 2013년산 전남의 식용 미역 시설 줄 수는 전년산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전복 먹이용도 8.0%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전체 미역 시설량은 전년산 대비 5.0% 증가한 41만 7천 줄이 시설되었다. 이는 2012년 8~9월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마 유실이 많아 전복 먹이용 확보를 위해 미역 시설을 더 설치하려는 의향이 미역 양식시설 설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 2012 수산전망대회부터는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며, 특히 해조류의 생산량 추정의 기초자료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표 8-12〉 연산별·지역별 미역 시설량

단위 : 줄, %

구 분		전국	전남	부산	울산	기타
2011년산	합 계	429,531	378,071	35,178	8,779	7,503
	식 용	216,383	164,923	35,178	8,779	7,503
	전복먹이용	213,148	213,148	-	-	-
2012년산	합 계	446,116	397,496	33,624	8,216	6,781
	식 용	220,308	171,688	33,624	8,216	6,781
	전복먹이용	225,808	225,808	-	-	-
2013년산	합 계	467,583	417,398	35,270	7,734	7,181
	식 용	223,646	173,460	35,270	7,734	7,181
	전복먹이용	243,937	243,937	-	-	-
전년산 대비 증감률(%)	합 계	4.8	5.0	4.9	-5.9	5.9
	식 용	1.5	1.0	4.9	-5.9	5.9
	전복먹이용	8.0	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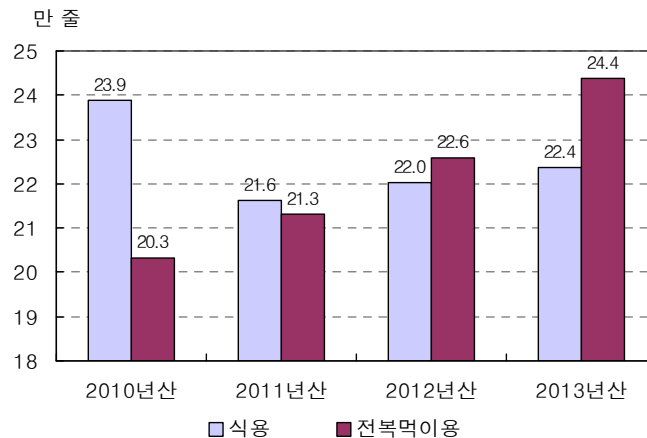
주 : 1) 연산별 시설량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제2차 실제 시설량 조사 결과임

2) 기타 지역은 전남,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 충남, 경남, 경북)을 말함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 변화 추이를 보면, 전복 먹이용 시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산부터는 식용 시설량을 추월하였다. 또한 식용 시설량은 2011년산 이후 22만 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8-9〉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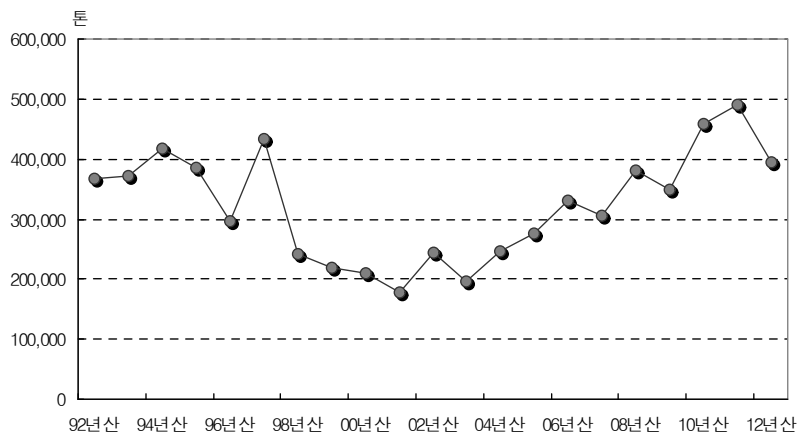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2) 생산

○ 지난 20년간의 연산별 미역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01년산 미역 생산량이 연간 17만 7,125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1년산까지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산 생산량은 39만 5,545톤으로 감소했다.

-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복 생산량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 반면 2012년산의 생산량 감소는 어기 초부터 고수온에 따른 염채탈락 등 미역 작황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고사 피해로 인해 보식(補植) 또는 재시설 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역 생산시기가 예년에 비해 다소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10〉 연산별 미역 생산량 추이



주 : 1) 연산별 미역 생산량은 당해년 10월~익년 9월까지의 생산량을 말함
 2) 92~08년산은 어업생산통계, 09~12년산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임
 자료 : 어업생산통계, KMI 수산업관측센터

○ 미역 생산 시기는 주로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이며, 가공용은 2~3월에 집중 생산된다. 최근 연산별·월별 미역 생산동향은 다음 <표 8-13>과 같다.

- 미역 생산량의 70%가 2~4월에 집중되고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며,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주로 나물용 미역과 전복먹이용이 출하되는데 그 양

은 20% 수준이다²⁾.

-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19.2%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11월과 4월에는 전년산보다 증가했으나, 12~3월에는 전년산보다 감소했다. 또한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서도 어기 내내 적은 수준이었다.

〈표 8-13〉 연산별 · 월별 미역 생산 동향

단위 : 톤, %

구 분	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0년산	458,689	3,180	39,728	52,518	92,152	208,053	63,058
2011년산	489,800	3,673	43,651	58,475	150,879	190,607	42,515
2012년산	395,545	6,478	36,126	46,337	108,323	150,627	47,654
점유율	100.0	0.8	7.6	12.2	27.9	41.2	10.3
전년산 대비	-19.2	76.4	-17.2	-20.8	-28.2	-21.0	12.1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그림 8-11〉 연산별 · 월별 미역 생산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2) 예전에는 11월~익년 1월의 미역 생산량이 전체의 10% 이내였으나, 최근에는 20%에 육박하고 있음. 이는 최근 들어 나물용 미역 외에도 어기 초 전복먹이용 미역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 연산별·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남이 9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 6.2%, 울산 1.9% 등의 순이다.

- 2012년산 지역별 미역 생산량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부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부산과 울산지역은 전국 생산량의 8%에 불과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마른 가닥미역(재래식) 및 나물용 물미역이 생산된다.
- 전남의 경우 식용 외에도 전복먹이용 수요 증가로 매년 미역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2012년산의 생산량은 17.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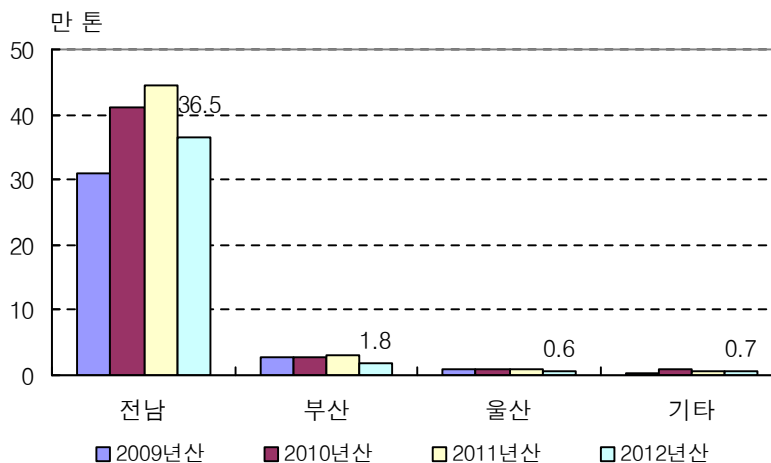
〈표 8-14〉 연산별·지역별 미역 생산 동향

단위 : 톤, %

구 분	계	전남	부산	울산	기타
2010년산	458,689	412,148	28,180	9,299	9,062
2011년산	489,800	443,272	31,905	7,874	6,749
2012년산	395,545	364,857	17,832	6,273	6,583
점유율	100.0	90.3	6.2	1.9	1.6
전년산 대비	-19.2	-17.7	-44.1	-20.3	-2.5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그림 8-12〉 연산별·지역별 미역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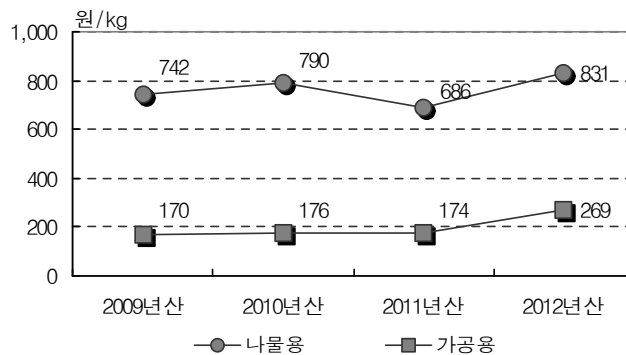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2) 가격

(1) 산지가격

- 2012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나물용뿐만 아니라 가공용도 상승했다.
 - 2012년산 나물용은 어기 초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산 대비 상승했으며, 가공용은 일본 대지진 이후 수요 증가와 2012년산 생산 감소에 따라 협상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월별 미역 산지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외에는 어기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가공용의 경우 kg당 260원 이상을 유지했다.

〈그림 8-13〉 연산별 · 용도별 미역 산지가격 추이



주 : 나물용은 11~1월, 가공용은 2~4월 물미역 산지가격을 말함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표 8-15〉 연산별 · 월별 미역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나물용			가공용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0년산	1,285	585	500	178	175	176
2011년산	1,150	550	358	175	175	172
2012년산	1,013	740	740	272	269	265
전년산 대비	-12.0	34.4	106.9	55.7	54.0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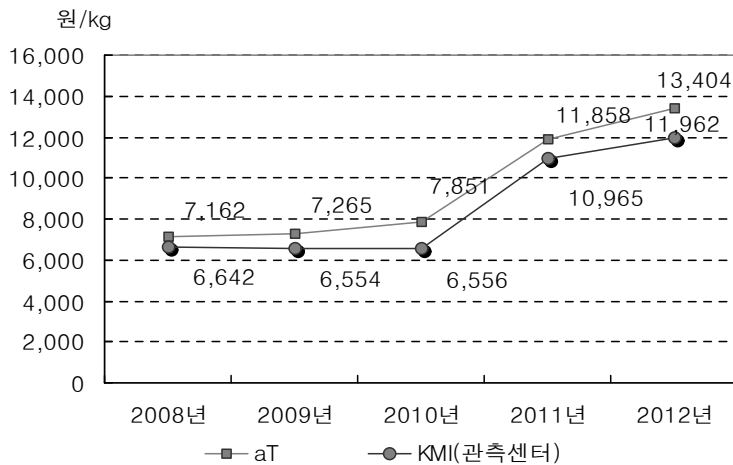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2) 도매가격

○ 2012년 마른실미역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전년 대비 상승했다.

- 2012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도매가격은 kg당 13,404원으로 전년 대비 13.0% 상승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가격도 전년 대비 9.1% 상승한 11,962원이었다.
- 한편 2011년과 2012년의 마른실미역 도매가격 차이는 미역의 수급동향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즉 2011년 가격은 4월 이후부터 상승하여 평균가격이 20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8-14〉 연도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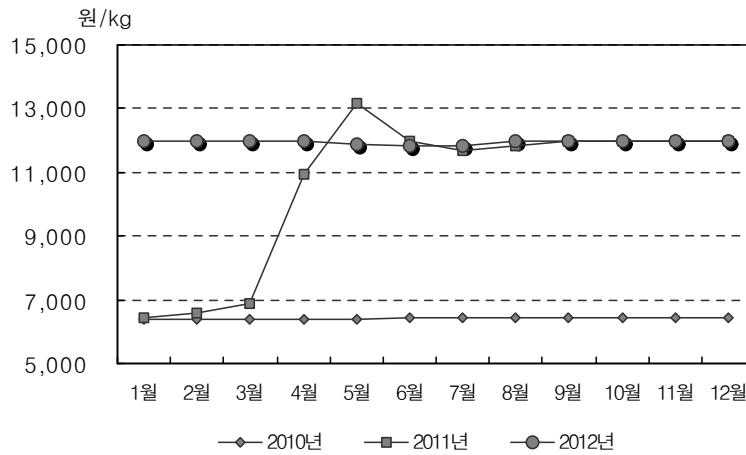
주 : KMI 마른실미역 도매가격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시작했음. 따라서 2008년 자료는 7월~12월까지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이용했음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MI 수산업관측센터, 각 연도

○ 월별 도매가격을 보면, 2011년 4월 이후 급등한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이 2012년 말까지 유지되고 있다.

-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고공행진을 보이던 미역 도매가격은 가공용 미역이 본격화되는 2012년 2월 이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이는 미역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미역 품귀현상까지 경험한

학습효과와 함께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미역의 거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8-15〉 월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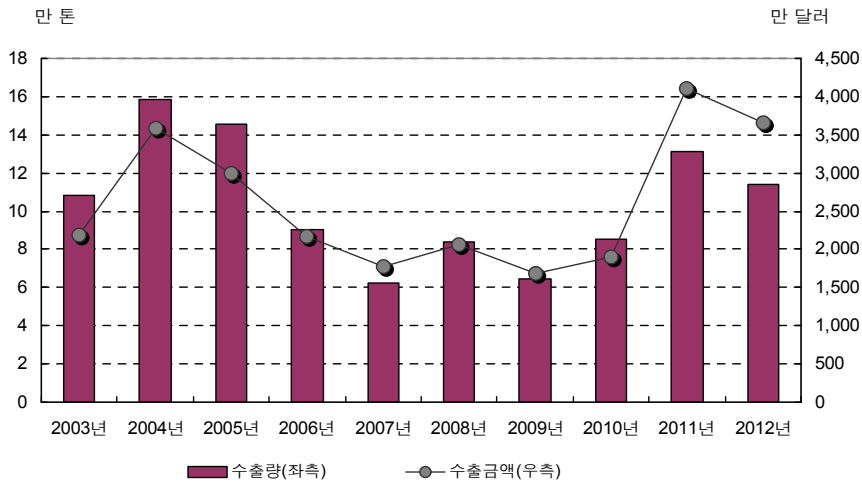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3) 수출입

(1) 수출

- 최근 미역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 최근 10년간의 미역 수출 추이를 보면, 2004년 15만 8,407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2년에는 11만 4천 톤이 수출되어 전년 대비 13.4% 감소했으며, 수출금액은 3,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 이러한 미역 수출 감소는 국내 미역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일본 내 미역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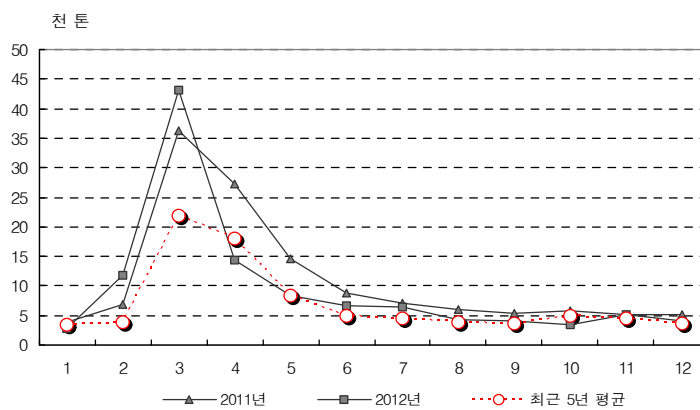
〈그림 8-16〉 연도별 미역 수출 추이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출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월별 미역 수출 추이를 보면, 2012년의 경우 2~3월 미역 수출량은 예년 및 전년보다 많았으나, 4월 이후에는 전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였다.
- 이는 2~3월에 임가공용 미역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았으나, 그 이후 일본 내 미역 재고 증가로 일본으로의 미역 수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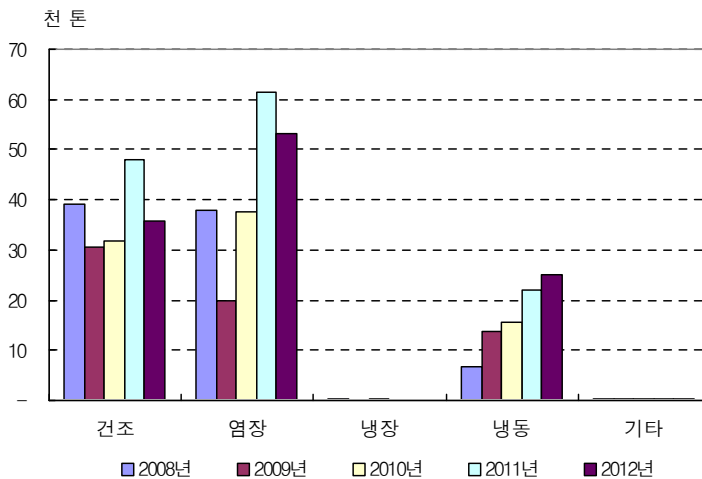
〈그림 8-17〉 월별 미역 수출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수출되는 미역 제품은 마른미역, 염장미역, 냉장미역, 냉동미역 및 기타 등이다. 최근 5년 평균 염장미역 수출 비중이 전체의 4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마른미역이(38.6%), 냉동미역(17.2%) 순이다.
 - 2012년 염장미역 수출량은 5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했으며, 마른미역은 3만 6천 톤 25.5% 감소했다.
 - 그에 비해 냉동미역은 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제품별 수출금액은 최근 5년 평균 마른미역이 5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염장미역(23.9%), 냉동미역(22.0%) 등의 순이다.
 - 2012년 마른미역 수출금액은 1,7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0% 감소했으며, 염장미역은 817만 달러로 17.4% 감소했다.
 - 한편 전년 대비 수출량이 증가했던 냉동미역의 경우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968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8-18〉 미역 제품별 수출량 추이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미역 수출대상국은 주로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다. 최근 5년 평균 수출 대상국별로는 일본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33.8%,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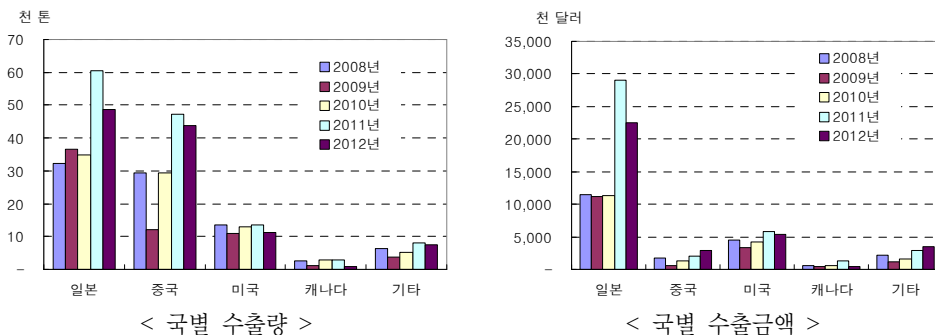
13.0% 등의 순이다. 그러나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64.8%, 미국 17.6%, 중국 6.5%, 캐나다 2.6% 등의 순이다.

- 즉 수출물량은 중국이 일본에 이어 2위이나 수출금액으로는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이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역은 대부분 마른미역보다 가격이 저렴한 염장미역이기 때문이다.

○ 2012년 국별 수출 추이를 보면, 모든 국가의 수출량 및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 그 중 일본으로의 수출량 및 수출금액 감소폭이 컸다. 이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
- 한편 중국으로의 미역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금액은 증가했다. 이는 중국으로의 미역 수출단가가 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림 8-19〉 미역 수출대상국별 수출량 및 수출금액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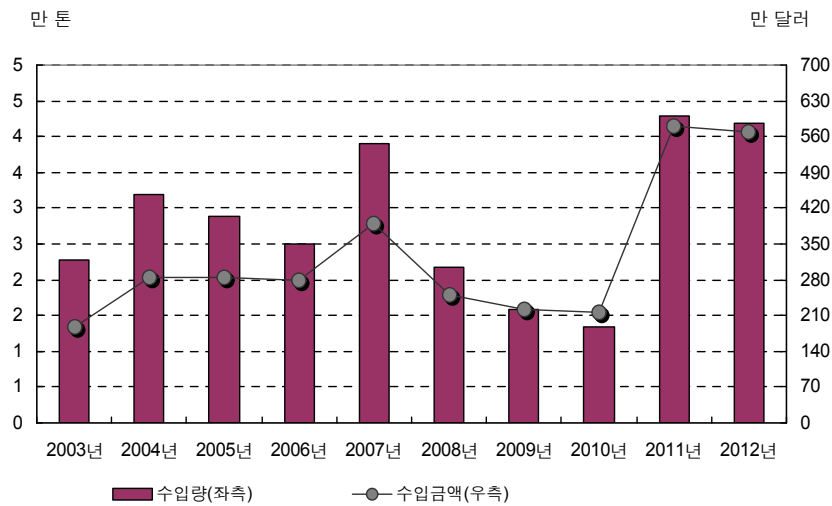
(2) 수입

○ 2000년대 초·중반기의 미역 수입은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했고, 2007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2012년에는 수입량이 급증했다.

- 2012년 미역 수입량은 4만 2천 톤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았으나 전년보다는 2.3% 감소했으며, 수입금액도 57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2.3% 감소했다.

- 미역 수입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이다. 최근 5년 평균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의 98.7%이며, 일본은 1.3%를 점유한다.
-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96.3%, 일본이 3.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8-20〉 연도별 미역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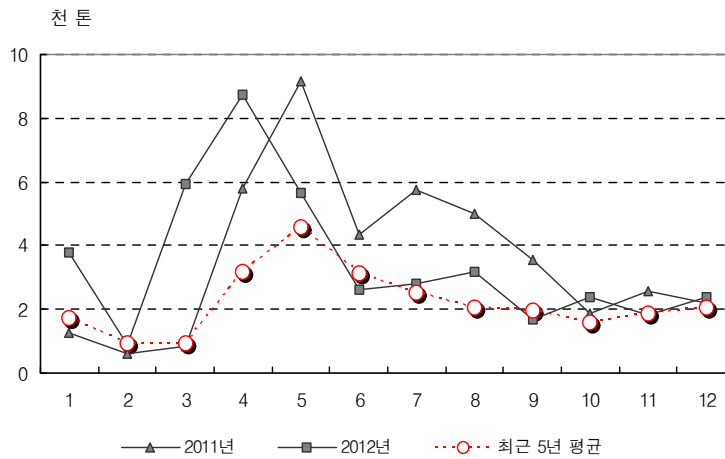


주 : 미역 수입량은 원초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월별 미역 수입량을 보면, 예년에는 연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2012년의 월별 미역 수입량 추이를 보면, 2~4월의 수입량이 예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가공용 물미역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 따라서 이 시기에 미역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미역 가공단가의 차이로 가공용 원료로 수출된 미역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8-21〉 월별 미역 수입량 추이



주 : 미역 수입량은 원초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3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보다 소폭 증가한 44만~46만 톤으로 전망된다.
 - 어기 초 이상 고온과 해적생물에 의해 작황이 부진했던 2012년산에 비해 2013년산은 수온 및 해황여건이 좋고 양성상태가 예년보다 양호하다.
 - 또한 2013년산 미역 시설량이 전년산 대비 5% 증가했고, 어기 초 수온, 해황 등이 양호하고 작황도 좋다. 따라서 2013년산 전체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

- 2013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전년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나물용과 가공용 모두 전년산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미역 수요 증가의 영향 때문이다.

- 그러나 2013년산 미역 생산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어기 초 양성 상태가 좋아 미역 산지가격은 전년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어기 초의 경우 2013년산 미역 시설 설치시기가 다소 늦어 11월 나물용 물미역 산지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마른실미역 도매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급등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수요에 의한 가격지지가 아닌 수출 증가 및 가격 변동성이 적은 미역 도매가격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2013년산 가공용 미역 생산이 본격화되는 2월 이후에는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출

- 2013년 미역 수출량은 작년 대비 13~18% 감소한 9만 4,000톤 ~ 9만 9,000톤³⁾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미역 수출량은 2~3월의 가공용 원료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으로의 미역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연간 수출량은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 2013년에는 이러한 미역 수출 수요와 가공용 원료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수출량은 2012년의 8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미역 수입량은 전년보다 54~57% 감소한 1만 8,000톤 ~ 1만 9,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미역 수출량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데 반해 미역 수입량은 2.3% 감소했다. 즉 임가공용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의 수입이 201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3) 수출되는 미역 종류는 마른미역, 냉동 및 냉장미역, 염장미역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 제시하는 미역 수출입량은 이를 물미역으로 환산한 수치임.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미역 수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2013년에는 일본으로의 미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미역 수입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그 양은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

- 미역은 일반적인 소비행태로 볼 때, 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품목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미역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수급 동향을 보였다.
- 그러나 2013년에는 국내 미역 생산량이 전년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내 소비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국내 미역 소비량 증가에는 식용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의 수요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8-16〉 2013년 미역 수급 전망

단위 :톤, %

구 분	2010	2011	2012	2013(전망)
< 공급량 >	472,008	532,697	437,440	438,000~460,000
-생산량	458,689	489,800	395,545	420,000~441,000
-수입량	13,319	42,897	41,895	18,000~19,000
< 수요량 >	472,008	532,697	437,440	438,000~460,000
-소비량	386,664	400,732	323,600	344,000~361,000
-수출량	85,344	131,965	113,840	94,000~99,0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12년은 추정치이며, 2013년은 전망치임.

3) 수출입량은 물미역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제9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I.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최운범*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출 | 4) 소비 |

1. 서론

- 2009년 이후 광어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수요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장마와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영향, 총선 및 대선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였다.
-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태풍 이후 출하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은 상승하였다.
- 수출은 일본에서 한국산 활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진했고, 대미 수출 또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수출량은 소폭 감소하였다.
- 2013년 출하량은 양성물량 부족으로 2012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수요 또한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세를 보

* 연구원

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또한 현재와 같은 부진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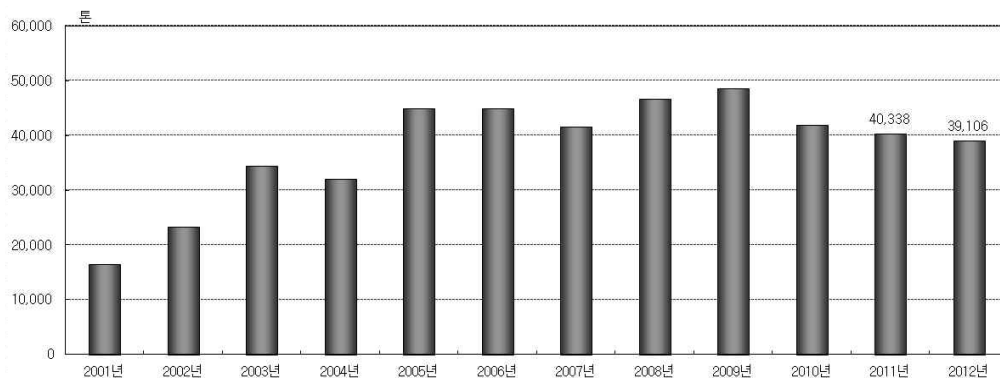
2. 2012년 동향

1) 생산

(1) 연도별 생산동향

-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광어 생산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12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특히 2012년에는 태풍 불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주요 양식지역인 제주와 완도 지역의 육상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광어 생산량은 3만 9,106톤으로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으며, 2009년에 4만 8,600톤이 생산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9-1〉 광어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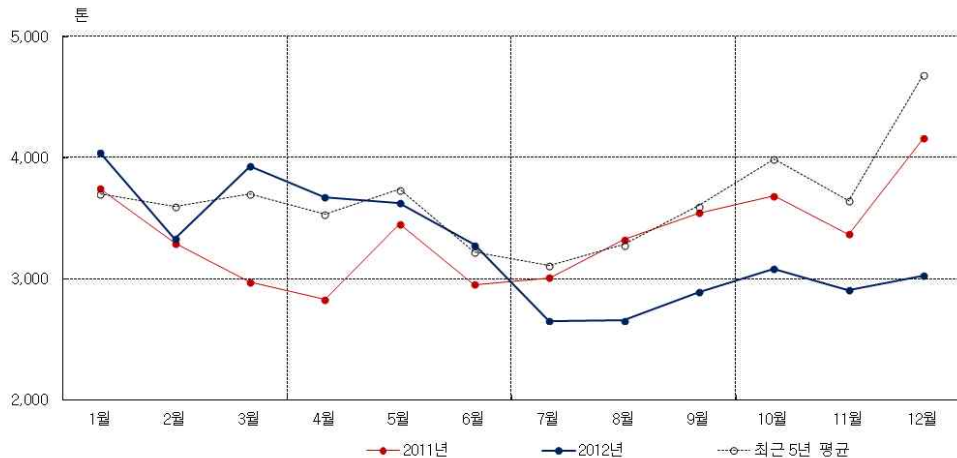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2001~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2006~2012)

(2) 월별 생산동향

- 201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생산량은 2012년 3월부터 감소세를 보였

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광어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9-2〉 광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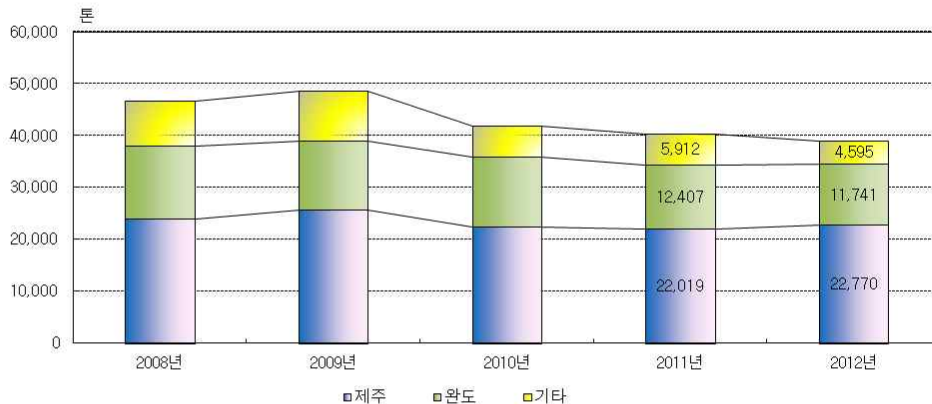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이후 8월말과 9월 초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주요 양식 지역인 제주와 완도 지역의 육상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일부 양식장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집단 폐사가 발생했고, 또한 시설물 파손에 따른 양성 물량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8월 이후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 생산량은 적었고, 최근 5년 평균 생산량과도 차이를 보일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3) 지역별 생산동향

- 최근 지역별 생산량 동향을 살펴보면, 제주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와 기타지역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기타지역의 경우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경북과 거제지역의 경우 생산자들이 광어 양식을 대신하여 강도다리 양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3〉 광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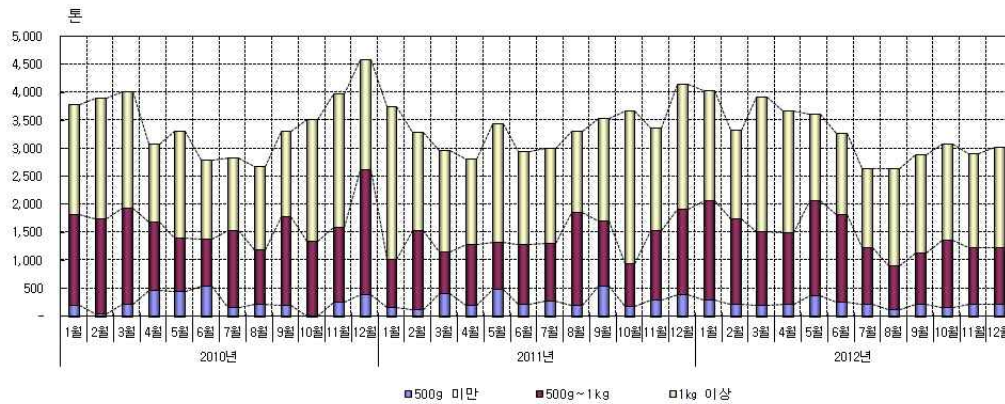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2012년 제주는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완도와 기타지역은 감소했다. 제주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만 2,770톤이 생산되었으나, 완도는 5.4% 감소한 1만 1,741톤이, 기타지역은 22.3% 감소한 4,595톤이 생산되었다.
-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이어져 제주와 완도지역의 비중은 높아지는 가운데 기타지역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북과 경남의 생산자들이 계속해서 강도다리 양식으로 어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크기별 생산동향

- 크기별 생산량은 1kg 이상 크기가 전체 생산량의 50.4%인 2만 3,409톤이었으며, 500g~1kg 크기는 35.8%인 1만 5,078톤이었다. 500g 미만 크기의 생산량은 전체의 6.6%인 2,781톤이 생산되었다.
- 크기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500g~1kg 크기는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반면, 나머지 크기는 2%가량 감소했다.
- 이는 태풍 피해로 일부 어장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치어와 대형어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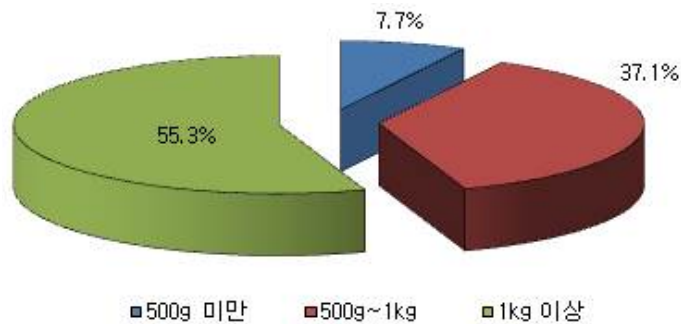
〈그림 9-4〉 광어의 크기별 생산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한편 최근 3년간 크기별 생산비율을 살펴보면, 1kg 이상의 크기가 5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0g~1kg 크기가 37.1%, 500g 미만이 7.7%로 나타났다.

〈그림 9-5〉 최근 3년간 크기별 생산비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5)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동향

- 2012년 광어 입식량은 예년보다 7%가량 적은 9,300여만 마리였다. 상반기에는 예년보다 다소 많은 6,900여만 마리가 입식되었으나, 태풍 이후 입식이 부

진하여 전체 입식량은 감소하였다.

- 특히 완도의 경우 태풍 피해로 절반 정도의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입식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 한편 시설물 복구 후에 치어 입식보다는 중간종묘 입식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생산자들이 2013년 상반기 출하를 위해 어병과 저수온에 강한 중간종묘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표 9-1〉 광어의 입식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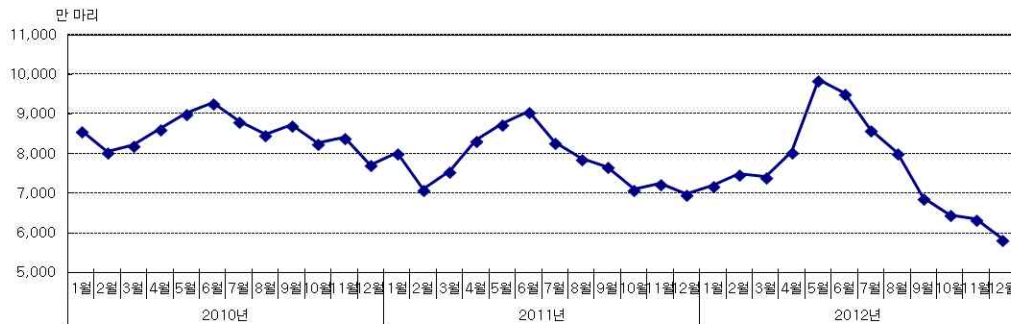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년	입식량	648	561	428	868	620	1,552	136	363	611	744	1,168	150	7,849
	비 중	8.3	7.1	5.5	11.1	7.9	19.8	1.7	4.6	7.8	9.5	14.9	1.9	100.0
2011년	입식량	504	264	750	1,170	1,536	998	177	329	368	828	885	561	8,370
	비 중	6.0	3.2	9.0	14.0	18.4	11.9	2.1	3.9	4.4	9.9	10.6	6.7	100.0
2012년	입식량	801	656	814	1,323	2,281	1,079	569	225	174	576	473	341	9,312
	비 중	8.6	7.0	8.7	14.2	24.5	11.6	6.1	2.4	1.9	6.2	5.1	3.7	10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② 양성 동향

- 월별 양성물량 추이를 보면 2012년 5월에 양성물량이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입식 이후 양성되고 있던 물량이 여름 성수기에 일부 소진되었고, 가을입식이 이뤄져야 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입식량이 감소하여 양성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2012년 12월말 현재 양성물량은 작년 동월 및 최근 3년 평균 양성물량에 비해 각각 16.2%, 25.3% 적은 수준이다.
 - 이는 완도에서 태풍 이후 수질악화로 양성상태가 좋지 못해, 치어입식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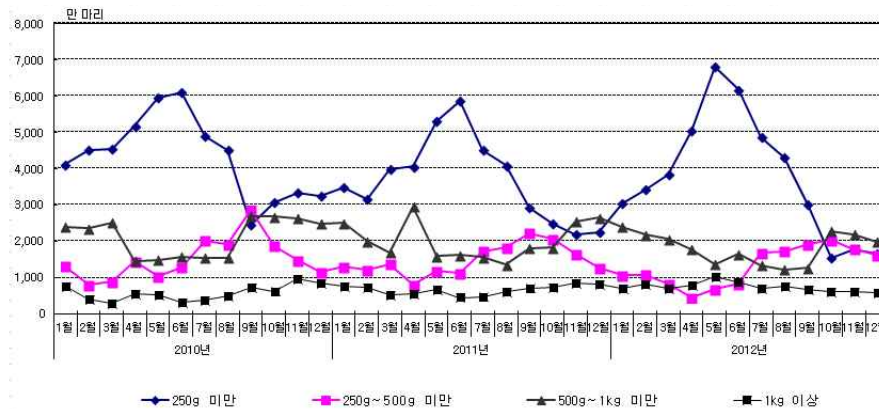
〈그림 9-6〉 광어의 총 양성물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크기별 양성물량을 살펴보면, 전체 크기에서 최근 3년 평균 물량에 비해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형어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의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중형어와 대형어의 양성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8월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태풍 이후 수질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대량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어가들이 양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250g 미만 크기의 경우 5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10월 이후에도 치어입식이 원활하지 않아 양성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림 9-7〉 광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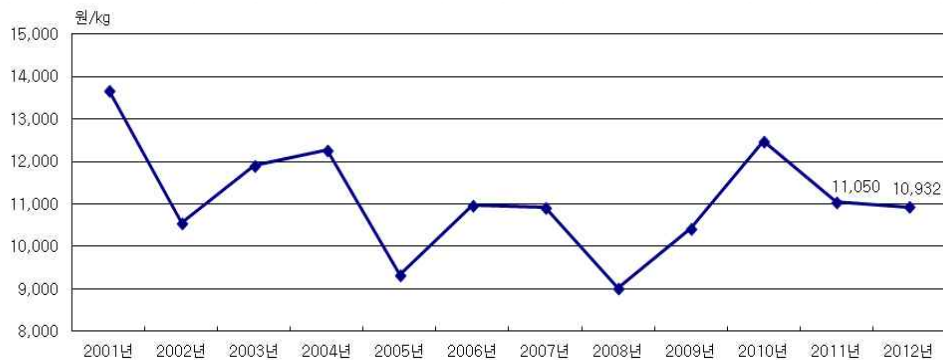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 가격

(1) 연도별 가격동향

- 최근 10년간 광어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12년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태풍 이후 공급이 감소하여 9월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9-8〉 연도별 광어 가격 추이



주 : 제주지역 1kg크기 기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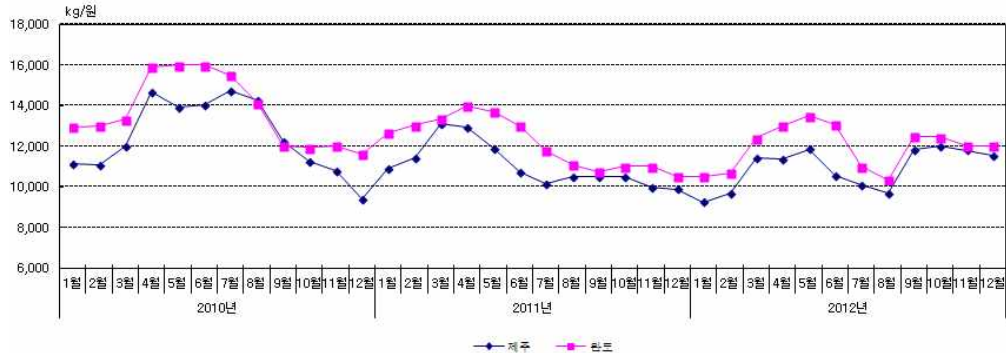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2) 월별·지역별·크기별 가격동향

① 월별·지역별 가격동향

- 최근 가격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봄철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겨울철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여름철에도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2년에는 최근 패턴에 따라 봄철에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었고, 여름철까지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태풍이라는 변수로 가격이 급등하여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9-9〉 광어의 월별·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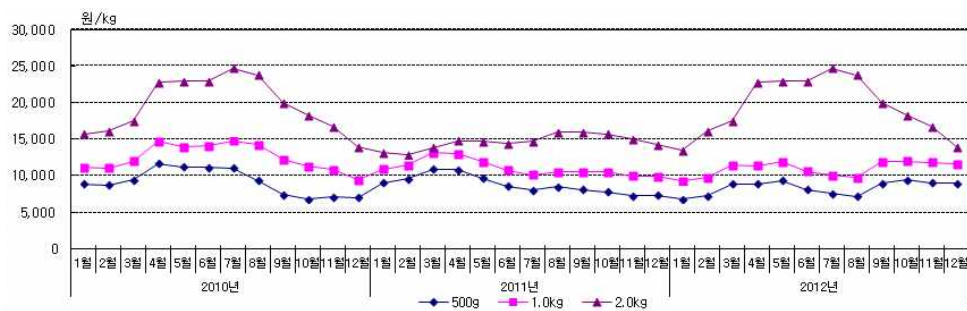
주 : 제주, 완도 1kg 크기 가격

자료 : 각 지역 어류양식수협

② 월별·크기별 가격동향

- 2012년 크기별 월별 가격은 2kg 크기를 제외하고 봄철 성수기인 5월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여름철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9월에 다시 상승하여 연말까지 유지되고 있다.
- 2kg 크기의 경우는 여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하락하였다. 이는 꾸준히 양성되고 있던 물량이 태풍 피해 복구와 맞물리면서 밀어내기식 출하로 공급이 증가했으나, 수요는 부족하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림 9-10〉 제주지역 광어의 월별·크기별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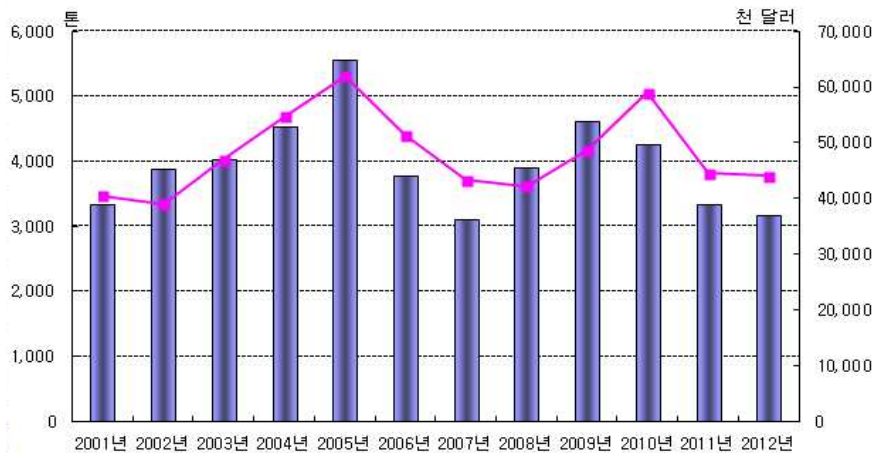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3) 수출

(1) 연도별 수출동향

- 최근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수출 물량 감소폭이 컸다.
-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 내에서 안전성 문제로 한국산 활어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소비 패턴이 육류 소비는 늘리고 수산물 소비는 줄이고 있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9-11〉 연도별 광어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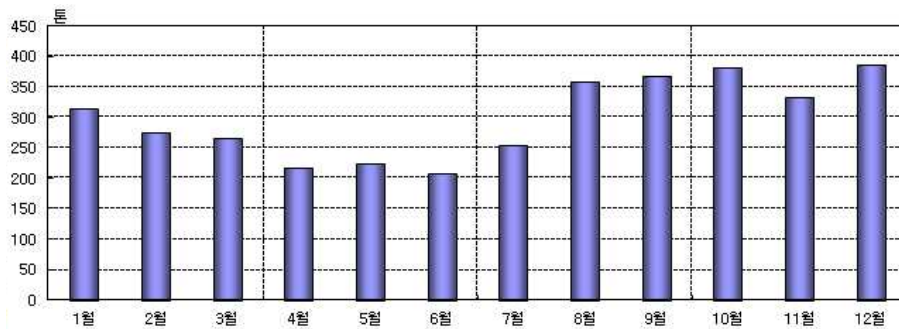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각 연도.

- 광어 수출국은 총 12개국이며, 이중 81.6%는 일본으로, 7.5%는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 2011년 일본 수출 비중이 93.3%, 미국 수출 비중이 5.9%였음을 감안했을 때, 일본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고, 미국 수출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한편 중국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1%에 그쳐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월별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월 평균 광어 수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출 물량이 많았는데, 전체 물량의 58.0%가 하반기에 수출되었다.
- 이는 일본산 광어의 생산시기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명절과 연말 소비가 집중되는 하반기에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9-12〉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광어 수출량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각 연도.

- 2012년에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출단가와 환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일본 수출이 원활하지 못해 수출량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9-13〉 연도별 환율 및 수출 단가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2년 12월 기준 양성물량은 예년에 비해 약 25% 적은 수준이다.
- 전체 양성량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250~500g 미만 크기의 물량은 평균 물량보다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크기도 평균 물량보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 출하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9-2〉 광어 양성량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평균	전년 동월 대비	3년 평균 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합계	8,795	7,724	6,976	5,849	7,832	-16.2	-25.3
250g 미만	3,832	3,248	2,237	1,654	3,106	-26.1	-46.7
250g~500g 미만	1,764	1,157	1,268	1,627	1,396	28.3	16.5
500g~1kg 미만	2,586	2,481	2,653	1,981	2,573	-25.3	-23.0
1kg 이상	613	838	818	587	756	-28.2	-22.4
500g 미만 양성물량	5,596	4,405	3,505	3,281	4,502	-6.4	-27.1
500g 이상 출하 가능량	3,199	3,319	3,471	2,568	3,330	-26.0	-22.9
6개월 이내 출하 가능량	4,963	4,476	4,739	4,195	4,726	-11.5	-11.2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금년 봄철 입식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양성물량 부족으로 인해 상반기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작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2013년 생산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 8,000~4만 1,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3년 광어가격은 상반기 보합세, 하반기 하락이 전망된다.
 - 연초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수요 또한 감소하여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양성하고 있던 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2013년 평균 광어가격은 2012년 kg당 11,000원대보다 소폭 하락한 kg당 9,500~10,000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국내 광어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2년 광어 수입은 소량에 불과했으며, 2013년에도 수입은 없거나 소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13년 수출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한국산 광어에 대한 검역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 증대 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2013년 수출량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수출량은 2012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3,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

- 광어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광어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3만 5,100톤~3만 7,2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3〉 2013년 광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

구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
공급	국내 생산량	39,106	38,000~41,000	-2.8~-4.8
	수입량	0	0	-
수요	국내 소비량	35,939	35,100~37,200	-2.3~-4.9
	수출량	3,167	2,900~3,300	-8.4~-4.2

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임

II. 우럭 수급동향과 전망

박태경*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입 | 4) 소비 |

1. 서론

- 2012년에는 2009년 전후로 과다 입식된 물량이 성장하면서 출하가능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부진하여 물량적체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 또한 상반기에는 물량적체로 빈 가두리를 확보하지 못해 종묘 입식량이 8천 4백만 마리에 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 하반기에 들어서는 적체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지가격 또한 상승했다.
- 향후에는 오히려 물량부족과 가격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2012년에 입식물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출하가능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한편 우럭 수입량은 2011년에 268톤을 수입했으나, 2012년에는 국내산 가격 하락과 중국산 수입여건 악화로 인해 수입이 전혀 없었다.

*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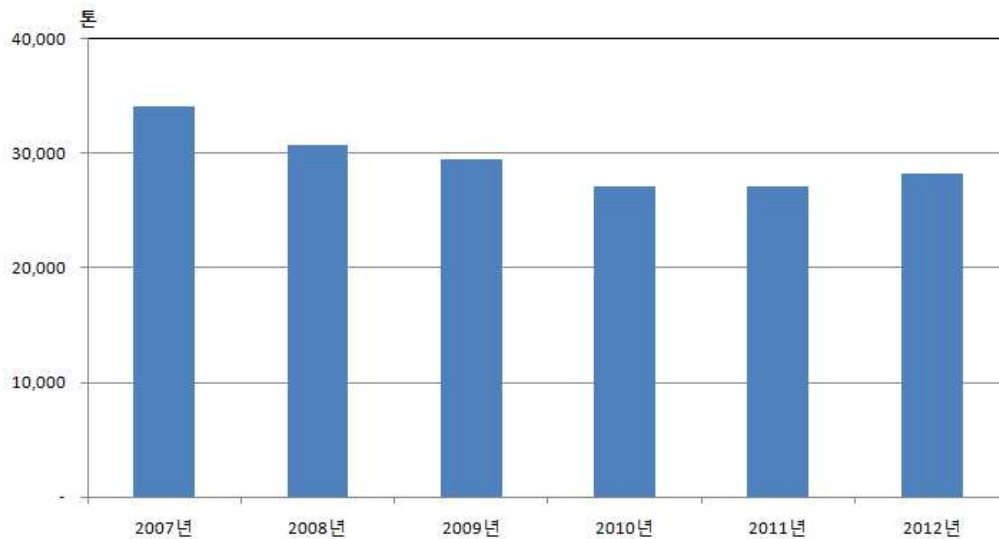
2. 2012년 동향

1) 생산

(1) 연도별 출하동향

- 2007년 3만 4천여 톤이 출하된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던 우럭 출하량은 2012년 들어서 5년 만에 출하량이 증가했다.
- 그러나 이는 물량적체가 워낙 심해 폭락한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출하한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출하량 증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한편 하반기에는 적체된 물량이 해소되면서 출하가능물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다.

〈그림 9-14〉 우럭의 연도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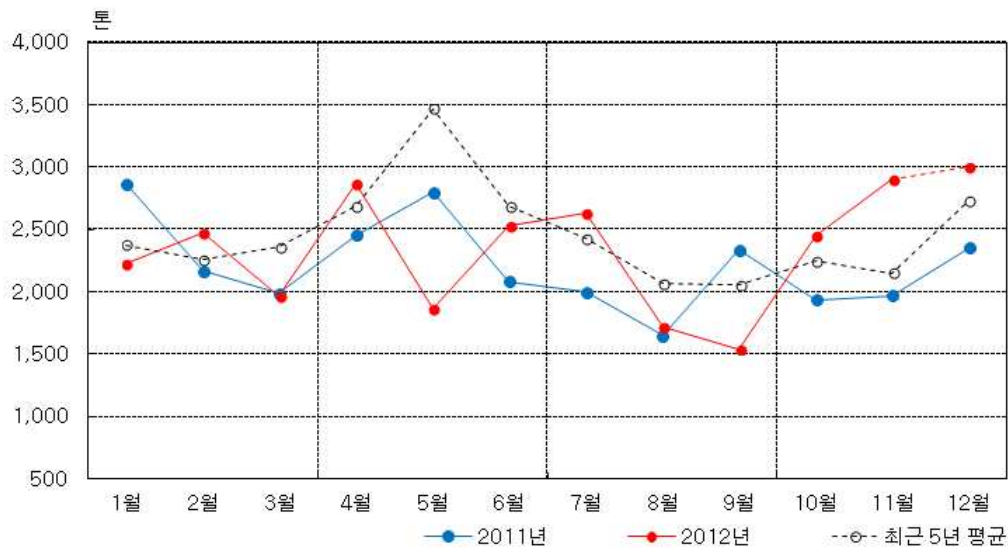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월별 출하동향

- 2012년 우럭의 월별 출하물량은 전년에 이어 계절에 따라 증감하던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예년에는 봄철에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가 여름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겨울에는 연말 수요로 인해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그러나 2011년 이후로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물량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출하와 관련된 계절성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편 8월과 9월에는 태풍과 고수온으로 인해 출하량이 급감했으나, 9월 중순 이후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출하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그림 9-15〉 우럭의 월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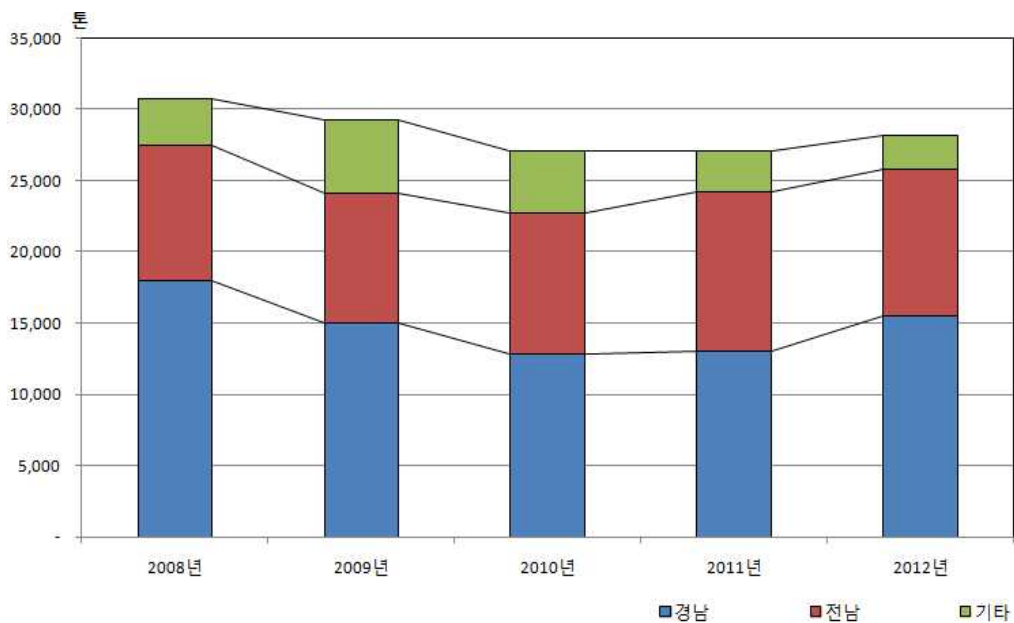
주 : 2012년 12월은 전망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3) 지역별 출하동향

- 최근 5년간 우력의 지역별 출하비중을 살펴보면, 경남의 출하비중은 2007년 64.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48.2%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55.0%로 증가했다.
 - 2012년 경남 출하량은 15,495톤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 전남은 경남과 반대로 2007년 26.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41.4%를 기록하였다가 2012년에는 36.5%로 감소했다.
 - 2012년 전남 출하량은 10,274톤으로 전년에 비해 8.3% 감소했다.
- 한편 기타지역은 2007년 8.8%에서 비중이 늘다가 다시 감소해 2012년에는 8.5% 수준을 보였다.
 - 2012년 기타지역 출하량은 2,415톤으로 전년에 비해 13.7% 감소했다.

〈그림 9-16〉 우력의 지역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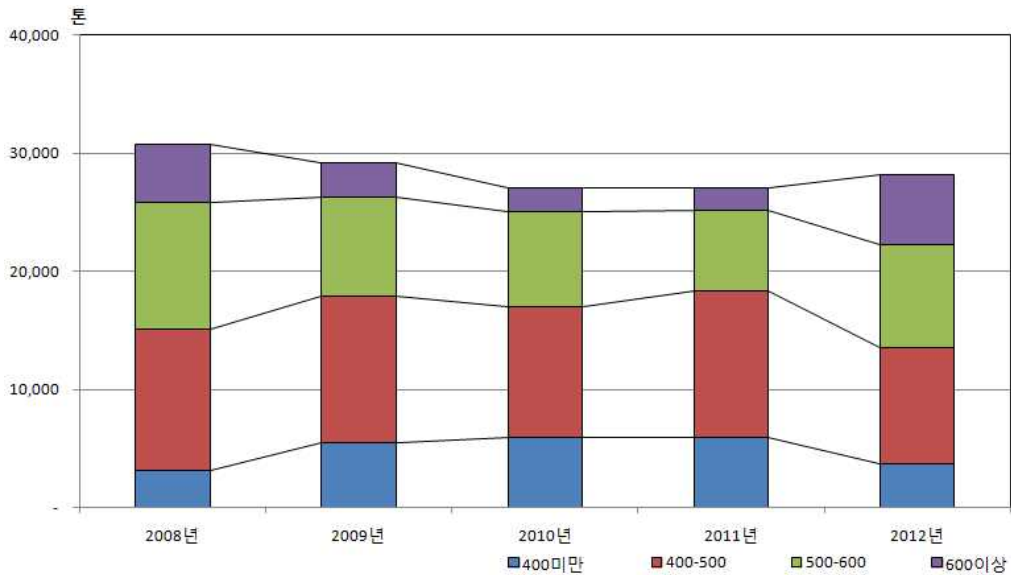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4) 크기별 출하동향

- 우럭 횡감용으로 주로 출하되는 크기는 500g 이상인데, 2009년 이후로 산지에서 사료가격 상승 등 경영압박으로 인해 빠른 자금회전이 필요해져서 500g 이하의 작은 크기 출하를 늘리다 보니 큰 크기의 출하량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00년대 초에는 500g~1kg 크기가 주 출하 크기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주 출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다.
- 그러나 2012년에는 500g 이상, 특히 600g 이상 크기의 물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부진에 의한 물량적체가 원인이다.

〈그림 9-17〉 우럭의 크기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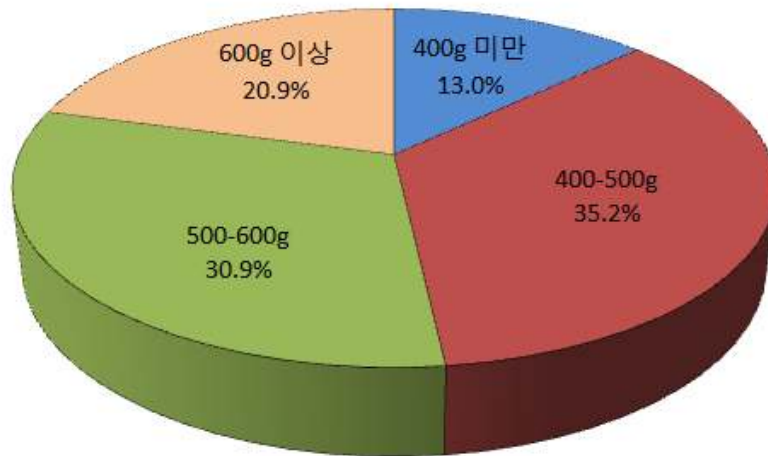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한편, 2012년의 크기별 출하량은 400~500g 크기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600g(30.9%), 600g 이상(20.9%), 400g 미만(13.0%) 순이었다.

〈그림 9-18〉 2011년 우럭의 크기별 출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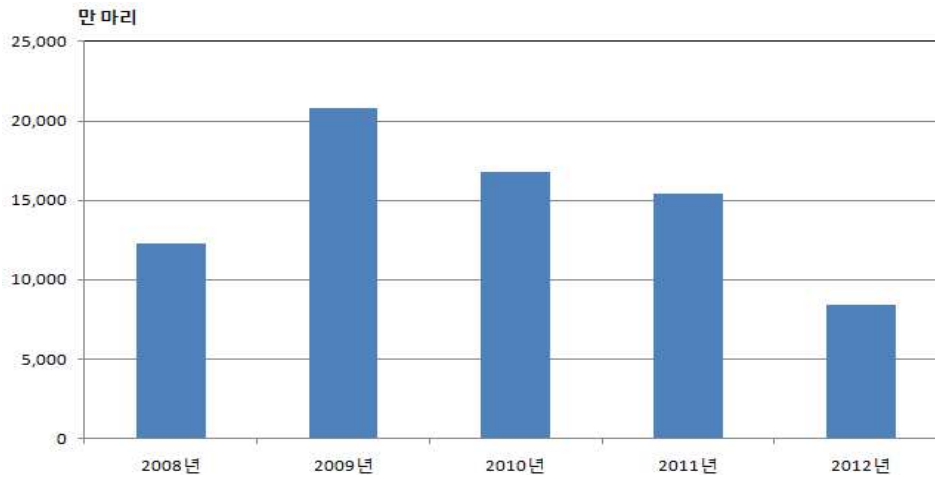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5)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동향

- 양성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소비부진에 의한 물량적체는 우럭의 입식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2년 입식량은 8,400만 마리로 2011년 1억 5,400만 마리보다 45.5%나 급감했는데, 이는 물량적체로 인해 치어를 입식할 빈 가두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또한 배양장에서 우럭 종묘를 거의 생산하지 않아 종묘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 것도 2012년 입식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림 9-19〉 우럭의 입식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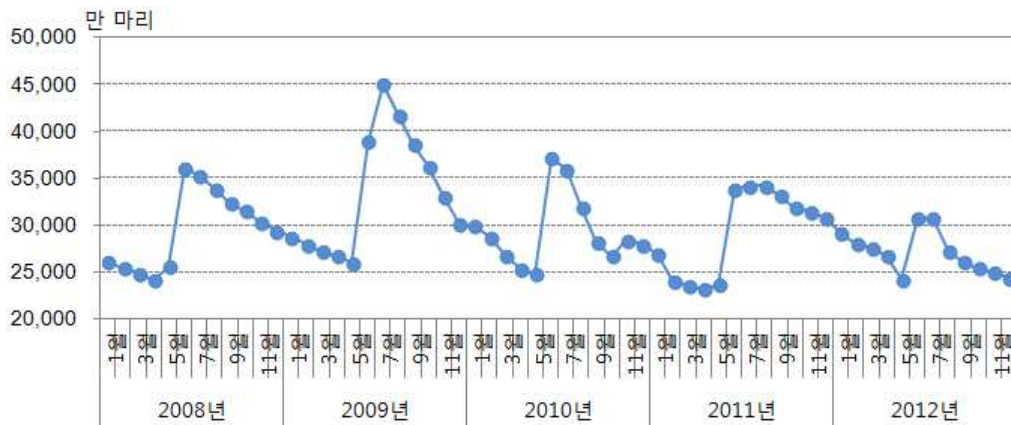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② 양성동향

- 2012년 12월 말 기준 양성물량은 약 2억 4천만 마리로 2011년 대비 20.8% 적은 물량이다.
- 이는 입식량이 예년에 비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출하로 인해 출하가능물량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9-20〉 우럭 총 양성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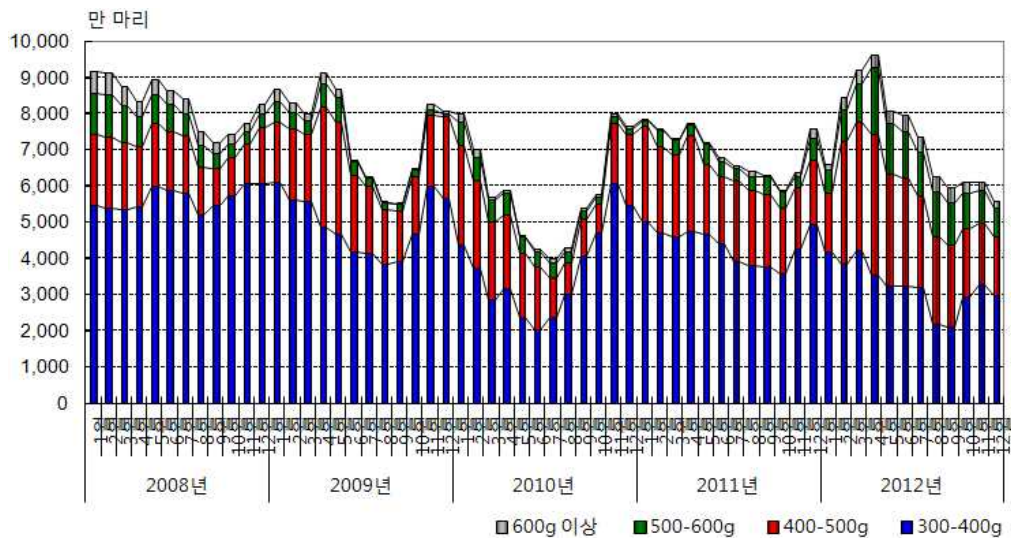


주 : 2012년 12월은 전망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2012년 12월 말 기준 300g 이상의 출하가능물량은 5,600여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말에 비해 26.4% 적은 수준이다.
- 크기별로는 500~600g 크기를 제외한 모든 크기에서 2011년에 비해 양성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1〉 우럭의 출하가능물량 추이



주 : 2012년 12월은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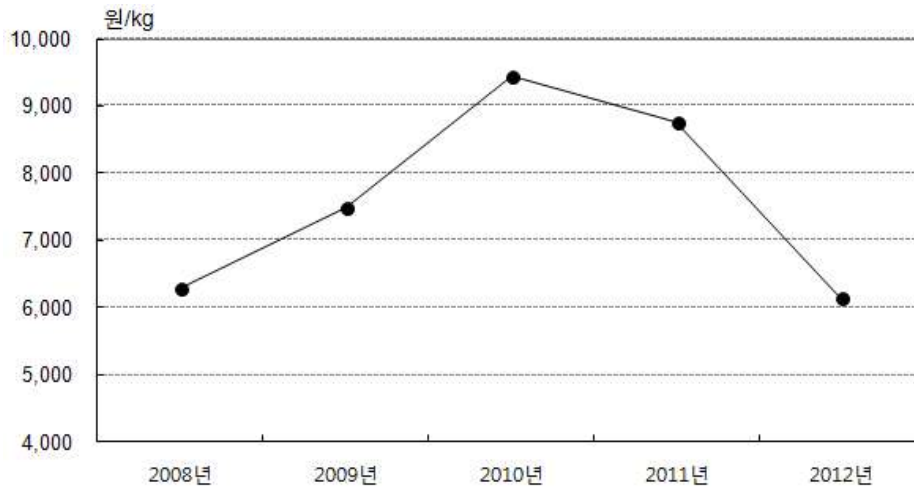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가격

(1) 연도별 가격동향

- 2012년의 평균 산지가격은 6,133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 하락했다.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산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우럭의 종묘 입식량이 해마다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우럭 산지가격 또한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9-22〉 우럭의 평균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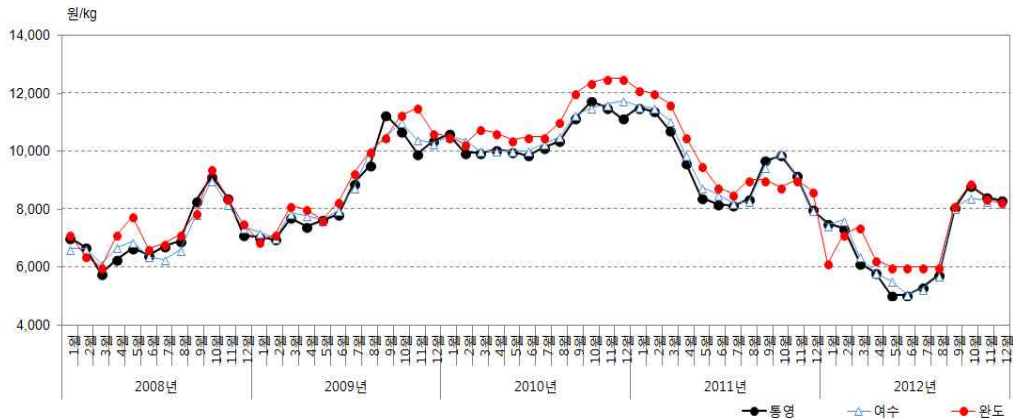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 지역별 · 크기별 가격동향

-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완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해왔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고정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 2012년 통영의 평균가격은 6,783원으로 전년에 비해 27.9% 하락했으며, 여수는 6,808원으로 28.4%, 완도는 7,042원으로 28.0% 하락했다.
- 한편 예년에 비해서는 통영 19.4%, 여수 19.8%, 완도 19.9%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9-23〉 우럭의 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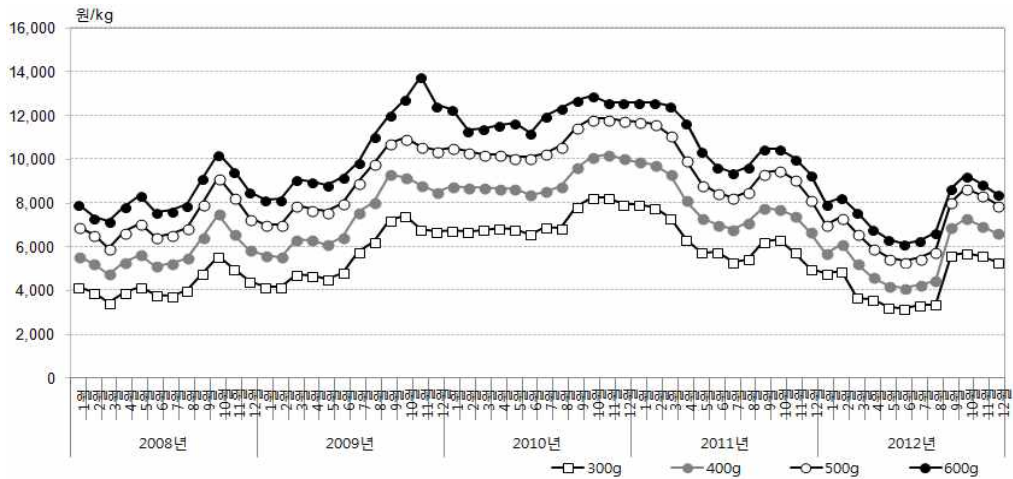
주 : 1) 각 지역 500g 크기의 kg당 가격

2) 2012년 12월은 전망치임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 크기별로는 모든 크기에서 평균가격 변화와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00g 크기는 6.2% 높은 수준이었으며, 400g, 500g, 600g 이상 크기는 각각 0.8%, 2.9%, 9.7%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9-24〉 우럭의 크기별 가격 동향



주 : 1) 통영, 여수, 완도지역 각 크기의 kg당 평균 가격

2) 2012년 12월은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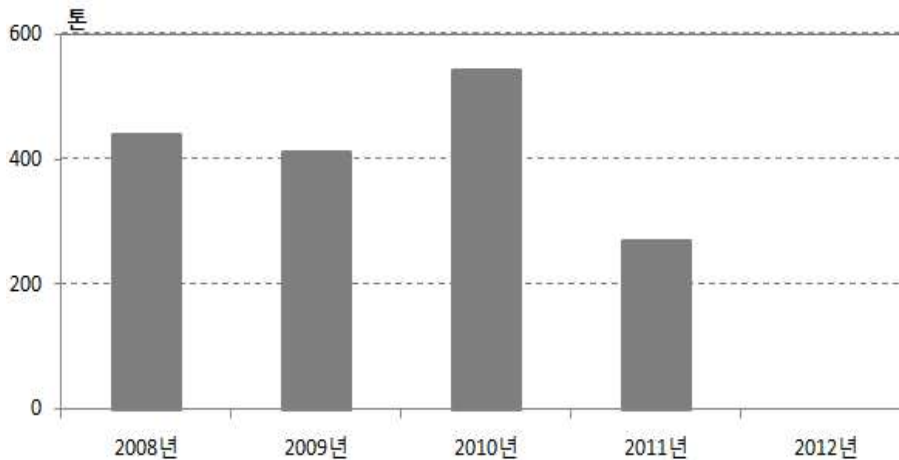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3) 수입

(1) 연도별 수입동향

- 2012년에는 우럭의 수입이 전혀 없었다.
- 2012년에는 우럭뿐만 아니라 주요 활어의 수입량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예년보다 높았던 여름철 수온에 의해 수입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럭의 수입이 없었던 것은 국내산 우럭의 물량적체로 인한 가격하락과 중국에서의 수입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9-25〉 연도별 우럭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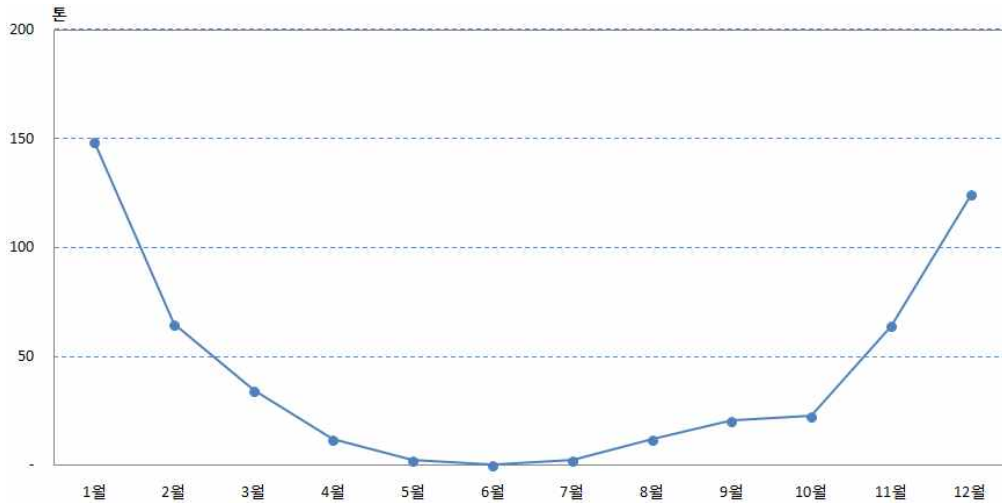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2) 월별 수입동향

- 최근 5년간 평균 우럭 수입량을 살펴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었다가 점차 수입량이 감소하여 수입이 거의 되지 않는 6월을 기점으로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2011년 12월에 4톤이 수입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은 수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림 9-26〉 최근 5년간 평균 월별 우럭 평균 수입량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3년의 우럭 출하량은 20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에 입식량이 2억 800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로 입식량이 점차 감소했으며, 특히 2012년의 입식량은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이다.
 - 입식량은 2~3년 후의 출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입식량 감소는 향후 2년 간 출하량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소비부진으로 인해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2013년은 2012년과 비슷한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2013년 총 출하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인 2만 8,00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3년의 우럭 산지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년 출하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이고, 그동안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물량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아직까지는 산지에서 물량이 적체된 어가들이 남아있고 연말연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1/4분기까지는 산지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2/4분기 이후로는 출하량 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2013년에는 2012년에 이어 우럭 수입이 없거나 소량 수입이 그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에도 소비심리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의 수입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수입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출측면에서는 업계에서 다각도로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는 수출량이 늘 것으로 보이나, 2013년까지는 수출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비

-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럭 소비부진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2012년 중반까지 심각한 물량적체가 있었으나,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면서 물량적체가 해소되고 산지가격이 상승했다.
- 향후에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한 입식량으로 인해 출하가능물량이 점차 부족해질 전망이다.
-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하가능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국내 소비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9-4〉 2013년 우력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분		2012년 (A)	2013년 (B)	전년 대비 증감 (B/A)
공급	국내 생산량	28,185	27,000~29,000	95.8~102.9
	수입량	0	0	0.0
수요	국내 소비량	28,173	26,985~28,975	95.7~102.8
	수출량	12	15~25	125.0~208.3

주 : 2012년은 12월 전망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III.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노승국*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입 | 4) 소비 |

1. 서론

- 최근 송어업계는 겨울철 송어 축제의 확산과 바다송어 양식의 추진 등으로 양적·질적 성장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2005년 이후 급감했던 송어 생산량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에는 역대 최고 가격 수준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 2012년 송어 생산량은 송어 축제 활성화와 바다송어 시험양식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11년 대비 3.3% 많은 3,005톤이 생산되었다.
- 2012년 송어 가격은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인해 2011년 대비 9.4% 낮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 2012년 송어 수입량은 900여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008년에 917톤이 수입된 이후 연간 900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 송어의 최근 3년 평균 공급량은 3,687톤이었다. 이중 국내 생산량이 공급량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총공급량의 24.8%에 해당하는 916톤이었다.
- 또한 송어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중, 국내 소비량은 3,223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87.4%였고, 평균 수출량은 약 464톤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하였다.

* 연구원

〈표 9-5〉 송어 연도별 수급추이

단위 : 톤

구 분	평균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공 급 량	3,687	1.00	3,311	3,826	3,924
	국내생산량	0.75	2,401	2,908	3,005
	수입량	0.25	910	918	919
수 요 량	3,687	1.00	3,311	3,826	3,924
	국내소비량	0.87	2,679	3,434	3,557
	수출량	0.13	632	392	367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 2012년 동향

1) 생산

(1) 연도별 생산동향

- 2012년 국내 송어 생산량은 2011년 대비 3.3% 많은 3,005톤이었다. 송어 축제가 지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송어 생산량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금액도 2010년 186억 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2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도 236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27〉 연도별 송어 생산량 ·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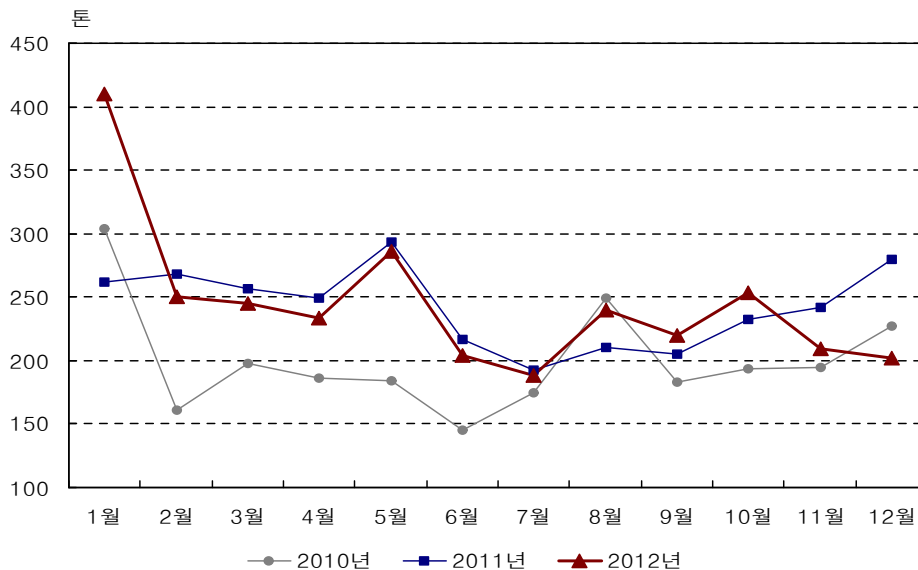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생산량),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생산금액)

(2) 월별 생산동향

- 월별 송어 출하량은 일반적으로 상춘객 수요가 증가하는 5월과 8월 휴가철에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최근 송어 축제의 활성화로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겨울철 송어 축제의 시작과 종료를 기점으로 12월과 1월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2011년에는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었던 반면 2012년에는 1월에 출하가 집중되어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410톤을 기록하였다.
- 한편 금년 3~5월에는 작년보다 출하량이 적었는데, 이는 작년과 달리 구제역, 원전사태 등과 같은 송어 수요를 증가시키는 외부요인이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9-28〉 송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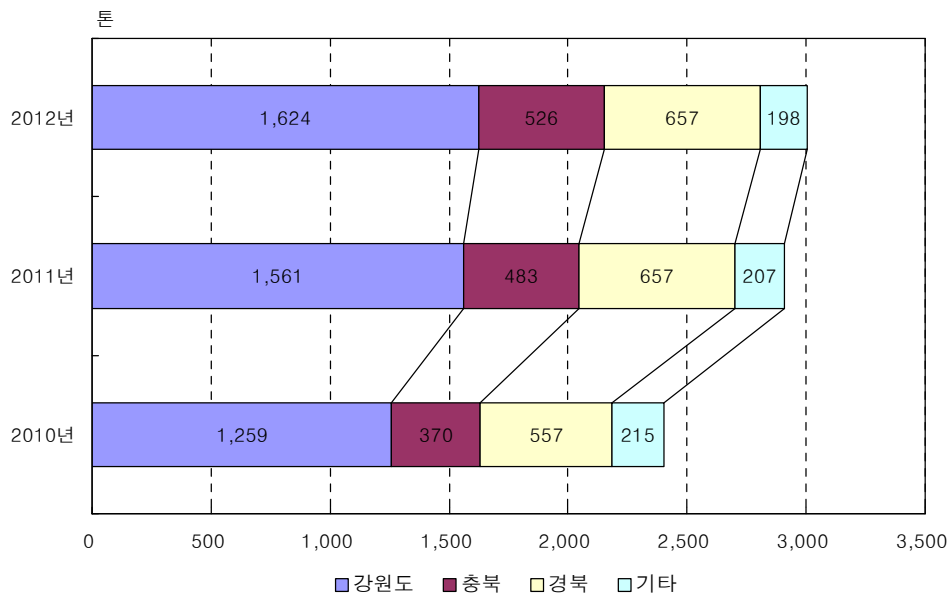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3) 지역별 생산동향

- 최근 3년간 송어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북지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지역과 기타지역은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송어 축제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12년 지역별 송어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1,624톤으로 전체 생산량(3,005톤)의 54.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657톤으로 21.9%, 충북이 526톤으로 17.5%, 기타지역이 198톤으로 6.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9〉 송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4)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

- 송어의 입식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부터 시작되어 익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이 중 국내산 란(卵)은 11월~익년 6월에 입식이 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로

수입란이 입식된다.

-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입식량은 651만 마리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1년의 입식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2012년 입식량도 예년보다 많은 양임을 알 수 있다.
- 최근 송어의 입식량이 예년 대비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는 겨울철 송어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바다송어 사업 또한 지역별로 확대·추진되고 있어 생산자들이 입식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표 9-6〉 송어의 입식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	입식량	110	78	98	107	54	12	18	3	3	21	18	8	530
	비중	20.8	14.7	18.5	20.2	10.2	2.3	3.4	0.6	0.6	4.0	3.4	1.5	100.0
2011	입식량	166	165	105	114	77	30	22	7	17	8	6	42	759
	비중	21.9	21.7	13.8	15.0	10.1	4.0	2.9	0.9	2.2	1.1	0.8	5.5	100.0
2012	입식량	134	199	87	92	96	43	20	61	11	8	11	55	817
	비중	16.4	24.4	10.6	11.3	11.8	5.3	2.4	7.5	1.3	1.0	1.3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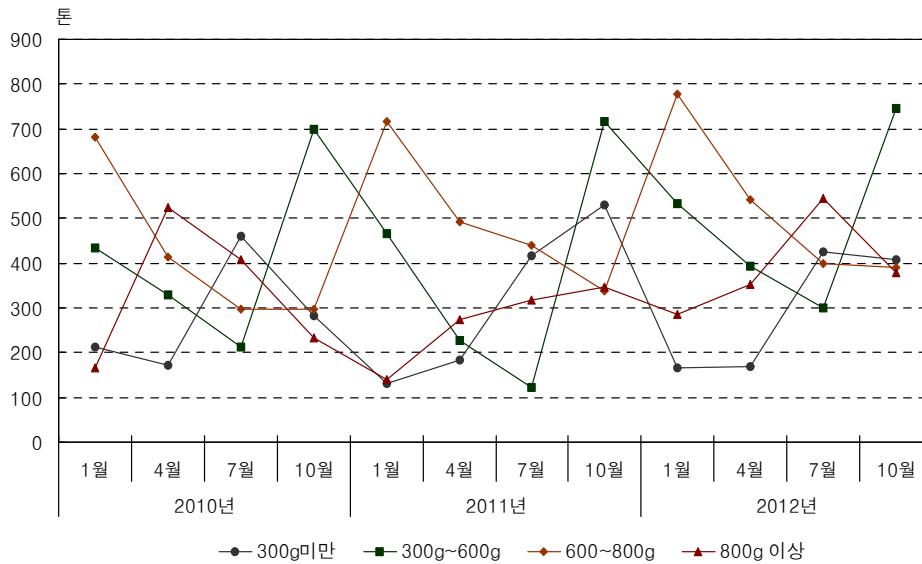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② 양성

- 2012년 송어 양성물량은 2011년 대비 16.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입식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2012년 10월 기준 크기별 양성물량을 보면, 300g 미만의 소형어는 전년 대비 7.4% 적었던 반면, 800g 이상 대형어는 9.8% 많았다. 금년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양성물량 대비 출하가 부진해 중·대형어 양성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30〉 송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동향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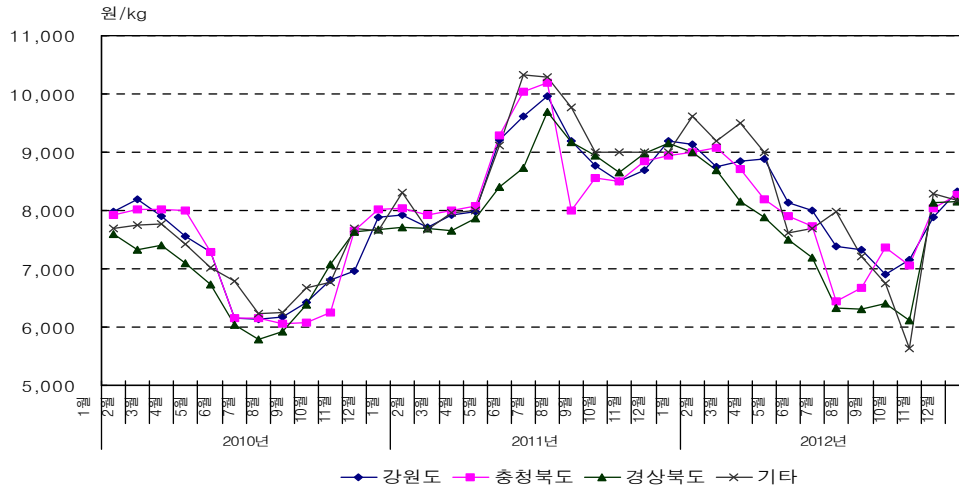
2) 가격

(1) 연도별·월별 가격

- 2012년 송어 가격은 kg당 7,894원¹⁾으로 전년 대비 9.4%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작년과 달리 구제역 및 일본 원전 사태 등 송어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이 없었던 반면, 공급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도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월별 송어 가격을 보면, 2012년 1월에는 축제용 수요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9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햇송어가 출하되는 10월 이후에 가격이 반등되었으나 전년보다는 낮게 형성되었다.

1) KMI 수산업관측센터 조사추정 산지가격

〈그림 9-31〉 월별·지역별 송어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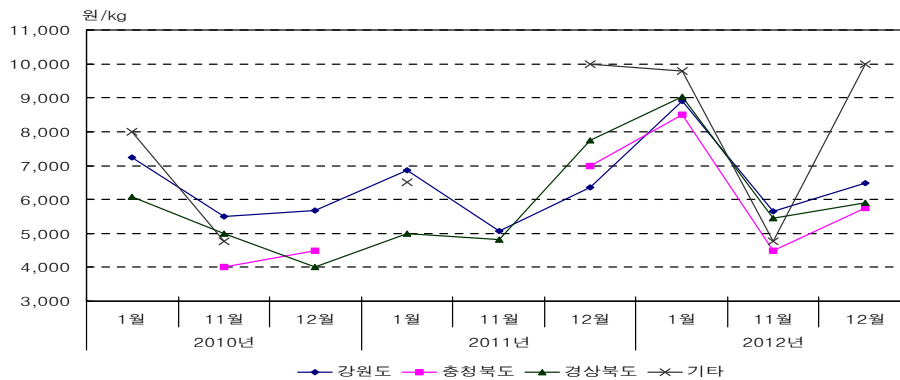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 월별·지역별 레저용 가격

- 송어는 유어낚시와 축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어낚시용은 연중 거래되며, 축제용은 11월부터 익년 1월 기간에 대부분 거래된다.
- 지난 겨울(2011년 12월~2012년 1월)에는 겨울철 송어 축제가 지역별로 다수 생겨나 레저용 송어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다.

〈그림 9-32〉 월별·지역별 레저용 송어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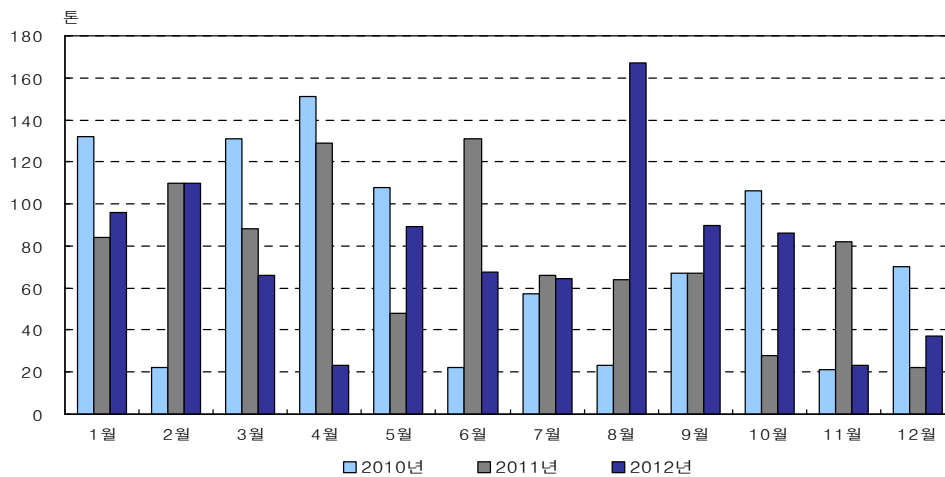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3) 수입

- 2012년 송어 수입량은 919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양이었다. 씨푸드 레스토랑의 확산과 대형마트 연어·송어 제품 유통 등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지난 2008년에 917톤이 수입된 이후 연간 900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송어 수입은 냉동제품이 대부분이며 지난 10년간 칠레와 노르웨이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그림 9-33〉 월별 냉동 송어 수입 동향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3년 생산량은 2012년보다 증가한 3,025~3,12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10월 기준 송어 양성물량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1,927톤이었다.

- 총양성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크기별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300g 미만의 소형어는 크게 감소한 반면, 300g 이상의 중·대형어는 전년보다 훨씬 많았다.
- 향후 3개월 내에 출하 가능한 600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은 전년보다 12.4% 많은 770톤이었다. 이는 입식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이 전년보다 많고, 축제 및 바다송어 양식용 거래물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2013년 생산량은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3년 송어가격은 2012년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 2013년 상반기에는 송어축제가 10곳 이상 개최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바다송어 양식이 지역별로 확대되면서 송어 종묘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소비위축의 해소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 송어 가격은 2012년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최근 3년간 송어의 연간 수입량은 큰 변동 없이 900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송어 수입량도 주수입국인 칠레와 노르웨이의 환경에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2012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어 수출의 경우 국내 생산된 송어가 수출되기보다는 원양 어업 등의 어획을 통한 물량이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량을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소비량 추정에 이용하였다.

4) 소비

- 송어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송어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3,537~3,632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7〉 2012년 송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 분		2011년	2012년(A)	2013(B)	전년 대비 증감 (B/A)
공급	국내생산량	2,908	3,005	3,025~3,120	0.7~3.8
	수입량	918	919	891	-3.0
수요	국내소비량	3,434	3,557	3,537~3,632	-0.6~2.1
	수출량	392	367	379	3.3

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I.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성진우*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출하 |
| 1) 출하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수출 | 4) 소비 |

1. 서론

- 2012년 8월 말 태풍 볼라벤, 덴빈 등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복 해상가두리 및 종묘장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이 시작된 이후 국내 출하량이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상반기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산지가격은 공급 감소로 인해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전복 소비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작년 하반기보다는 작았다. 전복 수출은 2012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내 소비가 둔화된 영향으로 작년과는 달리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최근 2~3년 동안 전복 폐사 문제와 이에 따른 전복 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국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부진에 따른 국내 소비둔화와

* 연구원

더불어 수출 또한 일본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폐사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지 않는다면,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전복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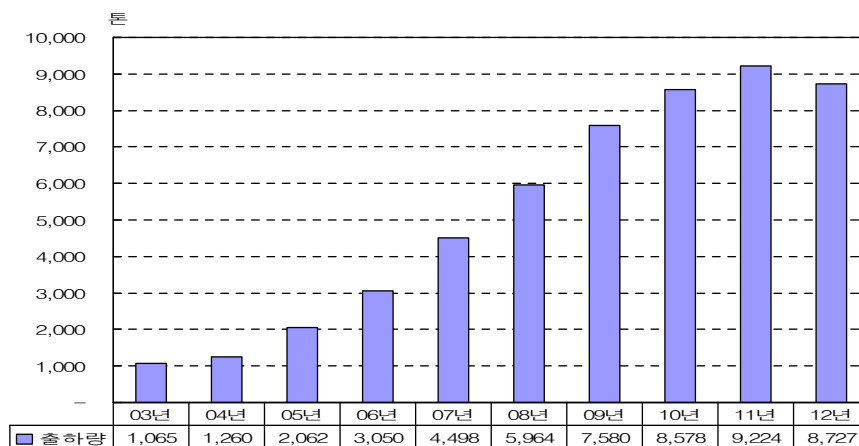
2. 2012년 동향

1) 출하

(1) 연도별 출하동향

- 2012년도 전복 출하량은 2011년에 비해 5.4% 감소한 8,727톤으로 추정된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전복 출하량이 2009년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2012년에는 감소했다.
- 2005~2007년 동안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율이 약 50% 수준이었는데, 2008년 32.6%, 2009년 27.1%, 2010년 13.2%, 2011년 7.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2년에는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출하량이 감소했다.

〈그림 10-1〉 연도별 양식전복 출하동향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 '01~'06년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07~'12년 수산업관측센터

- 전복 해상가두리 시설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복 출하량의 둔화는 시설 밀집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전복 폐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사 증가에 따라 출하될 물량의 비중이 감소했다. 더구나 생산자들이 폐사가 많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하하는 경향으로 인해 양성 기간이 짧아졌고, 이는 출하되는 전복의 평균적인 무게 감소로 이어져 출하량 증가는 입식량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도 지속되었고, 여름철 태풍으로 전복 해상가두리 시설이 대규모로 유실되면서 연간 출하량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2) 월별 출하동향

- 2012년 1~2월에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2011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3월부터 봄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8월 태풍 피해로 인해 하반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표 10-1>를 보면 2/4분기 출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들이 겨울철에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여 전복을 양성한 상황에서 여름철 대량 폐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2012년에는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8월 태풍 피해로 인해 3/4분기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2/4분기 출하량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 따라서 연중 수요가 3/4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4분기에 출하가 집중되면서 기간별 전복 수급의 불균형은 작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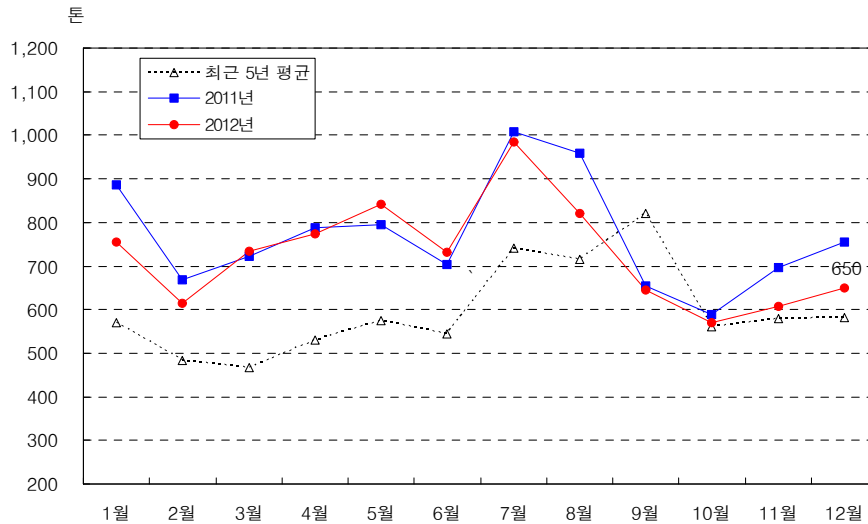
〈표 10-1〉 최근 3개년간 분기별 출하 비중

단위: %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009년	20%	24%	33%	23%
2010년	21%	22%	34%	23%
2011년	25%	25%	28%	22%
2012년	24%	27%	28%	21%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10-2〉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주: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3) 치패 입식 동향

- 2012년 11~12월까지 입식된 치패 입식량은 2011년 같은 기간에 입식된 물량보다 14% 감소한 2억 8,100만 마리로 추정된다.
- 이렇게 입식량이 감소한 이유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전복 대량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산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칸 당 입식량을 줄이는 경향에 따라 입식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향후 피해 지역에 복구가 완료되고, 해남, 진도 등의 지역에서 신규 가두리 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속되는 2012년산 치패 입식량은 2011년산보다 약 10% 감소한 5억 마리로 추정된다.

(4) 전복 양성 동향

-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복 양성물량은 9억 900만 마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 11월보다 13% 적은 수준이다.

- 이는 8월 태풍으로 인해 해상가두리 유실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1년 산 이상의 양성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0-2〉 전복 양성물량(2011년 11월말 기준)

단위: 만 마리

구 분	합계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
합 계	90,920	28,056	33,556	23,344	5,694
완 도	69,724	26,357	23,947	17,769	1,651
기 타	21,196	1,699	9,609	5,574	4,314

주 : 1년 미만(2011년산)은 2011년 5월경에 생산된 종묘가 치패로 입식된 것이고, 1년산(2010년산)은 2010년 5월, 2년산(2009년산)은 2009년 5월경에 생산된 전복 종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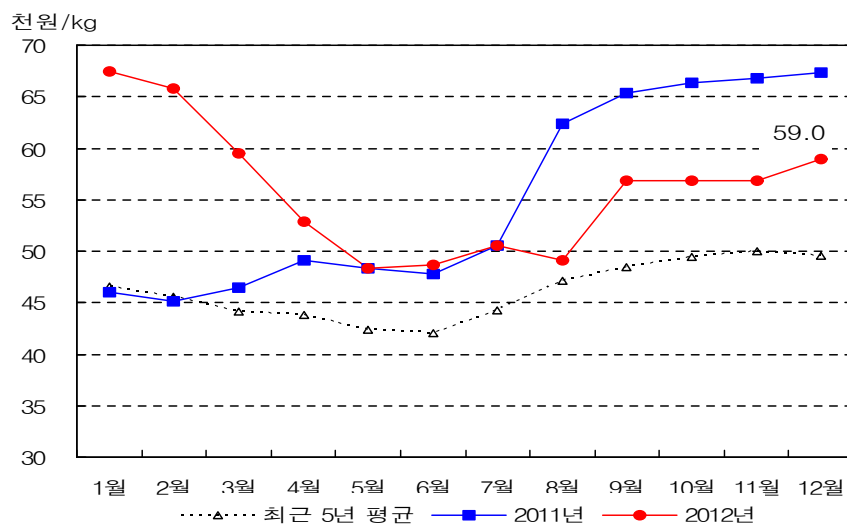
2) 가격

(1) 산지가격

- 2012년 활전복 산지가격은 상반기 하락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간 평균적인 가격이 2011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2011년 하반기에 수출 수요는 많았으나 출하 가능한 물량이 적어 상승세를 보였던 산지가격은 2012년 들어 1~5월 동안 산지 출하가 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 태풍으로 인해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이 대량으로 폐사됨에 따라 산지가격은 9월에 급등세를 보인 후, 12월까지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 연간 평균적인 가격은 2011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11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동안 가격 변동이 크게 없었다가 하반기에만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 한편 경기부진으로 인한 전복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하반기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낮은 수준을 형성했다.

- 크기별로는 모든 크기의 가격들이 2011년보다 상승했는데, 크기별 상승률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큰 크기의 연평균 가격에 비해 작은 크기의 연평균 가격 상승률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연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kg당 10마리의 상승률은 1.7%에 그쳤던 반면, kg당 20마리는 7.5%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복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큰 크기보다 작은 크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림 10-3〉 양식 활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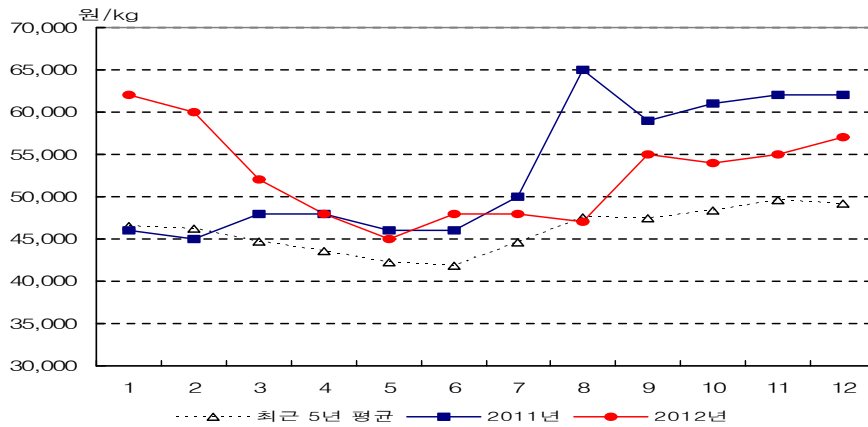
주 : 2012년 11~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2) 도매가격

- 도매가격 또한 산지가격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즉 하남활어시장의 경우, 상반기에는 도매가격이 하락했으나, 하반기에는 상승 반전하였다.
-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1~5월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6~7월은 같은 수준을 보였다. 8월에는 도매가격이 다소 하락했으나, 9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10-4〉 월별 양식 활전복 도매가격(kg당 10마리) 추이



자료: 수산업관측센터

주: 하남활어도매시장의 kg당 10마리 조사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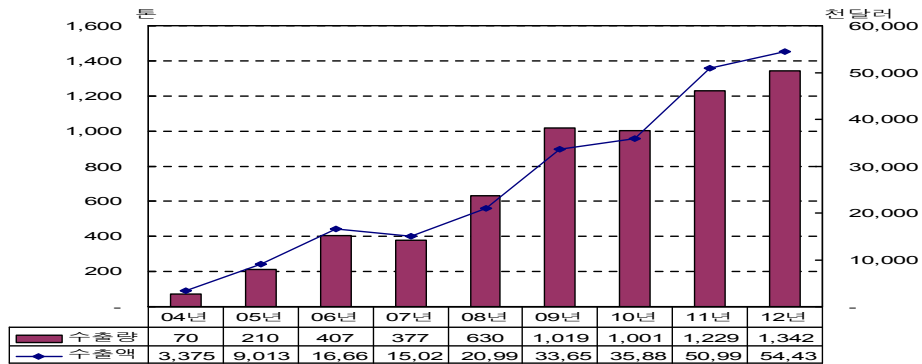
- 2012년 노량진 시장의 활전복 경매량은 520.5톤으로 2011년의 500.4톤보다 4.0%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5.3% 증가한 약 182억 원이었다. 따라서 연평균 경락단가는 2011년 34,539원에서 2012년 34,972원으로 1.3% 하락했다.

3) 수출

(1) 수출동향

- 2012년 활전복 수출량은 1,342톤으로 2011년보다 9.2%, 수출금액은 5,444만 달러로 2011년보다 6.8% 증가했다.
 - 이처럼 수출량 증가폭에 비해 수출 금액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이는 수출 단가가 2011년보다 2.2% 하락했기 때문이다.
 - 국내 연평균 산지가격은 상승한 반면, 수출 단가가 하락한 이유는 수출되는 전복의 평균적인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0-5〉 연도별 활전복 수출량 및 수출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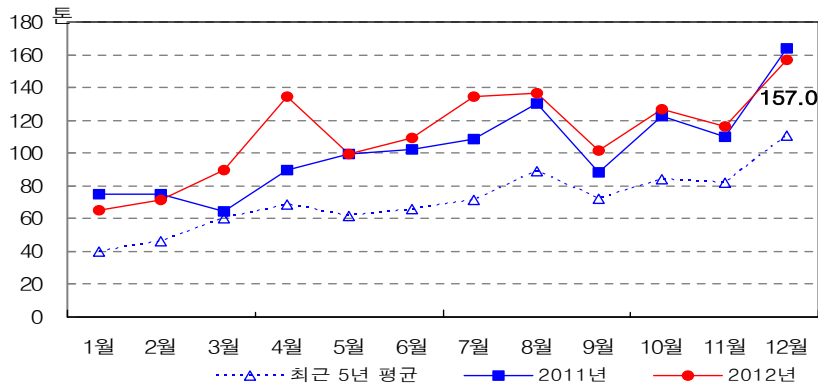


주 : 2010년 12월 수출량은 추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 한편 활전복 이외 기타의 형태로 수출된 것을 포함한 총 전복 수출량은 1,417톤이었고, 금액은 5,773만 달러를 기록했다.
- 월별 활전복 수출 동향은 2011년과 비슷하게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가, 9월에는 감소하지만 10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림 10-6〉 월별 활전복 수출량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3. 2013년 전망

1) 출하

- 2013년의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약 9,200톤으로 추정된다.
- 2012년에는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해지역에서 유실되었던 해상가두리를 복구하여 다시 정상적인 출하를 하기까지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하량은 약 5%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2년 하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활전복 산지가격은 2013년 상반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봄철 출하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데,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전복 폐사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름철 보양식 및 추석 선물용 출하가 진행된다면, 추석 이후 산지가격은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전복 산지가격은 2013년에도 상저하고의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

- 2013년 전복 총수출량은 2011년에 비해 10% 증가한 약 1,6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중에서 활전복 수출은 약 1,500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본의 활전복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

지만, 현재 국내 수출 물량 공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소비

- 2012년 태풍 피해로 전복 출하가 감소함과 동시에 국내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전복 소비 또한 둔화됨으로써 소비량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전복 공급이 다시 늘면서 국내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복 폐사 증가로 인한 생산성 악화는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산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국내 전복 수요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2013년에는 국내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하량 9,200톤 중 8,100여 톤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4% 많은 양이다.

〈표 10-3〉 연도별 전복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

구분	공급		수요		수출비율 B/A(%)
	출하량(A)	수입량	수출량(B)	국내소비량	
2006년	3,166	813	424	3,555	13.4
2007년	4,695	837	377	5,155	8.0
2008년	6,034	912	630	6,316	10.4
2009년	7,772	604	1,025	7,351	13.2
2010년	8,786	865	1,051	8,600	12.0
2011년	9,386	852	1,289	8,949	13.7
2012년	8,727	523	1,418	7,832	16.2
2013년	9,163	523	1,574	8,112	17.2

주 : 1) 2013년의 출하량은 실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임

2) 출하량=천해양식+일반해면임

3) 수출입량은 활전복 이외 기타의 것들을 포함(수율 50% 적용)

4) '국내소비량=공급(출하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 '01~'06년은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07~'11년은 수산업관측센터

II. 굴 수급동향과 전망

노승국*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3년 전망 |
| 2. 2012년 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출입 | 4) 소비 |

1. 서론

- 2012년 우리나라 굴 산업은 대미(對美) 수출 중단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2011년과 정반대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 2011년에는 주요 굴 생산국인 일본에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반사이익을 얻었던 반면, 2012년에는 수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5월 1일부로 중단됨에 따라 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 대미 수출 중단이 연중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외 국가들로의 수출 또한 차질을 빚었고, 국내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 또한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 2013년산 굴 시설량은 전년산보다 소폭 증가한 2,400만 연이었으며, 2012년 11월 말 기준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량의 80.8% 수준인 1,940만 연으로 전년산 대비 136만 연이 많았다.
- 2012년 굴 수출량은 전년 대비 37.1% 감소한 10,788톤이었다. 이는 대미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냉동굴과 통조림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3년 굴 수출은 연내 대미 수출이 정상화된다면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원

- 2013년산 굴 생산량은 전년산보다 많은 33,900~37,4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13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적은 22,005~22,545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2년 동향

1) 생산¹⁾

(1) 시설현황

- 굴양식 표본어가 조사 결과, 2013년산 굴 시설량은 2012년산 대비 4.5% 증가한 2,400만 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시설량은 1,872만 연으로 전년산보다 4.2% 증가하였고, 전남과 기타지역도 전년산 대비 각각 4.6%,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시설량은 전년산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월하연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시설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2013년산 굴 시설의 지역별 비중은 경남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였으며, 전남이 18.8%, 기타지역이 3.2%였다.

〈표 10-4〉 굴 시설량(5m 기준 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

구분	2012년산	2013년산	2012년산 대비		지역별 비중
			증감	증감률	
전 국	2,296	2,400	104	4.5	100.0
경 남	1,796	1,872	76	4.2	78.0
전 남	431	451	20	4.6	18.8
기 타	69	77	8	11.6	3.2

주 : 1) 수하연의 길이를 5m로 환산하여 표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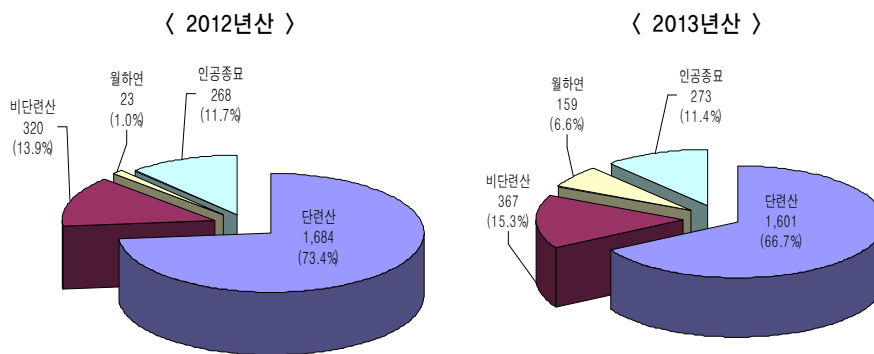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1) 굴은 생산주기가 뚜렷한 품종으로 보통 9월경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한 어기(漁期, fishing season)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굴의 생산어기에 따른 ‘연산’ 개념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012년산 : 2011년 9월~2012년 5월, 2013년산 : 2012년 9월~2013년 5월)

- 2013년산 굴의 시설종류별 변화를 보면, 단련산은 전년산보다 감소한 반면, 비단련산과 월하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종류별 비중은 단련산이 전체시설의 66.7%인 1,601만 연으로 가장 많았고, 비단련산은 15.3%인 367만 연이었다. 한편 인공종묘는 273만 연, 월하연은 159만 연으로 각각 11.4%, 6.6%를 차지하였다.
- 인공종묘는 종묘 생산업체의 증가로 전년산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월하연의 경우 2012년산 어기 말 수출이 크게 감소해 전년보다 훨씬 많았다.

〈그림 10-7〉 굴 시설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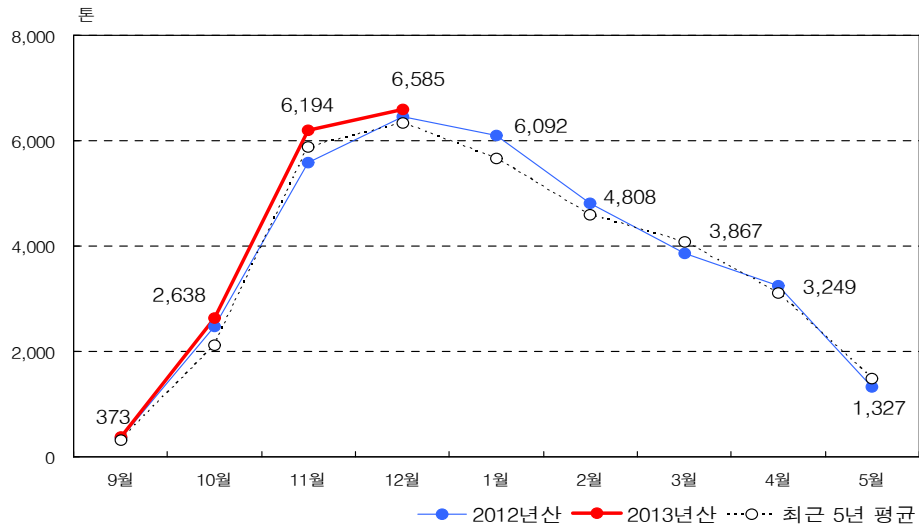


자료 : 상동

(2) 생산현황

- 2012년 9~12월까지의 2013년산 굴 생산량은 2012년산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15,537톤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2013년산의 초기시설량이 전년산보다 많았고, 10월 이후 양성상태가 매우 좋아 수하연당 중량이 전년산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 한편 2012년 누적 생산량은 34,880톤으로 2011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반면, 전남과 기타지역은 각각 3.9%, 13.8% 적었다.

〈그림 10-8〉 연산별 월별 굴 생산량 추이



주 : 1) 2012년에 해당되는 생산량만 수치로 표시하였음

2) 2012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상동

〈표 10-5〉 연도별 · 지역별 굴 생산량

단위 : 톤, %

구분	전국	경남	전남	기타
5년 평균	33,493	29,002	4,078	413
2011년	34,253	29,188	4,437	628
2012년	34,880	30,074	4,265	541
전년 대비 증감률	1.8	3.0	-3.9	-13.8

주 : 1)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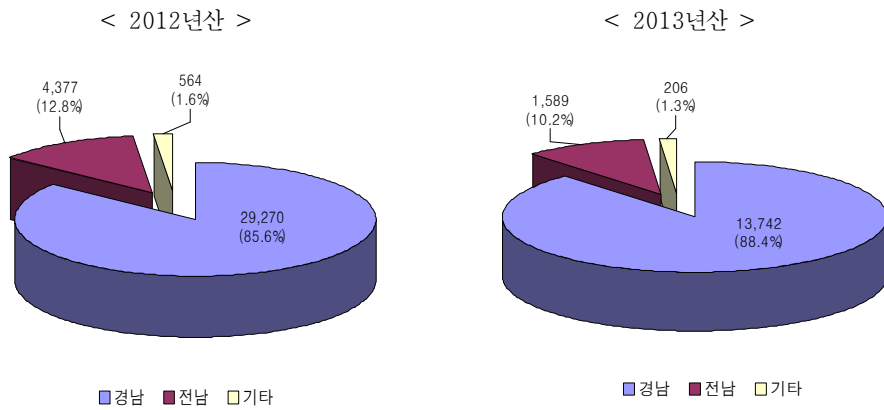
2)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2013년산 굴의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경남이 13,742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8.4%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0.2%인 1,589톤, 기타지역은 1.3%인 206톤을 기록하였다.

〈그림 10-9〉 연산별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자료 : 상동

(3) 잔여시설량 현황

- 2013년산 굴의 11월 말 기준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80.8% 수준인 1,940만 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잔여시설량 비중은 2012년산보다 높은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11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단위 : 만 연, %

구분	초기 시설량	11월 채취량	잔여시설량(만 연)		잔여시설량 비중(%)	
			2012년산	2013년산	2012년산	2013년산
전국	2,400	352.8	1,804	1,940	78.6	80.8
경남	1,872	287.4	1,380	1,479	76.8	79.0
전남	451	54.2	368	395	85.9	87.6
기타	77	11.2	56	66	80.8	85.5

주 : 1)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2)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4) 양성상태

- 2013년산 굴의 양성상태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전년산보다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산의 어기 초에는 경남 고성과 전남 고흥 등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여름철 연이은 태풍으로 양성 중이던 시설이 유실되었고, 이후 성장도 부진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고성지역에서 성장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비만도가 전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전남은 여수의 경우 폐사는 전년산보다 다소 많았으나, 성장과 비만도는 양호하였고, 고흥을 비롯한 진도와 완도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더불어 양성상태도 부진했다.
- 한편 충남은 전반적으로 양성상태가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비만도가 전년산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10-7〉 2013년산 굴 양성상태

지 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	○	—	—	양성상태 양호
	지도·원문만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고성	고성·자란만	△	○	—	—	성장 부진
거제	거제만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진해만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남해	강진만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여수	가막·여수만	○	○	△	—	성장·비만 양호, 일부 폐사
고흥	-	△	○	—	—	성장 부진
완도	-	△	△	—	—	양성상태 부진
진도	-	△	△	—	—	양성상태 부진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비만 부진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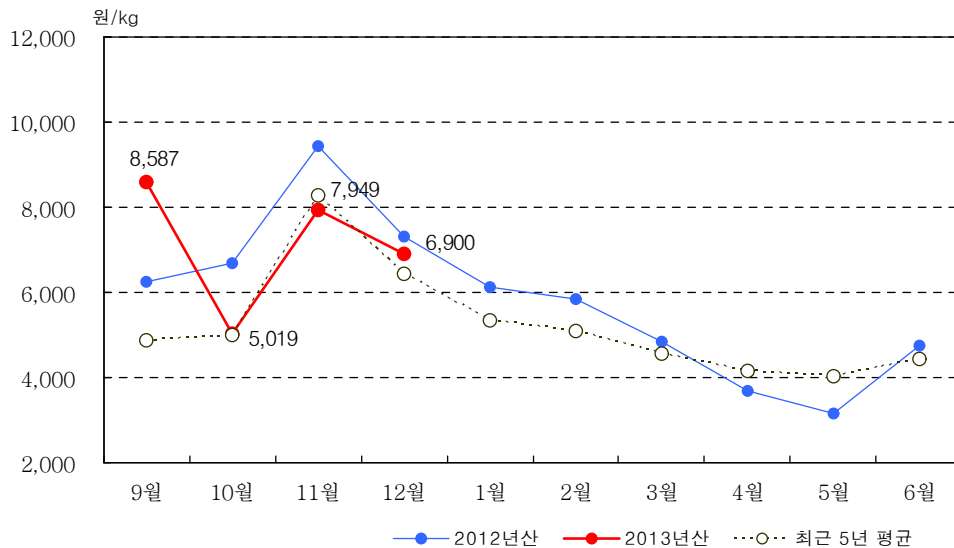
2) 가격

(1) 산지가격 동향

○ 2013년산 산지가격은 2012년산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 어기 초인 2012년 9월에는 가격이 전년산 대비 훨씬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해 고성지역의 월하 시설이 다수 유실되었고, 경남지역 일부에서 채취 작업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추석 특수의 영향으로 9월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추석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주 소비시기인 11~12월 산지가격도 전년산 대비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월하굴의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10-10〉 연산별 · 월별 산지가격 추이



주 : 1) '5년 평균'은 2008년산~2012년산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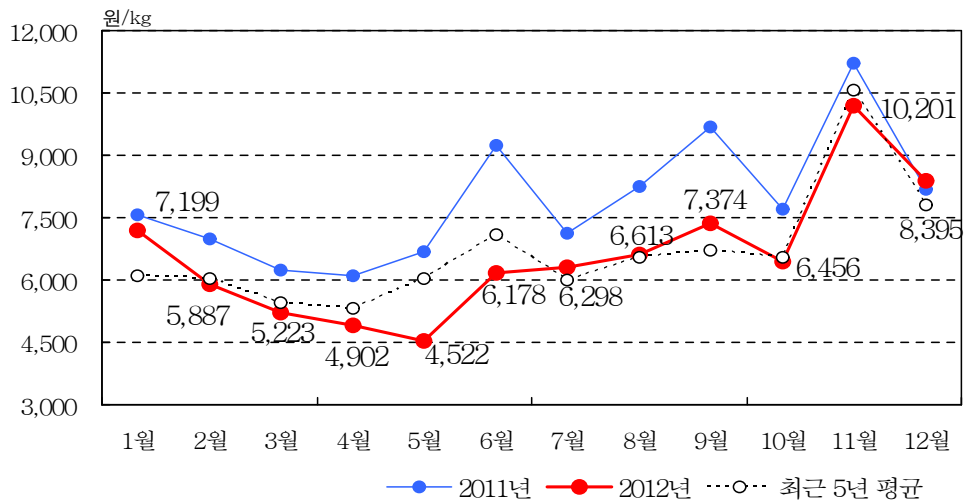
2) 9월은 고성군수협, 10월~6월은 굴수하식수협 평균 위판 가격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통영), 고성군수협

(2) 도매가격 동향

-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된 2012년 굴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 이는 수출 부진에 따른 내수공급의 증가와 소비부진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2년 김장 수요도 전년보다 감소해 굴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11〉 연도별 · 월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노량진수산시장

3)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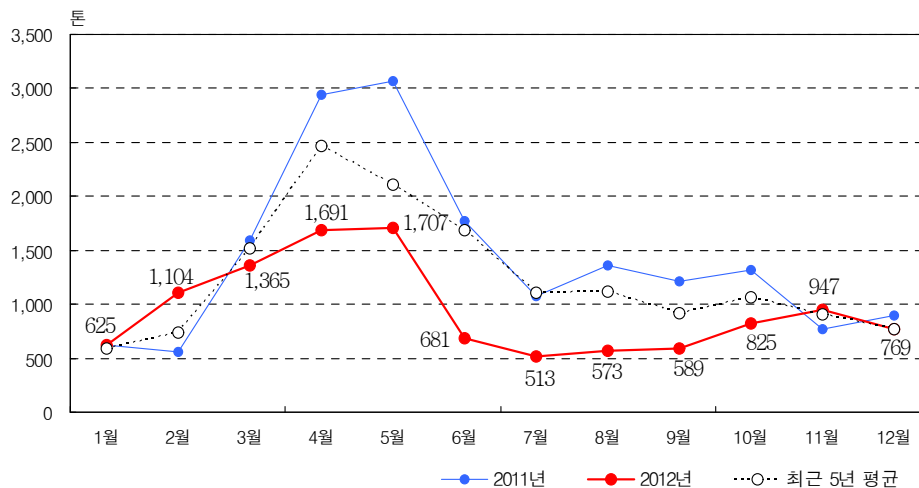
(1) 수출동향

- 2012년 굴 수출량은 2011년 대비 37.1% 감소한 10,788톤이었다. 이는 수출량이 2만 톤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 이는 미국 FDA의 한국산 굴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것인데,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FDA의 발표

에 따라 한국산 굴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미국 외 국가들도 한국산 굴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냉동굴과 굴 통조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수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2년 굴 수출금액은 50,939만 달러로 2011년 대비 38.0% 적은 수준이다.

〈그림 10-12〉 연도별 월별 수출량 추이



주 : 1) 건조굴 5배, 통조림 2.5배 수출을 적용하여 알굴로 환산함(치패는 제외)

2) '5년 평균'은 2007~2011년 기간의 평균값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제품별 수출동향을 보면, 모든 제품의 수출량이 2011년 대비 감소했다.

- 알굴은 전년 대비 43.6% 적었고, 냉동굴과 건조굴도 전년 대비 각각 32.2%, 17.0% 적은 양이 수출되었다. 특히 통조림의 경우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전년보다 52.4% 적은 2,887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별 수출량 비중은 냉동굴이 4,807톤(44.6%)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통조림 2,887톤(26.8%), 건조굴 2,623톤(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8〉 연도별 · 제품별 굴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비중 (2012)	전년 대비 증감률
알굴	중량	833	470	4.4	-43.6
	금액	8,063	3,888	7.6	-51.8
냉동굴	중량	7,093	4,807	44.6	-32.2
	금액	44,866	30,653	60.2	-31.7
건조굴	중량	3,160	2,623	24.3	-17.0
	금액	13,992	8,059	15.8	-42.4
염(수)장	중량	0	1	0.0	-
	금액	0	4	0.0	-
통조림	중량	6,071	2,887	26.8	-52.4
	금액	15,201	8,335	16.4	-45.2
합계	중량	17,156	10,788	100.0	-37.1
	금액	82,122	50,939	100.0	-38.0

주 : 상동

자료 : 상동

(2) 수입동향

- 2012년 굴 수입량은 568톤으로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이는 대미 굴 수출 중단에 따른 여파로 냉동굴과 통조림의 일부 물량이 반품 또는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냉동굴 수입량은 2011년 대비 130여 톤이 많았고, 통조림도 전년보다 340여 톤이 늘어났다.
 - 그러나 실제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염장·염수장 제품은 전년 대비 34.4% 감소한 69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9〉 연도별·제품별 굴 수입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알굴	중량	0	0	0.0	-
	금액	0	0	0.0	-
냉동굴	중량	6	137	24.1	2,216.1
	금액	44	952	52.7	2,049.3
건조굴	중량	0	0	0.0	-
	금액	0	0	0.0	-
염(수)장	중량	105	69	12.1	-34.4
	금액	208	123	6.8	-41.0
통조림	중량	20	362	63.7	1,751.2
	금액	85	733	40.5	766.4
합계	중량	131	568	100.0	334.5
	금액	337	1,808	100.0	436.0

주 : 상동

자료 : 상동

3. 2013년 전망

1) 생산

- 2013년 해황 여건이 2012년과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2012년 11월 말 기준 잔여시설량과 현재까지 수하연당 평균 알굴 생산량, 예상 월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3년산 알굴 생산량은 전년산과 비슷하거나 많은 33,900~37,400여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잔여시설량이 전년 동 시점보다 많고, 2013년산 어기에 굴 비만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산 알굴 생산량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0-10〉 2013년산 굴 생산 전망

단위 : 톤, %

구분	2011년산	2012년산	2013년산	2012년산 대비
생산량	33,692	34,211	33,900~37,400	-0.9~9.3

주 : 월하 예상량을 제외한 잔여시설량에 현재까지의 수하연 당 평균 알굴 생산량을 곱한 결과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가격

- 2013년 굴 가격은 작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미 수출 재개 시점에 따라 국내 가격 하락폭도 변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출입

- 2012년 12월 말 기준 대미 수출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아 2013년 우리나라 굴 수출은 전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 다만 2013년 중 대미 수출 정상화 시점에 따라 수출 감소폭은 변동할 것이나, 2012년에 비해서는 많은 양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11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미 수출의 정상화가 최단기간 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2월 이후에나 수출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또한 2013년 상반기에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전망되고 있어 해외 수요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11년 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3년 굴 수입은 2011년보다 다소 적은 100여 톤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소비

- 2013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은 수출량 증가와 수입량 감소로 인해 2012년산보다 적은 22,005~22,545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생산량의 64.9~60.3%에 해당되는 양이다.

〈표 10-11〉 2013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톤, %

구분		2012년(A)	2013년(B)	전년 대비 증감률(B/A)
공급	국내생산량	34,211	33,900~37,400	-0.9~9.3
	수입량	568	105~131	-81.5~-76.6
수요	국내소비량	23,991	22,005~22,545	-8.3~-6.0
	수출량	10,788	12,000~14,988	11.2~38.9

주 : 1) '생산량'은 연산별 수치이며, 수입량과 수출량은 연도별 수치임

2) '국내 소비량=공급(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013년 수산전망대회

2013년 1월 8일 인쇄

2013년 1월 9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김 학 소

발행처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비 매 품